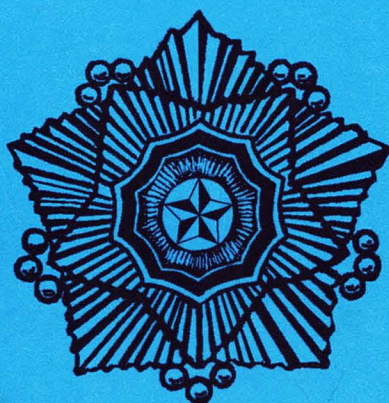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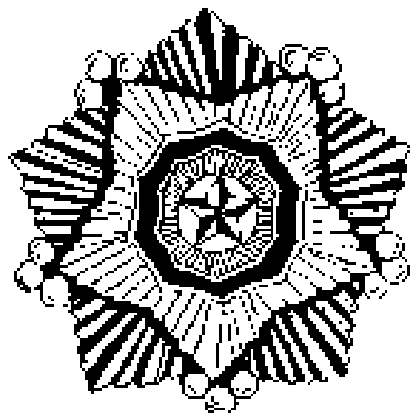
# 조선문학



7

주제 95(2006)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5(2006)년 제7호

(루계 제 705 호)

## 차 례

수령형상문학은 《조선문학》 잡지의	
핵이며 생명력의 근본원천 .....	3
인류의 태양 .....	6
크나큰 사랑 .....	7
수령님은 원화리에 계신다 .....	14
우리 수령님 모습 .....	15
장군님은 미소를 보내시네 .....	15
소원성취 .....	16
아버이사랑에 대한 이야기 .....	17
아이참 어찌면 좋아 .....	18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19
최고사령관의 1 분 1 초는... .....	19
조선포도 .....	20
나는 왜 여기 왔는가 (외 1 편).....	21
강사의 목소리는 조용히 울려도 .....	21
나는 영원한 수령님의 전사다.....	22
신기한 수자 41 만 5 천 216.....	23
생애의 순간순간을 수령의 충직한.....	24
전사로 값높이 산 혁명시인 (2).....	24
영원히 총대와 함께 흐르네 .....	27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	27
그리움의 아침은 맑고 푸르네 .....	27
병사의 추억 .....	27
노래여 우리 소원 아뢰드리렴.....	28

그이는 우리 삶의 태양이다.....	28
미룰수 없는 중대사 .....	29
신묘한 지략으로 .....	30
동점령의 불바다 .....	30
주체문학의 대강 .....	31
우리 당의 품속에서 .....	31
창간 60 뛸을 맞는 《조선문학》잡지 .....	31
빨간 저고리 .....	33
로인의 미소 .....	39
로인의 미소 .....	40
영웅의 가슴 .....	40
로병의 고백 .....	41
숨쉬는 기둥 .....	41
대동강에 묶여있는 간첩선 .....	41
포화속의 노래 .....	42
경구, 격언.....	44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	45
풍자해학적감정으로 충만된 .....	46
전시가요들을 더듬어.....	46
무산의 하늘 .....	48
돌격대거리 .....	49
동정심 .....	49
듣고싶은 목소리 .....	50
리승인과 그의 작품 .....	60
별의 공상.....	61
주타격전선 .....	61
생명수 .....	62
웃놀이마당 .....	63
부쉬, 그 입에... ..	64
풋고추맛 .....	64
아동문학작품의 지성세계를 높이자 .....	65
내 조국의 하루 .....	71
《부락의 유래》 .....	71
일력을 번지며 (외 1 편).....	72
쇠 물.....	72
귀에 끼워놓은 만년필 찾기 .....	72
그들의 행복 .....	73

## 수령형상문학은 《조선문학》 잡지의 핵이며 생명력의 근본원천

최길상

장구한 인류문예사와 유구한 민족문학사의 갈피에는 문학작품을 전문으로 내는 각양각색의 잡지들이 있다. 여기에 실리는 모든 문학작품들은 인간과 생활을 자기의 형상원천으로 하여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계급의 생활을 기본으로 반영하였으며 그 계급에게 복무하였다.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때마다 문학의 형상대상은 바뀌어졌으며 그것을 재현한 작품이 곧 문학잡지의 성격과 본질적면모를 특징짓게 하였다.

첫 창간호를 낸 때로부터 6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우리 《조선문학》은 영원히 변함없는 형상대상을 찾고 편집발행함으로써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했으며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냈다.

수령형상문학—이것은 주체문학의 영원한 형상대상이었고 《조선문학》잡지의 핵이며 생명력의 근본원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다.》**

《조선문학》잡지는 우리 혁명발전과 함께 승리의 한길을 걸어오면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힘있는 무기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조선문학》잡지가 발휘하고있는 비상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의 근본원천은 수령형상문학을 핵으로, 기본으로 하여 줄기차게 전진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시대와 문학, 현실과 문학과의 관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우리 문학발전의 합법칙적인 귀결이었으며 동서고금 그 어느 문학사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문학잡지의 면모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문학이 주체혁명위업에 이바지한다는것은 결국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이 바지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의 문학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인민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복

무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가 형성됨으로써 생활과 문학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다. 우리 문학은 이때까지 인류문학이 대상여보지 못하였던 전혀 새로운 세계,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위대한 현실을 형상원천으로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핵적인 문제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뇌수이며 일심단결의 중심인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수령은 주체혁명의 혁명가의 품모와 자질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인간이다. 수령의 빛나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를 알게 되고 그 위대한 품모를 크나큰 감동속에 따라배우게 된다.

문학에 반영되는 생활은 출판물을 통하여 대중에게 침투된다. 문학운동은 사실상 출판운동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조선문학》잡지는 창간된 첫날부터 새롭게 규정된 생활과 문학과의 관계를 가장 예민하게 정수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이 문학의 핵이며 그 생명력의 근본담보라는것을 세상에 궁지롭고 자랑차게 시위하였다.

주체35(1946)년 7월 25일 《조선문학》잡지의 전신인 《문화전선》의 창간호에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대서특필로 정중히 실리었다.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송가문학과 백두산 전설로부터 시작된 우리 수령형상문학은 해방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창작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수령형상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불멸의 혁명송가의 수록으로 창간호를 빛나게 장식한것은 《조선문학》잡지의 사명과 본질적특징을 규정짓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우리 《조선문학》은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에만도시 《그이를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 《인민의 태양 김일성장군》, 《더욱 굳게 뭉치리 장군님 두리에》,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 시》, 《빛나라 그 이름 김일성장군님》등 위대한 수령님을 노

래한 송가작품들과 단편소설 《개선》, 《장군님을 맞는날》 등을 비롯하여 수령을 노래한 수많은 예술산문들로 페이지들을 빛나게 아로새겼다.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들마다에서 《조선문학》 잡지는 자기의 본색과 사명을 더욱 뚜렷이 하고 강화하면서 수령형상작품들을 활발히 편집발행하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크나큰 그 이름 불러》, 《수령께 드리는 노래》, 《김일성장군님께》를 비롯한 수령칭송의 수많은 시가작품들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수령결사옹위의 성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전후 사회주의건설 시기에는 시 《우리의 최고사령관》, 《광장에서 부르는 노래》, 《날이 밝는다》, 《크나큰 사랑》 등 다양한 형식의 수령형상작품들을 실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숭고한 풍모를 가슴뜨겁게 안겨주고 그들을 수령의 위업수행으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조선문학》 잡지가 수령형상문학을 핵으로 하여 빛나는 면모를 더욱 과시하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문학에 대한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력사적시기부터이다.

일찌기 혁명적인 수령론을 창시하시고 문학예술창조에 빛나게 구현하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던 첫 시기부터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을 문학의 기본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지도와 창작력량을 집중하여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하고 천재적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을 형상한 혁명문학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이 훌륭히 창작되었으며 소설, 시, 아동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다양한 형식의 수령형상작품들이 창작되어 주체문학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핵으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문학은 확고히 수령의 형상창조를 주선으로 하여 힘있게 건설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을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수령형상문학창조의 자랑스러운 전진과 더불어 《조선문학》잡지는 수령형상작품들로 더욱 품위있고 권위있게 강화되게 되었으며 사상미학적 감화력을 백방으로 높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수령형상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이 높아진 철학성있는 성과작들이 잡지의 지면을 빛나게 하였다.

단편소설들인 《력사의 자취》, 《맑은 아침》, 《크나큰 사랑》과 《영원》 등이 훌륭하게 창작되어 잡지의 지면에 나타났다. 단편소설 《력사의 자취》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혁명투쟁의 목적도 결국 인간의 자주성을 지키는데 있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간애와 높은 덕망을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구체적인 생활화폭속에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으며 단편소설 《맑은 아침》은 미제침략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새로운 작전, 세계 군사과학이 알지 못하는 독창적인 전략과 전술을 짜시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이 승리한후에 폐허로 된 평양시를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불멸의 령도업적과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육친적사랑을 형상하고있는 단편소설 《크나큰 사랑》 등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은 제기한 인간문제의 철학적깊이, 시대와 생활과 인간에 대한 미학적분석과 묘사의 생동성, 단편다운 구성과 묘미로 하여 수령형상작품의 품위를 한껏 돋구고있으며 강한 사상정서적전인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새롭게 발전풍부화된 수령형상문학은 우리 《조선문학》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였으며 그 불패의 진리성을 힘있게 증시하였다

수령형상문학을 핵으로 하여 그 생명력의 영원한 원천을 가지게 된 《조선문학》잡지는 그 본질적면모를 궁지높이 자랑하며 일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는 특전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 《조선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정중히 모시는것과 함께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자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로 지면을 빛나게 함으로써 그 생명력과 주체적면모를 더욱 강화발전시켰다.

《조선문학》잡지의 지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전당과 온 사회를 하나의 숨결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충실성의 위대한 모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에 담겨진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샘과도 같은 비범하고도 천재적인 예지,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을 한손에 틀어쥐고 어느 한 분야도 빠짐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한 속도로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도록 이끄는 탁월한 령도,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품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한 품에 안으시고 보람찬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를 심장으로 감수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소설의 첫 형태는 단편소설이었다.

우리 《조선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을 처음으로 실는 영광을 지녔다.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작품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매한 품모와 숭고한 인간애, 그이께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통일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기울이신 정력과 헌신,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다양한 형상적 형식과 수법으로 그려져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아버지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 리심을 형상한 작품이다.

단편소설 《고요》와 《우러르는 마음》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단편소설 《고요》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와 정력을 다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결한 품모를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으며 단편소설 《우러르는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저택의 보초수들을 돌아보시면서 보초병들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하고도 고결한 품모를 생활적으로 감동깊게 그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 위대한 령도품모를 형상한 단편소설 《고향길》, 《맑은 물소리》, 《위대한 구상》, 《조선시간》등과 그이의 고매한 인간적품모와 덕성을 형상한 단편소설 《심장의 메아리》등을 비롯하여 훌륭한 수령형상 작품들이 우리 《조선문학》의 화원을 더욱 숭고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우리 시문학은 위대한 향도의 태양을 노래하며 서정의 나래를 한껏 펴고 더욱 랑만적으로 노래했다.

서정시 《조선이 기쁜 날》, 《백두의 새날》, 《위대한 날에》등이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로 모신 시대의 감격과 환희를 격정에 넘쳐 노래하였으며 시 《세월이여 네가 말해다오》, 《향도의 별빛아래》, 《묘향산 등산길》등은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희망과 미래,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다함없는 사랑을 랑만적인 서정으로 열렬히 노래하였다.

참으로 《조선문학》잡지의 갈피마다에서 굽이쳐흐르며 솟구쳐오르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메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끝없는 흠모심을 안겨주

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사상정서적 감화력을 발휘하였다.

더우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는 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사면팔방으로 조여드는 적들의 반공화국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간고한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조국과 사회주의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선군령도로 사회주의 붉은기를 수호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작품들을 통하여 우러러 비오면서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으로 사회주의를 지켜낼 신념을 굳히며 선군혁명천만리를 신심드높이 달려왔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우에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새로운 양상의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노래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하여 서사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세상에부럼없어라》등 시대의 기념비적명작들이 우리 《조선문학》의 폐지마다에서 눈부신 광채를 뿌리었다.

서정시들인 《조선의 세월》, 《철령》, 《최전선에 부치는 편지》, 련시 《전선길에 해가 솟는다》,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 《전선길의 3일이야기》등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감동깊은 시적형상으로 확증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문학》잡지의 지상을 통하여 뜨거운 흠모의 정으로 선군령장의 위대한 품모에 매혹되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심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결사수호전에서 필승불패의 힘을 발휘하였다.

참으로 《조선문학》잡지는 창간호를 낸 때로부터 60년에 이르는 기간 간고하고도 영광에 찬 우리 혁명과 더불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노래한 수령형상문학을 핵으로 편집발행함으로써 주체문학의 얼굴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더욱 빛나게 부각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조선문학》잡지가 수령의 위업을 받들고 실현해나가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시대적사명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왔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수령형상문학은 《조선문학》잡지의 핵이며 넘치고 영원한 생명력의 근본원천이다

우리 《조선문학》은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형상문학을 기본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편집발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해나갈것이다.

# 인류의 태양

문동식

## 1

금수산기념궁전  
오늘도 여기로 굽이쳐 오는  
그리움의 대하  
경모의 물결

시작은 어데고  
끝은 어데인지  
아득하다  
세월처럼 끝이 없다

국적이 다르고  
정견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계급이 달라도

여기서는  
오직 수령님의 인력에  
백만이 와도 하나의 흐름  
천만이 와도 하나의 숨결  
하나의 발걸음뿐

## 2

금수산기념궁전  
송엄한 고요속에  
예나 다름없이  
오늘도 사색의 심연속에 계시는  
김일성동지

여기에선 누구나  
정숙하게 웃길 여미고  
숨소리  
발자국소리도 삼가하며  
위대하고 거룩한 위인의 생애앞에  
깊이 머리숙여 인사를 드린다

순간이 천년인듯  
한자국에 한세기가 흐르는듯  
누구나 조용히  
가장 깨끗하게 정화된 마음안고  
그이만을 열렬히 흠모하며

여기에선 그 누구나  
주체의 화불로 암흑을 태우시며  
수령님 헤쳐오신  
백두산 줄기줄기 눈보라소리  
압록강 굽이굽이 세찬 물결소리  
귀전에 뜨겁게 새겨들는다

여기서는 그 어떤 정치인도  
우리 수령님 위대한 한생애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우주보다 더 높고  
태양보다 더 깊은

그 불멸의 업적만을 생각한다

천년을  
만년을 오르고 올라도  
끝없이 솟아있는 사랑의 메부리  
그우에 비껴있는  
맑고 창창한 하늘을 이고

여기로  
만민의 흐름을 따라  
해와 달이 흘러간다  
우리 수령님을 따라서 역사가 흐른다

## 3

김일성동지  
그이는  
인류의 영원한 태양

떨어지면  
빛을 잃는 별과도 같이  
떨어지면  
사멸되는 위성과도 같이  
오직 태양만을 따라 도는  
우리의 행성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지구가 주체의 궤도를 잃지 않도록  
백두의 천출위인 김정일동지  
그이는  
무궁한 세월의 흐름우에  
주체년호를 펼쳐주셨거니

인류를 이끄시며  
오늘도 여기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세계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를 따라  
백돌기  
천돌기  
천만돌기  
주체의 년륜을 새겨가도록  
선군총대로  
자주의 궤도를 지켜주시는  
김정일동지 그분이 계시여

오 우리 수령님은  
천세만세  
하늘땅이 다하도록  
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시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단편소설 〈크나큰 사랑〉은 수수한 장편소설보다 훨씬 값높은 나라의 재보입니다.》

## ○단편소설○



리영규 그림 류명규

방금 위대한 수령님 방에서 자기 방으로 돌아온 의사 오영준은 가슴이 후터워지면서도 한편 자기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것 같아 허전한 감을 금할수가 없었다.

오영준은 수령님의 건강을 책임진 사람이다,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하신 건강을 책임졌다는 긍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책임 또한 무겁게 느끼는 그였다.

오영준은 수령님께서 귀중하신 몸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사업하시는것이 안타까웠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야말로 불면불휴의 활동을 하신다. 나라살림살이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수령님의 심려가 미치지 않는 곳이란 없으며 령도의 손길이 가닿지 않는 곳이란 없다. 지이 로동자, 농민들의 집에까지 찾아가시여 살림형편을 보살피시는 수령님이 아닌신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 있고 출퇴근시간이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요일도 출퇴근시간도 없으시다.

이렇게 휴식을 모르시고 일하시는 수령님의 전길에 대해 의사인 오영준으로서 걱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작년 4차당대회이후부터는 더욱 그러하였다.

당대회의 큰 사업을 치르시고나서도 잠시의 휴식도 없이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해 오늘

은 북부지방의 제철소로, 다음은 서해안의 농장마을로, 다음은 내륙지방의 광산과 립산사업소로... 이렇게 들끓는 국내각처를 현지지도하시기에 분망한 나날을 보내셨다.

오영준은 수령님께 휴식하실것을 여러번 말씀드렸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매번 사업이 바쁘시다 하시면서 휴식하지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만은 쾌히 승낙하시였다. 오영준은 자기의 념원이 이루어져서 기뻐다. 이번만은 기어코 수령님께서 충분히 휴식하시도록 의사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오영준은 수령님을 따라 이곳 산간마을로 오게 되였다.

오영준은 이곳에 오자 수령님께 휴식기간에 지켜주셔야 할 일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수면을 충분히 보장하실것과 신문이외의 독서는 금하시고 사업에 대해서도 잊으실것을 말씀드렸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하시였다.

오영준은 그 이튿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침진지를 드시고 방에서 안정하고 계시는줄만 알고 자기 방에서 불일을 보고있었다.

점심때가 거의 되어서야 일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오영준은 수령님께서 방에 계시지 않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수령님께서 아침식사후 곧 이곳 중학교에



가셨다는 것이었다

오영준은 황급히 중학교로 달려갔다. 땀을 흘리며 달려가던 그는 문득 학교실습지에서 학생들과 함께 가을남새를 심고계시는 수령님을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팔소매를 걷어올리시고 삽으로 흙을 푹푹 파엿으시며 학생들과 즐거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오영준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서있었다.

이때 수령님께서서는 오영준을 보시었다.

《오선생이구만... 같이 일해보지 않겠소? 이렇게 일하고나면 몸이 거뜨한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하시는 수령님을 보고 자신도 일하고싶었던 오영준은 옆에 있는 삽을 들고 학생들속으로 끼어들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남새밭이랑을 다 지으시고나서 종자봉지를 학생들앞에 풀어놓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이 배추종자는 채종농장에 과업을 주어 새로 얻어낸 종잔데 이런 산간지대에 썩 잘되오. 이제 학생동무들이 잘 가꾸어보오. 앞으로 종자를 많이 받아서 군내 각 학교들과 협동농장들에도 나눠주오. 그래야 이 산간지대에서도 별방과 같이 좋은 배추로 김장을 담가먹게 되지 않겠소.》

수령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배추씨 묻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시면서 로동을 사랑해야 훌륭한 혁명인재로 될수있다는 것과 배운 지식을 이렇게 실지로 해보아야 그것이 쓸모있는 지식으로 된다는것을 차근차근 말씀하시었다.

학생들과 함께 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바라보는 오영준은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그러면서도 한껏 무더운 날씨에 너무 오래동안 로동하시는것이 걱정도 되고 송구스럽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그날은 아침 한나절을 꼬박 폭양아래에서 로동을 하시었다.

그 다음날 오후에는 여기서 20리나 떨어진 목장에 가시여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축사들을 돌아보시며 지도하시기에 온종일을 쉬지 않으시고 다니셨다.

다음날은 이곳 군당위원장(당시)과 군인민위원회 위원장(당시)이 찾아와서 (사실은 수령님께서 부르셨다.) 그들과 담화하시는것으로 오전의 안정시간을 보내셨고 또 그 다음날에는 군내 전체 리당위원장(당시)들이 왔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하루종일 그들에게서 사업정형을 청취하시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가르쳐주시느라 그날도 분주히 지내셨다. 그 다음날은 협동농장을 찾아가시여 농장원들과 담화하시었고 다음날은 지방산업공장 지배인들을 부르시고...

결국 휴식이란 이름뿐이고 수도에서 이곳 산간지대로 옮겨오셨을따름이지 사업과 생활에는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었다.

그렇수록 오영준은 의사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하신 건강이 넘려되어 오늘아침 그이의 방으로 찾아갔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는 오영준을 보

신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오의사의 심정을 읽으시고 다정히 맞아주시며 그보다 앞질러 말씀하시었다.

《오선생! 경치좋고 공기좋은 곳에 와서 적당히 운동을 하며 휴식을 하니 건강이 매우 좋아지는것 같습니다.》

오영준이 보기에다 건강이 더 좋아지셨고 확실히 더 젊어지신것 같아 내심 여간 기쁘지 않았다.

《수령님! 좀 더 안정하시고 휴식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일파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한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입니다.》

오영준은 념원이란 말에 힘을 넣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판에는 가장 적절한 말을 찾아했다고 생각하며 수령님을 바라보았다.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말씀하셨다.

《고맙습니다. 오선생, 그럼 좀 더 안정하고 휴식하도록 합시다.》

이날 점심시간이었다. 오영준은 점심후 뜰앞 송림속으로 들어가 결상에 걸터앉아 땀을 들이고있었다. 그는 점심후 한때 여기 앉아서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기를 즐기었다. 호수를 둘러싸고 높이 솟은 산봉우리들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산들이건만 보면볼수록 아름답고 마음 흐뭇해지는것은 산자체의 수려함만은 아니었다.

지금 부드러운 곡선을 그으며 뻗어나간 산발들과 깊숙한 골짜기들을 뒤덮은 울창한 수림은 무진장한 부원을 간직하고있지만 지난날에는 나무없이 앙상한 산발들이였고 메마른 골짜기들이었다. 그 산발과 골짜기들에는 오의사가 어렸을 때 주린 창자를 그러안고 부대기발을 두지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다니던 슬픈 추억이 담겨져있다. 그러나 오늘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울창한 수림으로 덮이었고 그 부원이 인민들의 생활을 운락케 하는 재부로 되어 산마다 황금산으로 되었기때문이었다. 산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이 산간군으로 울적마다 모든 부문이 새롭게 변모되어가는것을 보게 되니 그때마다 놀라왔고 한량없이 즐거웠다. 해마다 지방산업공장들이 늘어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나왔고 마을마다 초가집들이 자취를 감추고 화려한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희망에 넘치는 사람들의 노래소리는 높이 울리었다.

그런데 오영준이가 지금 여기 나와앉은것은 이러한 인민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려는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부터 수령님의 한낮의 휴식시간을 꼭 보장해드리려고 생각했던것이였다. 그 래 정문에서 들어오는 길목인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이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휴식시간이 끝날 때까지 불들어울 작정이였다. 그가 주위의 경치를 둘러보면서도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의를 돌리고있는데 한 사십뽕을직한 사람이

수첩을 끼고 그앞을 지나갔다.

오영준은 얼른 그 사람을 불러세우고 어디로 가는  
가고 물었다. 그 사람은 아니나다를까 수령님을 뵈우  
러 간다고 대답했다.

《지금 수령님께서서는 휴식중이십니다.》

오영준은 시간고려도 없이 찾아온 그 사람을 못마  
땅하게 여기며 말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순순히 말하고 송림속으로 들어서려 하  
였다. 오영준은 그 사람을 밖에서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자기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은 군수매소장이었다.

군수매소장을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시간을 끄느  
라고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부관이 문을 두드리고 급  
히 들어서며

《오선생님! 군수매소장동지를 못봤습니까?》 하고  
물었다.

오영준은 (아차! 잘못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여기 계십니다.》 하고 얼른 대답했다.

부관은 군수매소장과 오영준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  
했다.

《여기 계시는줄 모르고... 정문에 오셨다기에 곧 들  
여보내달라고 전화를 하고 기다렸으나 들어오질 않아  
찾아다녔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동지를 기다  
리고 계십니다. 어서 갑시다.》

부관은 수매소장을 데리고 급히 나갔다.

오영준은 (수령님께서서는 오늘도 쉬시지 못하시는  
군.)하고 생각하며 군수매소장이 빨리 돌아가주기를  
기다렸다.

두어시간이 지나서야 수령님께서서는 수매소장을 바  
래주시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됐다고 거듭 말씀  
하시면서 자동차를 태워보내시었다.

오영준은 수령님께 한낮의 휴식시간만은 지켜주셨  
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수령님의 방으로 들어가  
려다가 너무 그러면 되려 그이를 괴롭히는것으로 될  
것 같아 망설이였다.

잠시 주저하던 그는 (나는 전체 조선인민들로부터  
무거운 직책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들자 용기를 얻어 수령님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령님께서서는 오영준에게 자리를 권하시고나서 부  
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오선생이 내 건강을 념려해주는건 감사합니다만  
오늘 군수매소장동무에게는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오영준은 수령님의 말씀을 들자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면서도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조심  
히 여쭙었다.

《수령님! 그 동무는 자기가 시간타산을 못하고 왔  
다는것을 알자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동문 내가 불렀습니다. 뻘스도착시  
간때문에 휴식을 미루고 그 동무를 기다렸습니다. 그  
렇지 않으면 그 동문 공연히 두시간이나 기다려야 하

지 않습니까? 그뿐아니라 돌아가는 뻘스시간이 세시  
간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동문 더 초조하게  
기다릴게 아닙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영준은 뻘스시간까지 다 아시고 사업을 조직하시  
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관심에 감복하여 마치않  
으면서도 그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 직분을 지켜  
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뜻을 여쭙려는데 수령님  
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 동무의 말을 들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농민들  
이 부업도 잘해서 수매액이 부족 늘었다고 합니다.  
전번 군당위원장과 리당위원장 동무들도 그랬지만 인  
제는 이 산간 군내 농민들의 생활도 상당히 유족해쳤  
다고합니다. 그동안 경험을 쌓았으니 이제부터 그 경  
험을 살려 계속해나간다면 더 잘살게 할수 있을것입  
니다. 이젠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오선생, 나는 그  
런 말을 듣는것이 쉬는것보다도, 보약보다도 건강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수령님께서서는 매우 만족해하시  
였다.

철두철미 인민의 립장에 서시여 인민을 위하시는  
수령님의 크고도 뜨거운 사랑에 감복된 오영준은 그  
이의 높은 뜻을 백에 하나도 본받지 못하는 자신을  
뇌우치면서 흥분된채 수령님 방에서 물러나왔다.

그는 지금 자기 방에 돌아와서도 방금 받은 커다란  
감동으로 하여 오래동안 흥분에 싸여있었다. 그러면  
서도 한편 자기 직책을 다하지 못한것 같아 허전한  
감을 누를길이 없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그는 문득 그이께서 이곳으  
로 오신 의도가 판데 있으시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때 한 일군이 웬 로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오영  
준의 권고로 로인이 자리에 앉은 다음 일군이 말하였  
다.

《이 할아버지는 여기서 50 리밖에 사시는데 좋은  
약재를 구해가지고 수령님께 드리려고 걸어서 오셨다  
고합니다.》

허연 채수염이 길게 자라 풍채가 좋은 그 로인은  
곱게 결은 찌리바구니를 안고있었다. 그 로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 집안은 대대로 장수하는데 할아버지는  
아흔다섯살까지 살았고 아버지는 백두살에 돌아갔고  
자기는 지금 여든세살이라고 하였다. 여든세살난 로  
인이 50 리길을 걸어왔는데도 거의 피곤한 빛이 보이  
지 않았다. 보통키에 허리도 굽지 않은 로인은 혈색  
이 좋아 얼굴이 불깃불깃 하였다.

《저의 집에서는 모두 이 약을 먹고 오래 삽니다.  
그래 수령님께서 장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약을 구해가지고 왔소이다. 이 늙은 사람의 정성을  
저버리지 마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로인은 이렇게 말하며 찌리바구니를 내밀었다.

오영준은 심심히 사의를 표하고 바구니를 받아 풀어  
보았다. 거기에는 정말 귀한 약재들이 들어있는데 하

나같이 고르고고른 약재들에는 로인의 정성이 스며있음을 알수 있었다.

오영준은 수령님께서 이 약을 복용해주시면 작히나 좋으랴싶었다. 그동안 그와 같은 약재를 구해두세번 수령님께 대접하려 하였으나 그이께서는 건강한 사람이 보약이 무슨 보약이냐고 하시며 잡수시려고 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니 이 약도 안쓰실것이라고 생각되자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그가 약재들을 다시 바꾸니에 챙겨넣고있는데 로인이 《부디 수령님께서 그 약을 잡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곡히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오영준의 머리속에는 문득 한가지 생각이 떠올라 로인을 잠깐 기다리게 하고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로인님, 저와 같이 수령님을 뵈우러 가십시오.》 하였다.

《제가요?! 바쁘신 수령님을 저같은 촌놈은이 어떻게 만나뵙겠습니까?》

《제가 이자 수령님께 로인님이 찾아오신 사유를 말씀드렸더니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수령님을 만나뵙시면서 이 약을 꼭 잡수시킬 바라다고 간곡히 말씀드리십시오.》

로인을 데리고 그이의 방으로 가는 오영준은 형어나 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수령님께서는 약재를 가져온 로인에게 거듭 사의를 표하고나서 약재를 하나하나 들어보시며 약재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서 구했는가를 물으시었다. 그리고 이런 약재를 많이 구할수 있는가도 물으시었다.

로인은 그 약재들이 흔치 않은것들이어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었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시었다.

《원래 삼도 산에서 구하자면 여간 귀한 물건이 아니였지요. 그러나 그 씨를 받아다 재배를 하여 지금은 누구나 다 먹을수 있도록 흔한 물건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풀도 그렇지요. 풀벌을 집에서 치기전에는 구하기가 매우 힘든 귀물이 아니였습

니까?》

수령님의 말씀을 들은 로인은 깨달았다는듯 말씀드리었다.

《네, 그 참 그렇습니다. 이 약재들도 그럭허면 되겠습니다.》

《될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먹을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오래 살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로인님, 그렇게 해보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인은 기뻐서 수령님께 대답을 드렸다.

《해보십시오. 산간지대에서 그런 약초들을 재배한다면 현금수입을 높이는데도 좋은 일일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는 수령님의 얼굴을 오영준은 황홀히 우러러보았다.

하나에서 백까지, 모든것을 인민의 립장에서 인민을 위해 생각하시는 수령님의 높고 깊은 뜻에 다시금 감복하면서 자기는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그이의 뜻을 본받지 못하는 자신을 채찍질하였다.

오영준은 땀뻑하게 풀해 다린 위생복을 입고 신명이 나서 환약을 짓고있다.

생각할수록 다행한 일이였다. 낮에 약재를 가져온 로인을 수령님께 데리고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로인을 만나보신 다음 부관을 시켜 자동차로 로인을 모셔다드리게 하였다. 로인은 떠나갈 때 다시금 《수령님께서 그 약을 잡수시고 효험을 보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늙은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겠소이다.》하고 말씀드린것이였다.

지금 오영준이도 수령님께서 그 약을 잡수시리라는 생각으로 신이 나서 약을 짓고 있는것이였다. 오영준은 그 로인의 정성과 자기 성성까지, 아니 전체 조선인민의 정성을 담은 심정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약을 지었다.

오영준은 마스크만 안했으면 노래라도 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휴식을 보장해드리려고 아무리 애를 쓴대도 소용이 없다는것이 명백하게 되어 안타깝던차에 그 로인이 나타나 이 약을 쓰시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무등 기뻐지는것이였다. 그는 코등에 흘러내린 안경을 손끝으로 밀어올리고 수령님의 방을 쳐다보았다.

아직 불빛이 환하다. 그는 한알한알에 정성을 쏟아부으며 약을 지었다. 약짓기를 끝낸 그는 위생복을 벗어 걸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한시 십분전 이였다. 수령님의 방에서는 아직 불빛이 흘러나왔다. 《오늘도 한시전에 안주무시는군...》

그는 시원한 바람을 쏘이고싶어 밖으로 나왔다.



초저녁에는 손풍금소리와 노래소리로 떠들썩하던 맑은편 산밑에 있는 정양소의 창들에는 불빛 하나 없고 외등들만이 희미하게 줄고있다  
달도 없는 밤인데 사면을 둘러막은 산들이 우중충하여 한결 더 어둡이 짙은듯하다.  
그는 별들이 총총한 하늘을 한참 우러러보다가 뜰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얼마동안 거닐던 그는 수령님의 방을 쳐다보았다. 한시가 넘은지도 오랜데 아직도 불빛이 환하다. 오영준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옮겨졌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으시어 무엇인가 사색하시며 글을 쓰고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이 창문너머로 환히 들여다보였다  
건강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밤을 새워가시며 오직 나라의 흥성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보는 순간 오영준은 그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도 밤이 이렇게 깊도록 저렇듯 정력을 소비하시면 건강에 해로우실것만 같아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눈을 들어 불빛환한 창문을 쳐다보았다. 수령님께서 방안을 거니시는 그림자가 창문에 어리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시는듯 거니시다가는 멈춰서시곤 하시었다.  
한동안 방안을 거니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지도가 걸려있는 벽 앞에서 걸음을 멈추신듯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이 깊은 밤에도 온 조국땅을 바라보시며 조국통일의 거대한 위업으로부터 어느 벽촌 한 주부의 부엌살림에 이르기까지 생각하시며 보살피시는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지도앞에 오래도록 서계시었다.  
오직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시는 수령님,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시는 일을 더없는 기쁨으로 느끼시는 수령님, 수령님을 우러러보고있는 오영준의 가슴속에서는 자꾸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오영준은 젖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뿌옇게 형태가 흐려져 주먹만큼씩 커보이는 못별들이 굽어보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기를 축복해주는듯 하였다.  
그는 무한한 행복감에 싸여 후터워지는 가슴을 안고 발길가는대로 걸어 호수가 굽어보이는 언덕우에까지왔다.  
하늘이 그대로 내려앉은 호수밑에는 못별들이 깔려 반짝이고 물고기들이 제세상 만났듯 여기저기에서 침범침범 뛰놀았다.  
실바람이 불어와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이튿날 아침, 오영준은 일과대로 수령님을 모시고

약수터로 갔다.  
이것은 아침산보에 포함된 일과중의 하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약수터에 오시는것을 꼭 즐기시었다.  
그것은 그 약수가 자신의 건강에 좋아서가 아니었다. 위질환에 효능이 높은 약수는 해방전에는 이 고장 땅을 독차지하고있던 지주의 소유였다. 지주는 이 약수터를 유흥지로 꾸려놓고 돈을 받고 약수를 팔았었다.  
그래 근로자들은 탈이 나도 약수마저 마음대로 마실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리하던 이 약수가 오늘은 인민의것으로 되어 근로자들이 마음대로 마시며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시는것이 무척 즐거우신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약수터에 처음 오셨을 때 약수의 효능과 유래를 들으시고 곧 정양소를 건설하여 근로자들의 건강회복에 리용하도록 지시하셨던것이 다.  
약수를 마신후 수령님께서서는 정양소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오영준은 아침산보시간이 늦어질것을 염려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뒤를 따랐다.  
수령님께서 정양소에 들어서시자 방금 아침체조를 마친 정양생들이 열광적으로 환성을 울리며 존경과 기쁨으로 그이를 맞이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정양생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시며 어떤 질환이 있는가? 약수를 먹으니 효과가 있는가를 물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맨 뒤에 서서 미처 나와 인사도 못드리고 주뿔거리리는 한 정양생을 보시자 그의 앞으로 가시어 《오래간만이요, 운산의 굴진공도 왔구만.》하고 반가와하시며 굴진공의 손을 잡고 한참 흔드시었다.  
굴진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막장에 오셨을 때 한번 만나뵈왔을뿐인데 기억해주시고 반가와하시는 데 너무 감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수령님께서서는 굴진공의 건강을 물으신 다음 그곳 광산지도일군들과 혁신자들의 건강에 대해 일일이 물으시었다. 굴진공은 물으심에 대답을 올리고나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후 저희들 광산에서는 술한 혁신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굴진에서...》하고 보고나 하듯이 말씀드리는데 수령님께서서는 굴진공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그만, 그만두시오. 여기서는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데가 아닙니다. 오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충분히 휴식하며 즐겁게 노십시오.》 하시었다.  
수령님의 시선이 한 청년에게 뒹뒹했다. 얼굴이 해쓱하고 여윈 청년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청년의 손을 잡으시며 《동문 어째서 이렇게 몸이 쇠약해졌소?》하고 물으시었다. 수령님의 음성에서는 앓는 자식을 걱정하여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이 울려나왔다  
청년은 당황하여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를 몰라하

였다.

《이 동무는 고향이 강릉입니다. …》

하고 정양소소장이 대신 대답을 드리었다. 그 청년은 1950년 겨울, 10살때 부모와 함께 일시적후퇴를 해오다가 세포근방에서 미제침략군놈들한테 체포되었다. 부모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시체들속에서 그 청년만이 살아났다. 다행히 팔에 관통상만 입었기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는 했으나 눈속에서 정신없고 여러 시간을 쓰러져있던 탓으로 위병이생겼던것이다.

그후 공화국의 품에 안기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완치된후 학교에도 다녔고 지금은 어느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을 하고있다고 했다. 그런데 금년봄부터 위병이 다시 도졌다느것이다.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한주일동안 약수를 먹고는 식욕이 차츰 돌아서서 지금은 식사를 잘합니다.》

정양소소장이 자기네 약수에 대한 자랑이 섞인 말투로 대답올렸다.

《회복기에 들어섰단 말이지?…》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청년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었다.

《수령님! 제 병은 다 나았습니다. 이제 정양이 끝나고 돌아가면 곧 일할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수령님께서 너무 걱정해주시는것이 송구스러워 이렇게 말씀드리었다.

《정양이 언제 끝나오?》

수령님께서 물으시었다.

《닷새후에 끝납니다.》

《닷새후에 돌아가서 일을 하겠다고?… 안되오. 아직도 정양해야겠소.》

그 청년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오영준을 돌아보시며 《오선생, 이 동무처럼 허약한 사람에게 어제 그 약이 좋지 않겠소?》하고 물으시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무심중 이렇게 대답을 올린 오영준은 (아니 그 약을 또? …)하는 생각이 들어 조마조마해 서있는데 아니나다를가 수령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있다가 이 선생을 찾아오시오.》하고 오영준을 가리키고나서여 《동무,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오. 건강은 혁명의 큰 밑천이요. 그래야 미제놈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통일시킨 다음 고향으로 돌아갈게 아니요.》하시었다.

오영준은 수령님께서 그 약을 이 청년에게 주라실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이를 쳐다보며 (병이 완쾌된 한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어찌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리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그 귀중하신 몸을…)

이렇게 입속으로 호소해보았다.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대원들이 그이를 위해 구해온 주사약을 자신은 한대도 안쓰시고 부당한 대원들에게 놓아주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생각되자 그 당시 군의의 심정이 어땠겠는가가 헤아려졌다. 오영준의 심정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한결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오선생, 어제 그런 약이 많이 요구됩니다.

오선생이 그 약을 다량생산할수 있도록 생약관리국일군들과 의논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먹을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은 물론, 아직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를 수령님께서 생각하신것이였다. 하나의 약재를 보시고도 전체 인민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것을 생각하시는 수령님의 크고도 넓으신 뜻에 오영준은 감탄한 나머지 황홀한 심경이 되여 그이를 우러러 보았다.

아울러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이 자기몸에 스며드는듯 뜨거운것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는 눈물이 펴 돌아 슬그머니 외면하였다.

안경을 치켜들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는데 수령님께서는 정양소소장에게 이 약수가 좋다는것, 그러나 지금의 정양기간으로써는 근로자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가기엔 짧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료양소로 하여 치료기간을 배로 연장하게 하는것이 좋겠다는것과 료양소건물을 크게 새로 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하도록 하라는 과업을 주시었다.

수령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마다에는 진정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한평생을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워오시는분이 아니신가…)

오영준은 무한한 행복감에 젖어들면서 다시 솟아나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찍어냈다.

수령님께서는 《휴식》의 나날을 더 바쁘게 보내시었다. 오영준은 어찌는수 없이 그날그날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낼수밖에 없었다.

얼마후 수령님께서는 드디어 큰 회의를 소집하시었다. 이곳 군소재지에 새로 웅장하게 지은 문화회관으로 전국각지에서 회의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오영준은 회의장 맨앞줄에 자리잡고 앉아 장내를 둘러보았다. 모두 조용히 앉아 회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에 찬 빛이 어리어 장내의 분위기가 엄숙하면서도 흥성거리는것 같았다. 이곳에 와 알게 된 몇몇 일군들도 여기저기에 보이였다. 저쪽에서 눈인사를 보내는 군수매소장의 그 기쁜한 얼굴도 싱기된듯 불그레해보이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다함없는 존

경을 담아 열렬한 박수로써 수령님을 맞이하였다

오래 계속되던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그치자 장내는 물을 뿌린듯이 조용해졌다. 곧 개회가 선언되고 뒤이어 보고가 시작되었다.

보고자는 우선 전체 조선민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산간벽지인 이곳을 여러번 현지지도하시였고 그때마다 모든 부문에 걸쳐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또 그때마다 전체 군민이 그이의 교시를 받들고 펼쳐나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에 거둔 빛나는 성과와 그 경험을 자랑차게 총화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이악하게 관철한 결과 과거에는 사람 못살더라던 이 고장이 오늘은 지방공업이 급속히 발전되어 이 지방자체의 원료로 생산하는 공업제품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서 타지방으로 보내게 된 데 대해서와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지방실정에 맞게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알곡을 비롯한 모든 작물수확이 몇갑절로 높아졌고 각종 가축들이 골짜기마다에 그득그득 차게 되어 모두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교시를 충실히 집행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살림이 차례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보고자는 흥분된 어조로 강조하였다.

위대한 변혁에 대한 실감있는 보고는 모든 청중을 한없이 격동시켰다. 더우기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회의참가자들은 모든 부문에 걸쳐 말그대로 천지개벽을 이룩해놓은 이 지방 인민들의 투쟁성과를 실지로 견학한 뒤인지라 그 경험을 말하는 보고를 듣고 격동하지 않을수 없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앞을 다투어 토론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이 꽃으로 편이 고장 실정을 직접 목격하고 황홀해졌던 심정을 솔직히 말하면서 자기네 고장도 단시일내에 이 고장과 같이 락원으로 꾸려놓겠다는 결의들을 신심에 찬 목소리로 토론하였다.

한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은 연단에 나서자 첫마디부터 감격에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대를 두고 강냉이밭에 못심던 벼촌, 진논까비 쏘아지는 날 수령님께서 현지를 답사하시고 물길 낼 자리를 잡아주신 마을, 그이께서 친히 산간지대에 적용한 벼종자까지 보내주시여 지금은 집집마다 벼가마니를 산더미로 쌓았으니까 이 고마움을 연단에서 말로 다할수 있으랴! 그 관리위원장의 토론은 오의사로 하여금 쓰라렸던 지난날의 회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부대밭을 아무리 두지고 허비여도 살아갈수가 없어 구력짐을 꾸려 지고이고 살길을 찾아 떠나는 부모를 따라 높은 령길을 뚫아오를 때 9살난 오의사는 부르튼 발바닥이 아파서도 울었지만 땅이 꺼지게 내쉬는 부모들의 한숨소리가 어린 가슴을 슬픔으로 차게 하여 울음을 금치 못했었다. 명절날에도 귀여운 자식에게 쌀밥 한끼 해먹이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파 울던 어머니생각도 떠올랐고 부대밭을 일켰다고 산림간수놈한테 매를 맞고 원통해하던 아버지모습도 떠올랐다.

그러하던 이 고장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아 지상락원으로 전변된 사실을 보고 듣는 오의사는 감격이 새로와졌고 형언할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올라 눈물이 펄 돌았다.

그는 안경을 치켜들고 눈물을 닦고나서 장내를 둘러보았다. 사람마다 얼굴은 자기와 같이 감격과 흥분으로 이글거렸고 눈물은 희망과 결의로 빛나 회의장은 들끓는 분위기로 짙 찼었다.

어찌 격동되지 않으랴! 오랜 세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산간지대주민들의 못살던 생활문제를 이렇듯 변혁시켜놓았고 더욱 휘황한 앞날이 약속된 이 사실앞에서 어찌 흥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오영준은 감격으로 하여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곱이 뜨거워져서 자주 안경을 들어올리었다. 장내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속에 수령님께서 드디어 폭풍같은 박수를 받으시며 연단으로 나오시였다. 박수로써 답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광은 정열에 넘쳐나셨고 한결 젊어지신것 같았다.

수령님께서는 토론자들의 토론을 종합하시면서 앞으로 군들을 한층 더 알뜰히 꾸리고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부유하게 할데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그동안 얻은 귀중한 경험을 밑천으로 삼아 한계단 더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일군들이 일을 더 많이, 더 잘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복무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의의있는 일은 없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의 거점으로 되는 군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공산주의사회에 들어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즉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인 군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임으로써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촉진시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로 들어가야 한다는 리론이 였다.

이 얼마나 위대한 구상인가?... 일찌기 그 누구도 말한 일 없는 리론과 구상을 수령님께서 내놓으시였다. 이것이 어찌 조선의 현실에만 적용되는 리론이겠는가! 이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리론의 보물고에 크게 기여할 리론으로 될것이다.

황홀해진 청중들은 숨소리마저 죽여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다.

오영준은 이제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휴식을 패히 승낙하시고 지난시기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신 이곳을 택하여오신 의도를 깨달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이 가장 불리한 이곳에서 몸소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 경험을 전국



의 모든 군에 일반화하려는데 그것이였다.

미리부터 이 원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실시해오신 그 결실을 이번에 오시여 확증해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다는것을 오의사는 이제야 알았다.

수령님께서 이곳에 오신후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방목나간 양떼를 따라 산에까지 올라가 사양공들을 만나보시고 산간마을의 로인들을 찾아가시여 경험과 의견들을 들으시고 상점들을 돌아보신 그 가지가지의 일들이 오영준의 머리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처럼 원대하고 휘황한 구상들을 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근저에는 한 노동자의 건강에까지 관심하시고 걱정하시는 인민에 대한 깊고도 넓은 사랑과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이 맥맥히 흐르고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느끼였다.

20성상 혁명의 대오를 이끄시고 조국을 찾기 위해 승리로 아로새기며 걸어오신 그 간고하고도 준엄한 로정에도,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20여년 불철주야 분투하시며 내놓으신 가지가지의 로선과 정책들에도 모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불같은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지 않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을 끝내시자 장내는 환호의 박수소리에 떠나갈듯 하였다.

열광적으로 박수를 계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긍지와 행복감이 세차게 끓어올랐다.

《휴식》이 끝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수도로 돌아가는 오영준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늘까지 휴식이란 잠시도 없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으실것이 라고...

그리고 언젠가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잠시도 멈춰서서는 안되며 지나깨나 혁명을 생각해야 하오.》

오영준은 풍요한 별판을 차창으로 내다보며 황홀한 심경에 잠겨있다.

주체56(1967)년

## 수령님은 원화리에 계신다

박정애

이제라도 이른새벽 문을 열면  
뜨락의 이슬젖은 벼짚단에 앉아  
집주인이 깨어나길 기다리시고  
새벽안개 흐르는 들에 나가면  
누구보다 먼저 발머리에 계실듯 싶은 수령님

무릎치는 수령논에 허리굽히시여  
논김도 잡으시며 새 아지들을 세여도 보시고  
뿌리는 잘 내릴수 있는가  
물속깊이를 가늠하시며...

뽕잎푸른 저 뚝넘어 그 이랑이로구나  
우리 한번 벼모를 누가 더 잘 쫓는가  
내기해보자고 웃으시며  
표식말뚝 세워주셨던 그 곳이

이제 휴식참 논둑에 모여앉으면  
담배도 권하시며 이야기하시리  
한사람한사람 정답게 이름을 부르시며  
실농군숨씨가 다르다고 칭찬도 해주시리

포화가 울부짖던 전화의 그날부터  
오시고 오시여 이 땅에 정들고

협동화의 고향을 함께 꾸리시며  
조합원명단에 올린 수령이 되신분

새날의 대지에 땀한 아침이슬을 제일먼저  
털어주시는분  
해지는 저녁이면 조합원들 다 들여보내시고  
래일의 포전까지 걸어보시고서야  
달빛지고 발머리를 떠나시는분

농민이라도  
그처럼 땅을 사랑한분이시기에  
차례진 분배몫 고스란히 그 땅을 위해 바치신  
력사에 다시 없을 위대한 농민

수령님 옷자락소리로 실레는 들  
수령님 온기로 후더운 대지  
수령님 자옥자옥 이랑이랑으로 빛나는  
원화리는 영원한 수령님의 땅

이른 새벽 문열고 나서면  
이슬젖은 뜨락에서 기다리시고  
포전에 나가면 누구보다 먼저 반기시는  
우리 수령님은 오늘도 원화리에 계신다

# 우리 수령님 모습

최정용

이 마음속에 안겨오는  
우리 수령님 모습은 아버지의 한 모습  
우리 일터 우리 마을 우리 집으로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는 모습

이슬맺힌 논머리에서  
벼이삭의 알수를 세어보시던  
잊을수 없는 가을날의 들길에서처럼  
손에 나무가치 드시고  
땅에 그림을 그려가시며  
건설자들의 눈을 띄워주시던 그날처럼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세기를 밝히시고 세계를 밝히신  
희세의 위인이 우리 수령님이시건만  
명석우에 농민들과 무릎 맞대이고 앉으시여  
담배도 권하시고 농사일도 의논해주시던분

무한한 인정의 그 세계를 펼치시며  
한없이 평범하신 그 모습으로  
온 나라 구내길 포전길 다 걸으신  
우리 수령님 사랑의 그 자욱자욱  
하많은 추억을 불러오며  
오늘도 우리 가슴 뜨거움에 젖게 하나니

허리를 굽히시여  
귀를 기울이시여  
소박한 인민의 말도 중히 들어주시고  
그것을 정책에 담으시던 우리 수령님

인민이 당하는 고통이  
가장 참을수 없는 아픔이었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몸 바치는것이

자신께선 제일가는 락이라고 하시던 수령님

인민이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맑은 물  
이 산천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수령님 사랑 어려있는 이 땅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세상

김일성민족이 사는 김일성 조국이라고  
우리 긍지높이 세상에 자랑하거니

한치의 간격도 없이  
하루같이 한평생을  
인민들과 정을 나누시고  
인민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였기에  
인민이 한순간도 못잊는 우리 수령님

아 우리 수령님 모습은  
이 하늘 이 땅 이 인민과 하나되신 모습  
인민의 아버지로  
인민의 태양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영생의 모습!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끓어오르는 진정으로  
불타오르는 신념으로  
수령님 높이 받들어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그 마음속에  
언제나 그 언제나 함께 계시는  
우리 수령님 그 자애깊은 모습이어!

가사

## 장군님은 미소를 보내시네

진동화

산촌의 호수가로 야전차 달리는데  
발전기 동음소리 물결에 실려오네  
언제자리 잡아주신 그날이 어려선가  
장군님 차창너머 미소를 보내시네

한굽이 또 한굽이 푸른산 안겨오고  
기슭엔 구름같은 염소떼 흐르네

보내주신 염소들이 많이도 늘었다고  
장군님 기쁘시여 미소를 보내시네

이 길을 오가시며 베푸신 사랑속에  
산촌엔 선군경치 새 모습 펼쳐지네  
강성대국 무릉도원 이땅에 그리시며  
장군님 전선길에 미소를 보내시네

## 소원성취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은 수많은 혁명전설을 낳았다. 그가운데는 보천보전투와 무산지구전투승리후 생겨나 전해오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주체26(1937)년 6월 4일 보천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드센 불벼락을 맞고 혼썰이 난 일제는 부랴부랴 국경경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러한 대책가운데 하나가 《갑무경비도로》를 건설하는것이였다. 일제는 이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의 추가예산까지 세우고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끌어내다가 마소와 같이 부려먹었다.

우리 인민들은 아릅드리나무들이 짝 들어찬 무인지경에 끌려와서 힘겹게 바위돌을 깨내고 나무를 베고 그 뿌리를 들춰내면서 모진 고생을 다하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들이 《갑무경비도로》에 흘린 피와 땀이 얼마인지 모른다.

고역을 치르면서 우리 인민은 자기들이 땀은 이길로 조선인민혁명군이 하루빨리 쳐들어와 왜놈들을 족쳐버리기를 간절하게 바랐다. 그리고 삼천리강산의 그 어느 길이든 마음놓고 걸어다니며 살아갈 해방된 내 조국을 그려보았다. 그들은 백두산을 우러러 보면서 백두산의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께서 그 소원을 꼭 풀어주실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주체28(1939)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무산지구로 진출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그러한 소원이 깃들어있는 이 도로의 100 여리에 달하는 구간을 대낮에 행군해가시였다. 그때 일제는 《갑무경비도로》건설공사를 끝낸 다음 준공검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길바닥을 말끔하게 청소까지 해놓고 일체 통행을 금지시

키고있었다.

그러한 길을 단숨에 걸어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대원들은 무포속영지에 이르렀을 때 이런말들을 주고받았다.

《놈들이 우리가 지나가라고 길을 닦아놓은 것은 잘한 일인데 너무 탄탄해서 발이 아파 걸을수가 있어야지. …》

《그럼 왜놈들보고 길을 폭신하게 다시 닦으라고 해야겠군.》

모두가 즐겁게 웃었다.

대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각깊으신 어조로 자신께서는 《갑무경비도로》를 걸으면서 그우에 뿌려진 수많은 우리 동포들의 피와 땀을 생각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대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을 잊지 않으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생각이요 말씀이었던것이다.

후날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그 길로 무산지구의 일제침략자들을 족치러 가셨다는것을 알고 얼마나 가슴 후련해하였는지 모른다.

그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심정을 그리도 잘 아시고 그 길을 걸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셨을가 하고 탄복하면서 장군님은 진정 만백성의 심정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소원을 풀어주시는 천출명장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러면서 조국해방의 소원을 성취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신심에 넘쳐있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발이 달린듯 널리 퍼지면서 《백두산장군을 믿으면 만가지 소원이 다 성취된다》는 백두산전설이 태어 났다.

## 어버이사랑에 대한 이야기

박세옥

### 1

전쟁이 밋은땅  
폭탄에 파헤쳐지고  
뒤엎킨 축대들이 얼어붙은  
눈덮인 제강소구내를  
어버이수령님께서 걷고계시었다

맵짠 추위, 얼어드는 하늘...  
전선의 찬바람과 포연에 그슬린  
그 외투깃을 울리시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어버이수령님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아버지의 점심밥을 가지고 왔다는  
병사의 큰 솜옷을 걸친  
한 소년앞에—

무릎을 가리운 밝은 솜옷  
전선에서 아버지가 입고 온것이리  
그이의 시선은 무거우셨고,  
용감한 병사의 아들다움께  
어깨를 짊 펴고 서있는  
그 소년이 기특하신틀  
작은 어깨를 두드리시던 어버이수령님  
멀리 시선을 드신채 말없이 서계시었다  
외투주머니에 손을 넣으시고—  
파찰로 되어버린 공장  
병사의 솜옷을 입은 소년,  
가혹한 전쟁을 겪은 이 땅은  
이 소년에게 아무것도 줄수 없었다

이 나라 아이들은  
전선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솜옷속에서  
이 겨울을 나리라  
전쟁에서 승리한 인민은  
재무지를 헤치고 조국이 일떠설 때까지  
전선에서 입고 온 그 옷으로  
어린것들을 안아주리라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가 저물도록  
공장을 떠나시지 않으시었다  
로동자들과 협의회도 하시고  
일군들과 담화도 하시고  
하지만 분망하신 사업속에서도

구내길에서 잠깐 만나셨던  
그 병사의 아들을 생각하시었다  
병사의 그 큰 솜옷을 걸치고도  
활개치며 걸어가던  
그 소년을...

### 2

그날 밤 평양에서는  
내각회의가 소집되였다  
강철문제가 토의되리라—

일군들의 기대와는 달리  
뜻밖에도 내각회의 에서는  
온 나라 아이들의 옷문제가 토의되였다

한품에 온 나라 아이들을 안으시고  
회의장에 오신틀  
그이의 젖은 신발에서는 눈이 녹고있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포화에 불타고 모든것이 부서진  
이 땅을 안아 일으키시려는듯  
손길을 높이 드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여라

—전쟁이 끝났어도 우리 당은  
아직 아이들에게 옷을 갈아입히지 못했소

온 나라가 복구건설만을 생각하고있을 때  
폐허우에 휘몰아치는 눈보라속에  
무릎을 가리운  
병사의 솜옷을 입은 한 소년을 보시고  
우리가 건설하는 조국이 무엇을 위해  
준엄한 시련을 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그 손길

쇠물보다 더 뜨거운  
위대한 그 사랑에  
순간 회의참가자들은 폭풍같이 일어섰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자라는

이 나라 아이들처럼  
조국은 채더미를 털고 일어서리라  
사랑의 열풍에 휩싸인 회의장엔  
온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넘치였다  
강대한 조국의 래일이  
그이의 말썽속에 일어서고있었다

—우리가 허리띠를 한번 졸라매면  
온 나라 아이들에게 옷을 갈아입힐수 있소  
허리띠를 졸라맙시다!

아버이수령님의 말씀은 다시 이어지고  
회의는 밤깊도록 계속되였다  
아버이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듯  
창밖엔 함박눈이 내리고  
조용히 창가에 다가서신 아버지수령님  
멀리 제강소의 하늘가를 더듬으신다  
홀렁홀렁한 병사의 솜옷에 감싸인  
그 소년을 바라보고 계시는듯

### 3

날개가 돌친듯  
아버이사랑이 깃든 내각결정—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땅을 휘감았다  
차길에서 300리 떨어진  
먼 두메마을에도  
기쁜 그 소식은 전해져  
사람들을 큰길가로 불러내였다

품이 넓은 솜옷을 걸친  
가사

그 소년도 믿어지지 않는듯  
고성기가 높이 매달린  
타다남은 전선주를 쳐다봤다  
그 소년의 아버지도  
눈보라치던 적후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이 담긴  
그 솜옷을 눈물로 받아안던 그때처럼  
복구건설에 온 나라를 힘차게 이끄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안고  
철끝이 녹아내린 구내로 거인같이 걸어갔다

여느날과 다름없이  
아들이 점심밥을 가지고 왔을 때  
마치소리 높던 온 작업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병사의 솜옷을 걸친 그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 소년은  
자기가 입은 솜옷이  
병사의 솜옷이라는것을  
그제야 안듯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얼어붙은 땅우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저 멀리 산기슭에서  
따스한 해벌에 눈이 녹고있었다  
사람들의 가슴에 봄이 온것이다

(1976)

## 아이참 어찌면 좋아

주광남

아니글쎄 내가 무슨 공 세웠다고  
고향에서 온 편지 칭찬뿐일가  
단발머리 병사들 수고 많다고  
장군님 기념사진 찍어주신걸  
아이참 어찌면 좋아  
장군님 기념사진 찍어주신걸

어머니는 동네방네 자랑한다지  
장군님의 사랑을 나만 받은듯  
찬바람에 손틀세라 보내신 크림

눈물속에 온 중대가 다 받았는걸  
아이참 어찌면 좋아  
눈물속에 온 중대가 다 받았는걸

회답편지 쓰자 해도 무슨 말 쓸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러운걸  
장군님 그 사랑에 보답할 마음  
훈련에 땀흘려도 모자라는걸  
아이참 어찌면 좋아  
훈련에 땀흘려도 모자라는걸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한 1938년말—1939년초는 항일무장투쟁력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행군기간이 100여일이나 되기때문에 이 행군은 〈100일행군〉이라고도 불리우고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사실 110여일이나 되는 행군이었습니다. 고생이 너무도 막심했기때문에 그 행군을 가리켜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고난의 행군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투쟁이 하나로 엉켜진것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심각한 투쟁이 동반되였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자신과의 투쟁이였습니다. 초보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 나아가서는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한 투쟁이 바로 고난의 행군의 기본내용이였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행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진 시련과 난관으로 일관되어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육체적인 부담이나 고통으로 보아도 종전의 원정들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거창한 행군이였습니다.》

《고난의 행군때에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서 바친 오중훈의 희생성과 충실성에 대하여 나는 지금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유격전쟁이 창조한 모든 전법과 전술의 종합적인 시험장이였다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영웅들입니다.》

《모든 대원들이 만난을 이겨내고 불사신으로 살아남아 승리자로 되게 된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 요인들가운데서 몇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내가 첫번째로 말하고싶은것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마감지을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혁명적동지애도 들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칠수 있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우리에게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지원이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승리한 행군으로 될수 있는것은 또한 부닥치는 정황에 맞는 령활한 유격전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한데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한 위대한 역사를 가진 인민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군의 역사를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인민은 어떤 힘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 최고사령관의 1분 1초는...

고영수

가렬처절한 전화의 불비속에  
승리의 새 작전을 펼치시며  
며칠밤을 꼬박 새우신 수령님  
최고사령부작전대앞에서  
어느 한 병사를 불러오라 이르시였네

뜻밖에 수령님의 부르심 받은  
고사포중대의 1포조준수  
풀길 없는 의혹을 안고

최고사령부로 달려왔을 때  
그이께선 다정히 말씀하셨네

—동무가 머리를 잘 깎는다지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간단히 야전리발을 좀 해주오  
—최고사령관동지, 리발사도 아닌 제가  
어떻게?...  
—그러지 말구 숨씨를 좀 보여달라구  
내 지금 1분 1초가 새로와서 그러오



리발의자도 없이  
나무결상에 앉으신 그이를 우러르며  
뜨거웁게 목매어  
리발기를 손에 든 조준수

한초한초 시간이 갈수록  
사각사각 가위질소리 장단맞게 울리는데  
그 소리엔 아랑곳 없이  
문건을 보시는 수령님

결전의 길로 달려나가던  
영웅전사들을 생각하시는가  
탄약과 식량을 이고지고  
싸우는 고지로 오르던  
남강마을녀성들도 그러보시는듯

한장 또 한장  
깊은 사색속에 넘기시는데  
한방울 또 한방울  
병사의 마음속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방울  
어쩌면 리발을 하시면서도 이렇게까지

1분 1초를 쪼개가시다니...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가위질을 끝낸 조준수  
이윽고 면도칼을 손에 드는데  
보시던 문건을 덮고  
불쑥 일어나신 수령님

—이젠 됐소!  
면도는 밤에 내가 하겠소

뜨겁게 젖어드는 두눈을 숨막이며  
입술을 깨물던 조준수  
울컥—숫구치는 걱정을 애써 누르며  
심장의 포문을 열어 마음속으로 웨쳤다

아, 최고사령관의 1분 1초는  
승리를 앞당겨 이렇게 흐른다  
조국위해 바치신 위대한 헌신속에  
전승의 축포는 터져오른다!

## 조선포도

김영애

행복한 생활속에  
무심히 받아들던 열매이건만  
유치원생 아들이 안고 온  
금수산기념궁전의 조선포도  
왜 이리도 이 가슴 뜨거운것입니까

이제 다섯살  
한번도 수령님을 뵈옵지 못한  
내 아들이 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서입니까  
대원수님께서 가꾸시여  
유치원에 보내주신 포도라고

알알이 크고 탐스리운 포도송이  
반아안은 아들애의 기쁨속에  
웃으시며 계시는 수령님  
두고가신 그 사랑이 세월을 넘어  
오늘도 가꿔주시는 열매  
오늘도 아이들에게 안겨주시는 기쁨

뽕얇게 단즙이 내배인  
포도송이에 어려 옵니다  
새 품종의 포도가 나왔다고  
기뻐하시던 그 영상

집무실가까이에 심으시고

몸소 원예사가 되시여 키우신 나무에  
조선포도라 이름지어주시던  
아버이 그 모습이

아, 조선포도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온갖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그렇게 가꾸시고  
그렇게 키우신  
이 나라 미래입니다

이 땅에 남기신 위대한 생엔  
자신을 위한 삶은 단 하루도 없는  
성스러운 한평생  
천년만년 조국의 미래 꽃피우셨으니  
그 미래속에 오늘도  
수령님은 아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 수령님 가꾸신  
조선의 열매  
조선의 미래  
대를 두고 이어지는 수령님 사랑에  
대를 두고 보답해갈 맹세로  
이 가슴에 뜨겁게 안아보는  
아, 조선포도  
금수산기념궁전의 조선포도

## 나는 왜 여기 왔는가 (외 1 편)

리명수

정갈하고 아담한 사적지  
포근한 잔디밭은 옛 추억에 잠기고  
산기슭 포장길도 그리움에 젖어있는  
못잇을 건지리 력사의 땅에  
병사—나는 왜 찾아왔는가

지금은 고요가 자리 뒀건만  
고요하지 못했던 반세기전  
우리 수령님 여기 계시며  
정의의 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셨거니  
병사—나는 왜 여기 왔는가

하얀 돌 춤추는 샘물가에도  
파란 잎 줄맞춘 남새밭에도  
우리 수령님 체취가 어려  
하많은 이야기 전해주는 땅  
승리의 사연을 속삭이는 땅

그이 사색의 무거운 발걸음  
자욱자욱 새겨안은 소로길이어  
그이 예지의 푸른 섬팡이  
화살표로 새겨진 작전도여  
너는 무엇을 속삭이느냐

너는 무엇을 새겨주느냐

전쟁은 불과 불의 대결  
철과 철의 대결이기 전에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의 대결  
인간을 움직이는 사상의 대결임을  
력사의 증인으로 말해주는 땅아

여기서 그어진 화살표따라  
어제날의 병사 나의 아버지가  
돌격전의 앞장에서 달려갔듯이  
또다시 이 땅에 불구를 밀려온다면  
내 또한 이제 백두의령장  
**김정일**장군님의 화살표 따라  
승리의 공격전에 나서야 하나니

승리는 승리로 이어져야 하기에  
더 큰 승리를 위해서는  
어제날 승리의 그 진리가  
병사—나의 심장에 맥박쳐야 하기에  
승리의 상징, 승리의 땅  
건지리여 내 너를 찾아왔노라

## 강사의 목소리는 조용히 울려도

강사의 목소리는 조용히 울려도  
내 마음엔 아프게 마쳐오누나  
전선사령부를 찾아  
립진강철교를 건느시는  
수령님 타신 야전차의 바퀴소리

푸른 물 아찔하게 내려다보이는  
철교의 길아닌 침목사이를  
하나하나 힘겹게 넘으며  
숨넘춘 이 가슴 쿵쿵 들이치는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

아, 승리를 위해서는  
기어이 그런 길을 가셔야만 했던가  
너무도 값비싸게 마련된 승리임을  
뼈아프게 새겨주는 차바퀴소리  
내 심장 찢는듯 한 차바퀴소리

때로는 돌발길 때로는 진펄길로  
전선과 후방을 종횡무진하시며  
너무도 힘겹게 안아오신 승리여서  
수령님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앞서는데  
눈물젖은 마음속에 또 하나 길이 열리며

이어져 울려오는 차바퀴소리

수령님 헤쳐오신 길아닌 길  
오늘은 우리 장군님 가시며  
승리를 승리로 이어가고 계시나니  
오성산 벼랑끝에 이어진 길이어  
초도의 파도우에 이어진 길이어

아 이 땅에 강이 많아  
수령님 그런 길 가셔야만 했던가  
이 땅에 험산 바다가 많아  
장군님 오늘도 그런 길 가셔야만 하는가

승리의 크기는 거기에 바친  
령도자의 헌신의 크기이기도 함을  
저리게 느껴안은 가슴속에  
립진강의 차바퀴소리 오성산의 발동소리  
격량을 일으키며 소리소리 웨치누나

병사여 승리를 위해  
수령이 꼭 그런 길 가야만 한다면  
수령을 위해 한목숨 내대고  
앞서라 그앞에 천만성벽 쌓으며

# 나는 영원한 수령님의 전사다

최태국

내 나이 이제는 칠십을 넘겨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행복속에 웃음속에 잠길 때면  
때없이 들려오는 자애로운 그 음성

그날은  
군항의 파도소리 노래되어 정답고  
떼지어 날으던 갈매기도  
춤추며 반기던 그 아침

오시였다  
우리의 최고사령관  
아버이수령님  
우리 함정  
나의 기관실에

너무도 꿈만 같아  
경례도 미처 못올리는  
이 전사의 기름땀 손을  
정답게 잡아주시며

고향은 어데이고  
편지는 자주 오는가고  
다정히 묻고물으시며  
만면에 태양의 웃음을 담으실 때

내 그만  
어릴적아이가 되어  
목메여 부르고 또 불렀다  
아버지 !

들먹이는 내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장알진 이 손을 꼭 잡아 흔들며  
당의 훌륭한 전사가 되라고  
몇번이고 몇번이고 당부하시던 그 말씀

감옥살이 35년  
아츠럽게 감옥문이 삐걱일 때면  
크게 더 크게 울려오는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그렇구나  
정녕 그 음성 안고 살았기에  
아침이면 살창너머  
평양의 하늘을 우러렀고  
저녁이면 북두칠성 바라보며  
다정하신 그 음성 가슴에 새겼나니

내 언제나  
그 음성 가슴에 고이 간직했기에  
원썬들이 전향을 강요할 때마다  
더욱더 굳세여지던 내 마음이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된  
그날의 그 음성  
순간도 내 가슴 떠나지 않았나니

하기에 오늘은  
승리한 전사가 되어  
온 나라가 떠받드는 비전향장기수가 되어  
위대한 장군님 품에 안겼나니

행복의 날과 달이 이어질수록  
더 가까이 들려오는  
당의 훌륭한 전사가 되라던  
수령님의 그 음성

그렇다  
못잊을 그 음성은  
오늘도 걸음걸음 떠밀어주며  
값높은 삶의 절정으로 세워주나니

온 세상을 향해  
나는 웨친다  
나는 군복을 벗지 않았다  
나는 영원한 수령님의 전사다

비전향장기수

## 신기한 수자 41 만 5 천 216

금수산기념궁전 앞벽면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리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의 모습으로 깊이 아로새겨진 이 태양상과 관련하여 뜻깊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주체84(1995)년 7월초,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1돐이 되어오는 어느날이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앞벽면에 모신 태양상을 모자이크로 다시 잘 형상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만수대창작사에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창작가들은 긴장한 전투를 벌려 2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태양상을 모자이크로 새롭게 다시 형상하였다.

금수산기념궁전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이 모자이크로 형상한 태양상을 보시고 우리 모자이크알의 빛반사는 어떻게 되는가, 어느때 태양광선이 궁전벽면을 완전히 비치게 되는가 등 모자이크태양상의 빛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모습부분이 전반적으로 붉게 보인다고 그리고 태양상의 크기가 전반과 규격은 같다고 하는데 작게 보인다고 교시하시였다. 자기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부족점을 너무도 정확하게 즉석에서 지적해주시니 창작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밤에 조명을 하면 붉은색이 연하게 보이기때문에 거기에 기준하여 초상화의 색을 좀 진하게 하였던것이다. 뿐만아니라 태양상이 작게 보이는것은 벽면에 있던 장식기둥을 없앴기때문에 초상화를 모실 자리가 더 넓어진데 원인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초상화색의 기준을 밝은 낮에 보는것으로 정해야 한다고 그리고 태양상의 규격도 모실 자리가 넓어진데 맞게 잘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해주시였다.

그 이듬해 봄, 또다시 금수산기념궁전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완성된 태양상을 보시고 모자이크로 잘 형상하였다고, 이제는 나무랄데가 없다고 창작가들을 높이 치하해주시고 모자이크색이 100 년이상 탈색되지 않는다니 대단히 좋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창작가들은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에 휩싸여 태양상을 우러러 보았다.

순간 태양상에서는 눈부신 빛발이 뿜어나와 하늘땅을 가득 채웠다.

《아!— 수령님》

그들은 저도 모르게 태양상가까이로 다가갔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며 완성한 모자이크태양상은 색채와 광선이 최고의 조화를 이룬 세상에 유일무이한 최대의 걸작품이었다.

창작가들은 너무도 희한하여 태양상을 자기들이 형상하였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후 금수산기념궁전 태양상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휘황한 빛발이 뿜어나왔다. 해와 달은 물론 별들도 이 태양상에는 유난히 더 밝은 빛을 뿌려주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여러가지 말들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상을 형상하는데 보석과도 같은 매우 고급한 모자이크알을 썼기때문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수산기념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여서 거기에 모신 태양상이 웅당 더 빛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는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인지는 모르나 태양상을 형상하는데 쓴 모자이크알이 모두 41만 5천 216개인데 그 수자가 신비한 수자여서 조화를 부린다고 하였다.

이 말은 태양상을 모자이크로 형상한 창작가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뭐? 모자이크알이 41만 5천 216개라구?》

그들은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415216은 415와 216을 나란히 놓은 수자였다.

창작가들은 태양상을 처음 형상할 때나 그리고 후에 여러번 재형상을 할 때에도 모자이크알을 몇개 썼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것이다.

그후 창작가들은 어느 기회에 태양상의 모자이크알들을 세어보았는데 정말 41만 5천 216개였다.

그들은 신비감에 사로잡혔다.

자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하였는데 어떻게 41만 5천 216개가 되었을까?

우연한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신통하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만 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인류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은 다 하늘이 낸 날들이여서 태양상이 그 두 날자를 나란히 놓은 41만 5천 216개의 모자이크알로 형상된것은 웅당한 일ियो, 또 그래서 최대의 걸작품으로 완성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하고있다.

## 생애의 순간순간을 수령의 총직한 전사로 값높이 산 혁명시인 (2)

박춘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사람은 당의 사랑과 추억속에 영생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는 시인 리찬은 건국열에 불타는 일군이였으며 언제나 진격의 나팔수로서 가슴을 끓이는 젊고 재능있는 시인이였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인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시였으며 믿음 또한 크시여서 어려운 직책도 서슴없이 맡겨주시고 기쁨과 영예도 남먼저 안겨주시였다.

주체36(1947)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15돐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표창수상자들의 명단을 보아주시였다.

명단을 하나하나 훑어보시던 그이께서는 한 이름에 눈길이 미치시자 색연필로 밑줄을 그으시며 매우 기뻐하시였다. 첫 수상자로 내신된 여섯명의 사람들속에서 시인 리찬의 이름을 보신것이였다.

언제나 말수 적고 수더분한 시인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곁에 선 일군에게 리찬동무는 우리 인민정권이 주는 첫 표창을 받을만 합니다. 그 동무는 건국사업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친 진보적인 지식인이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름없는 한 시인에 대한 너무나도 파분한 평가의 말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리찬동무는 함흥에서도 일을 잘했고 평양에서도 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주위에 묶어세우기 위해 적극 투쟁하였다고 하시면서 리찬동무에게 첫 표창을 주자는 동무들의 제의에 나도 동의합니다라고 만족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시인사이에 맺어지는 사랑과 믿음은 세월이 흐르도록 더욱 뜨겁게 이어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화예술부문앞에 중요한 과업이 나설 때면 시인도 함께 부르시여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으며 한 시인을 위하여, 시인의 문학을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파사로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주체50(1961)년의 어느 봄날이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집행위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일이 있었다. 집행위원들속에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문예총 부위원장으로서 갓 사업하게 된 시인도 있었

다

그이께서는 이날 혁명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 결성한 문예총의 임무를 밝혀주시면서 지난 기간 사상이 건전치 못한자들이 우리 당을 헐뜯을 때마다 문학예술부대의 핵심들을 헐뜯으려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당은 동무들을 믿었으며 또 동무들은 동요없이 우리 당을 따라왔다 고 분에 넘치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순간 리찬의 머리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손길로 운명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구원 해주시던 잊을수 없는 그날이 떠올랐다.

어느해인가 중앙의 한 신문에는 시인의 시를 논하는 긴 평론이 실린적이 있었다.

평론은 시인이 해방직후에 발표한 몇편의 시작품들에 있는 단편적인 시구들을 끄집어내어 제 나름으로 분석하고 마구 공격을 들이대고있었다.

평론에 실린것대로 본다면 시인을 달리 볼수도 있을것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믿고계시는 시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였다.

어느덧 밤이 깊어 부관이 아버지수령님께 쉬실것을 몇번이나 말씀드리였으나 그이께서는 그 신문을 드신채 좀처럼 자리를 뜨실줄 모르시였다. 평론을 새겨읽을수록 분노를 삭일수 없으시였다. 어떻게 당의 사랑을 받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인을 이렇게 모해한단 말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대렬속에 끼여든 불순분자들의 모해가 날날이 떠오르시는듯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리찬동무는 반동작가가 아니라고 결연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곁에 선 일군에게 그는 우리와 함께 공산주의까지 변함없이 갈 사람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빨리 이밤으로 시인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문밖을 나서는 일군에게 다시금 리찬동무는 우리 당의 작가이며 애국적인 지식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시인은 그만 《아, 수령님!》 하고 소리쳐 부르며 무너지듯 책상우에 쓰러졌다. 시인은 그이의 한없는 아버지사랑과 믿음에 흐느끼며 《내 천백 번 죽어서도 수령님의 이 사랑을 잊지 못하리라!》고 목메여 부르짖었다. 바로 것처럼 시인을 믿고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시인이 단신으로 적후천리길을 뚫고 최고사령부를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뭐 리찬이가? 기쁜 소식입니다! 장합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거듭거듭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한없는 사랑의 역사를 더듬어보는 그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후터워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집행위원들을 위하여 오찬까지 마련해주시였고 이 영광 넘치는 석상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축배잔을 드시고 시인의 앞으로 다가오시여 그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시며 남들은 다 건강한데 동무는 왜 이렇게 몸이 축가기만 하는가고 넘려어린 음성으로 물으신 다음 손수 그의 손에 축배잔을 들려주시였다. 시인은 자기에게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아버지사랑에 그만 어깨를 들먹이며 《수령님, 이젠 다 나왔습니다. 저때문에 더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올렸다.

정녕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펼쳐질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화폭이었다.

언제나 인간사랑의 절정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세계는 날이 가고 세월이 바뀔수록 더욱 깊어만 갔다.

주체51(1962)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과 국가의 중요한 사업도 뒤로 미루시고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이 부문 책임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을 부르시였다.

모임참가자들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장으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이윽고 회의시간이 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몇몇 일군들과 함께 회의장에 나오시였다.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작가, 예술인들과 일군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그들을 한사람한사람 살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찬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옆에 있는 한 일군에게 왜 리찬동무가 보이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이 기별이 늦어졌다고 사실대로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그러면 우리 리찬동무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라고 하시며 무려 30분이나 기다려주시였다.

한 시인을 위하여 베풀실수 있는 모든것을 아낌없이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은정, 이 믿음! 바로 그 은정, 그 믿음이 있었기에 시인은 운명의 마지막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전사가 되어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태양의 노래, 혁명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를수 있었던것이다.

시인이 조국해방의 봄언덕에서 만민이 우러러 부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지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한 역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수십년의 년륜을 새겨놓았다. 그동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시련에 찬 혁명의 년대들을 승리자의 발구름으로 넘어왔다.

시인을 사랑하고 그의 시를 애송하던 동시대사람들의 머리에는 어느덧 흰서리가 내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시문단에는 새로운 재능있는 시인들의 새 부대가 등장하였다. 잊지 못할 조국해방의 그 날로부터 많은것이 변하고 많은것이 전진하였다.

새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리찬의 시가문학을 문학사에서만 알게 되었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시인에 대한 사람들의 추억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 어떤 세월의 비바람에도 변할줄 모르고 식을줄 모르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시인에 대한 사랑이며 은정이였다.

시인을 키워주셨고 그의 창작적재능을 꽃피워주시고 가꾸어주신 위대한 사랑의 손길은 세월의 한계를 넘어 대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이어져갔다.

주체71(1982)년 2월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앞두고 조국해방전후를 통하여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당과 혁명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그들이 활동한 시기에 따라 조선혁명박물관의 해당한 관들에 전시하도록 하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전시된 사진들속에는 시인도 들어있었다.

시인이 이미 세상을 떠난지도 여러해가 지났고 그의 유가족들도 한가정의 사진첩에서나 이따금 찾아보곤하던 시인의 모습이 우리 혁명의 찬란한 년대기들이 수놓아진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게 되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해방된 조국땅에 모신 겨레의 더없는 기쁨이 가슴에 끓어 열정에 불타던 시인의 모습, 마치도 그 모습은 해방의 그날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목매여 부르며 《아, 장군님》 하고 금시 달려오는듯싶었다.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던 화전의 첫기슭에서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견결하게, 깨끗하게 살며 싸워 온 투사들이 우리 혁명력사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이 영광의 대오속에 바로 시인 리찬이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 시인에 대한 크나큰 사랑에 접하게 된 우리 작가들에게는 8년전 시인의 장례가 진행되던 때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주체63(1974)년 정월초, 그때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농업대회가 열리고있었다. 이 땅에 만풍년을 안아올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전국농업대회를 지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시인 리찬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비보를 받으시고 왜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 재능있는 작가를 아깝게 잃었습니다라고 하시며 애석함을 금치 못해 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시인의 장례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인의 부고를 신



문에 크게 내어 세상에 알리도록 하시고 부고에 담길내용까지 다 보살펴주시었다. 그리고 시인의 장례를 창작성인 지방에서 할것이 아니라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시는 수도에서 하도록 하시었다.

이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었다.

시인의 장례식때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한 모든 조객들이 전례가 드문 이 장례식에 깃든 한없이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헤아릴수없이 고매한 혁명적의리에 뜨겁게 눈물지었다.

주체63(1974)년 1월 어느날 드디어 수도에서 멀지 않은 주변도시로부터 평양으로 통하는 큰길로는 화환에 둘러싸인 령구차가 서서히 움직이였다.

길가던 사람들도 위대한 사랑의 그 은정에 머리숙이고 하늘도 그 은정에 목메인듯 하염없이 흰 눈발을 날리었다.

령구차가 마침내 평양가까이 들어설 때였다. 수많은 조객들이 모여들어 령구차를 둘러쌌다.

시인의 동지였던 작가들과 문필가들, 예술가들, 그의 시를 사랑하던 청년남녀들과 군인들이 령구차를 에워싸고 시인을 추모하였다.

조객들을 헤치고 한 백발의 시인이 령구차를 부둥켜안고 목매여 부르짖었다.

《리찬동무, 눈을 뜨시오. 평양에 왔소. 아버지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에 왔단 말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동무가 죽어서도 수령님 가까이 있으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었소. 리찬동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속에 마디마디 끊기였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자기의 한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다간 사람이였다. 그는 아버지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 자기의 시문학을 아름답게 장식할수 있었고 우리 군대와 인민,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불멸의 혁명승가를 지을수 있는 크나큰 행운을 받아안은 시인이였다. 그러한 그가 당의 품속에 죽어서도 이처럼 영광을 지닐줄이야 그자신인들 어찌알았으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시문학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시인이 해방후 우리 문학을 건설함에 크게 이바지한 로장들중의 한사람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였으며 리찬은 김혁이와 같은 혁명가라고 하시며 분에 넘치는 최상의 영예와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적전사에게 남긴 시인의 공적이라면 수십년세월의 갈피속에 잃어진 자료들도 기어이 찾아내도록 하시어 시인이 남긴 공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따사로운 은정을 편이여 베풀어주시였다.

함흥민주회관(당시)에서 읊었던 헌시 《김일성장군 찬가》가 실린 주체35(1946)년 4월 어느날의 신문 《출다》를 어느 한 문서고에서 찾아냈을 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그 자료를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시인이 생전에 쓴 작품들을 선정하여 리찬시집

《태양의 노래》를 출판하여 세상에 내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오래전에 떠나간 시인의 부피 두터운 시집을 받아안았을 때 작가, 예술인들과 수많은 독자들은 당의 품은 이렇게도 고맙고 은혜로운것인가 하고 걱정예 흐느꼈으며 당의 은덕에 보답하리라는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세월은 흘러도 더해만 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는 실로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주체70(1981)년 11월 어느날.

문에충청사의 어느 한 방에는 여러 시인들과 함께 시인의 유자녀들이 흥분된 마음을 누르지 못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신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고있었다.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방금 시인 리찬에게 혁명시인의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였다고 전해 주면서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국가공로자들의 분묘가 있는 아늑하고 경치좋은 신미리에국렬사릉으로 시인을 이장하고 화강석비문에 《혁명시인》이라고 크게 새길데 대한 그이의 은정깊은 말씀을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 접한 시인들과 유자녀들의 얼굴에는 순간 걸잡을수 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었다.

혁명시인! 그이께서 베풀어주신 이 네글자에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져있는가. 이 세상에 시인이 많아도 그 누구에게나 차례질수 없는 고귀한 칭호!

우리 혁명의 려병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변치않는 신념의 글발로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지었던 청년공산주의자 김혁동지가 받아안았던 고귀한 칭호를 시인에게 안겨주시리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것인가.

참으로 그것은 그가 누구이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친 전사라면 끝까지 아끼고 보살피시며 영원히 사랑의 한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베풀어 주실수 있는 최대의 사랑, 최고의 은정이였다.

세계문학사의 갈피에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노래와 함께 삶을 바친 시인들의 기록이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있는가. 그러나 이 세상에 시인이 많아도 혁명의 수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혁명과 문학에 대한 말씀을 받아안으며 창작에 전념할수 있었던 그런 시인은 없었다.

혁명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시인은 생애의 순간순간을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로서 값높이 보람차게 살수 있었고 세월을 넘어 천만리에 이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속에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였다.

혁명시인 리찬이 우리 조국과 문학앞에 남긴 위대한 공적은 선군시대와 더불어 앞으로 길이 남을것이다.

## 영원히 총대와 함께 흐르네

류동호

애국의 뜻이 어린 총대를 들고  
주체혁명 선포하신 우리 수령님  
총대는 백두산의 피어린 력사  
한평생 사랑하신 조국이였네  
총대로 시작된 수령님력사  
영원히 총대와 함께 흐르네

총대로 두 강적을 쳐부신 령장  
영웅조선 존엄떨친 우리 수령님  
총대로 사회주의 큰집 세우고

인민의 천만복을 꽃피주셨네  
총대로 시작된 수령님력사  
영원히 총대와 함께 흐르네

백두산혁명장군 무적의 총대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수령님  
총대로 높이 받든 주체의 조국  
장군님 선군길에 빛나고있네  
총대로 시작된 수령님력사  
영원히 총대와 함께 흐르네

##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해빛넘친 초소길도 함께 가시네  
멀고 험한 전선길도 함께 가시네  
수령님 병사들을 찾아가신 길  
사랑안고 장군님은 함께 가시네  
내 조국의 부강번영 그 길에 있어  
장군님은 수령님과 언제나 함께 가시네

이슬젖은 포전길도 함께 가시네  
깊은 밤의 구내길도 함께 가시네  
수령님 인민들을 찾아가신 길

그 길에서 나라일을 의논하시네  
인민들의 천만복이 그 길에 있어  
장군님은 수령님과 언제나 함께 가시네  
백두산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  
선군혁명 천만리길 함께 가시네  
수령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 해빛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네  
강성대국 승리봉이 그 길에 있어  
장군님은 수령님과 언제나 함께 가시네

## 그리움의 아침은 맑고 푸르네

정답게 웃으시는 장군님영상 그리며  
새날의 창을 여는 희망찬 나의 아침  
내 마음의 하늘가에 해빛은 찬란하네  
아 그리움의 아침은 언제나 맑고 푸르네

꿈에도 함께 계신 어버이 그 손을 잡고  
전선길 따라서는 즐거운 아침이어  
해빛안고 가는 길은 만리도 멀지 않네  
아 그리움의 아침은 언제나 맑고 푸르네

한생을 그리움의 아침에 사는 내 마음  
장군님을 이 세상 끝까지 받들리라  
내 진정을 바친 길에 행복이 마중오네  
아 그리움의 아침은 언제나 맑고 푸르네

그리움의 그 하늘엔 태양이 밝게 빛나  
아 그리움의 아침은 언제나 맑고 푸르네

## 병사의 추억

병사의 그리움은 행복한 추억  
장군님을 전호에서 뵈은 그 추억  
땀이 스민 야전복을 눈물로 적신  
그날처럼 오늘에도 심장 불타네

아 병사의 추억은 장군님사랑  
추억속에 그리움 더해만지네

병사의 그리움은 정깊은 추억

장군님과 야전식사 나누던 추억  
모닥불이 타오르는 숙영지에서  
이 가슴에 안겨준 정 깊어만 가네  
아 병사의 추억은 장군님사랑  
추억속에 그리움 더해만지네

병사의 그리움은 영광의 추억  
장군님과 기념사진 남긴 그 추억  
아버지를 모신 날에 사는 병사들  
심장으로 태양옹위성세 쌓았네  
아 병사의 추억은 장군님사랑  
추억속에 그리움 더해만지네

## 노래여 우리 소원 아뢰드리렴

은하수물결에 노래를 신고서  
아버지 기다리는 내 마음 흐르네  
장군님 이밤에도 전선길에 계시는데  
우리 집의 창가에는 행복의 노래 울리네

험한령 높은 산 저 한끝까지도  
노래여 너만은 넘을수 있지  
장군님 전선길에 부디 건강하시라고  
우리 마음 우리 소원 노래여 아뢰드리렴

우리의 요람에 노래를 주시려  
사랑의 전선길은 멀어만 지네  
장군님 야전차는 눈보라길 달리는데  
봄빛넘친 집집마다 그리움의 노래 울리네

아 그리움의 노래여 울려가라  
장군님 전선길 저 한끝까지

## 그이는 우리 삶의 태양이다

김영남

저분이시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선군혁명총진군대회  
기념촬영장에 들어서시는분  
자나깨나 꿈결에도  
내 간절히 그리며 사는 그분

그처럼 사랑을 다 주시는분  
힘이 모자라면 힘을 북돋아주시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보태주시며  
창조의 나래를 펼쳐주신분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여  
영웅인민으로 키워주신분

저분이시다  
자애넘친 눈길로 우리를 다 여겨보시며  
손들어 답례를 보내시는분  
청춘도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그분

그처럼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승리에로 이끄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찬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광명한 미래를 향해  
향도의 손길 높이 드셨나니

비범한 예지로 빛나는  
그 안광으로 다 보시지 았았던가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도  
내 가슴속 생각도 움트는 꿈도...

이제 또 얼마나 거세찬  
새 혁신의 불바람속에  
세상을 놀래우는 전변이 일어날것이나  
우리 장군님의 백전백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내 나라는  
얼마나 위대한 선군의 강국으로  
더 높이 솟아오를것이나  
아 저분이시다  
살아도 그 손길 따르며 살고  
짜워도 그 뜻을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높이 모셔갈  
그이는  
선군혁명의 최고사령관  
우리 삶의 영원한 태양이다!

위인의 거룩한 그 손길로  
소중히 가꾸고 이끌어주시지 았았던가  
이 땅의 천만인민 하나와 같이  
뜻도 마음도 생사도 같이 하는  
영원한 선군혁명동지로 키워주신  
우리 장군님

눈비가 내리면 눈비를 막아주고  
광풍이 몰아치면 광풍을 몰아내시며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으시여

## 미룰수 없는 중대사

지난 3월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삼수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삼수발전소는 위치도 좋고 실리주의원칙에 맞게 설계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나라에 또 하나의 만년재부가 마련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의 말씀을 받으며 일군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방대한 작업량을 해제킨 공지로 가슴 부풀어올랐다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안쪽의 집들을 가리키시며 이제 언제가 완공되면 저 집들이 다 물에 잠기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렇다는 돌격대책임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도의 책임일군에게 《철거세대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라고 거듭 물으시였다.

먼저 동거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저으기 안색을 흐리시며 침수지역에서 주민들을 철거시키는 문제를 그렇게 허술히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오늘 삼수발전소건설장에 온것도 언제를 어느 정도 쌓았는가 하는것을 직접 볼뿐아니라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침수구역에서 철거하는 주민들의 살림집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자는것이라고,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풀어야 할 기본문제는 침수구역에서 철거하는 주민들의 생활보장문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을 위하시는 숭고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하루빨리 발전소를 완공할 생각만 앞세우면서 철거하는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에 대해 큰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신들이 민망스러웠다. 철거하는 주민들 자신도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침수구역에서 철거하는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였고 건설이 끝날 때까지는 동거생활이 불가피한것으로 여기고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장군님께서 바로 철거하는 주민들의 자그마한 생활상 불편이 그리도 녀려되시여 몸소 눈보라를 헤치시며 발전소건설장을 찾으

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철거하는 주민들의 생활을 잘 보장해주는 문제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추가예산을 세워서라도 철거되는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조건 빨리 지어주되 이미 살던 집보다 더 좋게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깊은 자책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는 몇만 kw의 전기보다 여기에서 철수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것을 명심하고 침수지역주민들의 생활문제를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민들의 생활을 당이 돌보고 나라가 돌봐주는것이 바로 로동당의 정책이고 우리 당의 군중로선이라고 절절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친부모도 따르지 못할 해빛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고 또 삼키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을 옹호고수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인민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철거세대주민들의 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백두령장의 위대한 사랑의 말씀이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우리 장군님 가셔야 할 인민군부대들과 결론을 기다리는 국가적인 문제들은 그 얼마겠는가.

하지만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들과 고탁을 같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이시기에 인민생활과 관련된 자그마한 문제도 결코 미룰수 없는 중대사로 보시며 험한 날에도 천리길을 달려가신것이다

정녕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을 아버지로 모시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끝없는 행복을 누리고있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인것이다

## 신묘한 지략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뛰어난 지략과 예지로 일제놈들과의 전투마다에서 수많은 전설적인 일화들을 남기시었다.

주체29(1940)년 3월 하순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국내에 파견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소부대와 함께 국경일대의 어느 한 마을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아보려고 미처 날뛰고있던 일제의 기동경찰대가 불의에 마을에 나타나 수색소동을 벌리었다.

이런 위급한 정황에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부대성원들을 모이게 하시고 전술을 토의하시었다. 어떤 동무들은 적들을 당장 습격소멸하자고 했고 또 어떤 동무들은 신속히 기동하여 국내공작임무를 수행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의견들은 실통한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몇명 안되는 기동경찰대놈들을 소멸하는것은 쉬운 일이지만 총소리를 울리게 되면 가까이 있는 《함북특별경비대》뿐아니라 무산에 있는 수비대까지 밀려들어 추격해올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소부대의 차후임무수행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될수 있었다. 또 다른 방안대로 소부대가 신속히 기동한다고 해도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

을 눈치챈 적들이 도처에서 피눈이 되어 날뛸것은 불보듯 명백하니 그것 역시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정색해서 듣고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제안을 내놓으시었다.

적들이 아직 소부대의 역량과 활동방향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는 조건에서 총성을 울려 이 마을의 적들과 무산쪽에 있는 적들을 끌어내다 제놈들끼리 싸움을 붙여놓는것과 동시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기본부대가 두만강을 건너 간도쪽으로 빠진것처럼 흔적을 내놓고는 감쪽같이 국내깊이로 들어가자는 의견이었다.

그야말로 여러가지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하는 실통한 묘술이었다.

그날 새벽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신묘한 전술에 걸려든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추격소멸》하겠다고 사방에서 몰려들어 제놈들끼리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다가 날이 밝자 제풀에 주저앉고말았다.

이러한 비범한 지략은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유격전법과 전술에 정통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해오신 결실이었다.

## 동점령의 불바다

### 서봉재

깊어 끝이 깊어  
산과 봉을 거느렸던가  
북방에 우뚝 솟은 메부리  
아, 동점령—

화산분출로 돌물을 토한  
네 가슴에 고이 품은 구리쇠돌  
이 나라 자손들에게 복을 주려 했던만  
일제의 무죄책관은 얼마나 참혹한 원한을  
너의 땅속에 파묻었더냐

한점 빛도 없이 고역에 시달리며  
막장이 깊었던만큼 피가 고였고  
숨조차 쉴수 없었던 너의 동광에  
항거의 불이 터졌구나  
파업의 불바다가 흘렀구나

암록강을 넘으시여  
허친강물을 건느시여  
너의 산정에 오르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우리의 김형직선생님!

암흑이 운명인줄로만 알았던  
광부들의 그울은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안겨주시며  
투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

독립서광의 넓은 하늘을 열어주셨나니

귀전에 들리노니  
야삼경 암흑천지를 뒤흔들던  
그밤의 폭파소리  
눈앞에 보이노니  
수직강의 권양탑, 일제놈들의 집집에  
치솟아 회오리치던 항쟁의 불길이어

지심에서 용암으로 터져오른 그 불  
지척의 백두산하늘에 비껴가고  
왜적을 치는 전장으로 불렀더라  
령성령주재소, 포태리목재소  
침략자들의 아성 온통 화염에 묻히었더라

빼앗긴 나라의 독립도  
깃발힌 거레의 운명도  
항거의 드높은 합성과  
원췌격멸의 총대에 생명을 두었기에  
여기 동점령의 아아한 산정에서  
삼천리강토에 퍼져간 동점령의 불바다

아, 김형직선생님 지피신 그 불  
우리 수령님께 물려주신 두자루 권총에 이어졌고  
우리 장군님의 선군총대에 채워있어  
동점령의 불바다는 오늘도 잠들지 않는다!  
백승의 백두산강국의 폭풍속에 숨쉬고있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문학을 건설하는데서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문학사업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해서도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문학운동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조직화하고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켜 문학사업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이다.》

《문학운동은 문학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문학을 군중적인것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문학운동은 철두철미 당의 령도밑에 진행되어야 한다.》

《문학운동을 벌리는데서 당, 문학예술행정기관, 문예총이 3위1체를 이루는것이 중요하다.》

《문학부문에서는 창작지도를 행정실무화하지 말아야 한다.》

《작가와 대중을 문학운동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문학운동에 대한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조건보장사업도 잘하여야 한다.》

《문학운동을 벌리는데서 평론가가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

《문학운동을 감빠니아식으로 벌려서는 안된다.》

본설

## 우리 당의 품속에서

### 창간 60 뛸을 맞는 《조선문학》잡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창간 60 뛸을 맞는 《조선문학》잡지!

아버이수령님께서 《조선문학》잡지의 전신인 《문화전선》을 창간해주시고 보아주신 때로부터 어언 60년의 역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이 시각 우리 모두의 가슴은 《조선문학》잡지의 편집출판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잊을수 없는 주체35(1946)년 7월 25일!

그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회가 깊다.

《조선문학》잡지가 창간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년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주체적문학건설에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을 투쟁의 무기로 삼으시고 항일의 혈전만리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사향가》, 《반일전가》등을 창작하시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뛰어난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고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의 문학예술활동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는 과정에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방법, 업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항일의 빛나는 문학예술전통을 마련하시였

다.

이 땅우에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부강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건설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와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하여 여기저기 흩어졌던 작가, 예술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여 문화전선의 투사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지혜와 재능, 애국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문학예술부문의 첫 출판물인 《문화전선》잡지를 창간하여주시였다. 이것은 주체문학운동에서 기념비적의의를 가지는 하나의 역사적사변이였고 주체적문학건설의 크나큰 경사였다.

주체35(1946)년 7월 25일 한없이 기쁘신 마음으로 《문화전선》잡지의 창간호를 받아드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해방된 조국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문학잡지를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일제의 극악한 정치적탄압과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하여 우리의 유구한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힌 해방직후의 실정에서 문학예술부문의 첫 출판물이 나오게 된것은 새 조선의 민족문화건설에서 또 하나의 전진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앞으로 《문화전선》은 독자들에게 당정책을 알려주는데 중심을 두고 해방된 조국의 보람찬 현실을 잘 반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실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잡지를 내놓이 풍부하고 편집도 다양하게 하며 독자들의 환영



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편집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문화전선》잡지의 발간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폐허로 된 땅에 새 조국을 일떠세우는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잡지의 정상적인 발간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건국의 마치 소리 드높은 이 땅에 고고성을 터친 《조선문학》잡지는 오늘날 선군문학예술을 선도해나가는 작가들의 전문문학잡지로서의 풍격을 원만히 갖추고 역사적사명을 다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창간되고 발전하여 온 《조선문학》잡지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어가시는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더욱더 눈부신 자기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문학》잡지의 사상예술적품격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잡지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판물로서 그 위력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원칙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문학》잡지를 여러 차례 지도하여주시면서 잡지에 수령형상문학작품을 비롯한 혁명전통주체의 문학작품들을 많이 실을데 대하여서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해설선전하는 무거운 리론글들과 평론들을 많이 편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심으로써 잡지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격동하는 선군시대의 역사적흐름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인간전형창조를 우리 문학예술의 기본반영대상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으며 작가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선군문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선군시대 천만군민의 사상정신적품모와 주체적문학예술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는데서 권위있는 《조선문학》잡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잡지의 영향력과 보급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문학》잡지의 추진상까지 마련하여 주시으로써 작가들의 창작적의욕을 북돋아주고 문학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시었다.

창간된 때로부터 60 뽕을 뜻깊게 기념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세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하고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다해 온 《조선문학》잡지가 걸어온 빛나는 로정은 우리 문학운동의 자랑이고 영예이며 긍지이다.

우리는 오늘 깊고 역센 역사적뿌리에서 태어나 주체문학건설의 한길만을 걸어온 잡지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이 뜻깊은 시각 《조선문학》잡지의 창간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며 편집출판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필가들에 의하여 혁명이 생기와 활력과 량만에 넘쳐 힘차게 전진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붓대철학입니다.》**

우리 당의 붓대철학으로 글을 쓰고 편집출판활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형상창조를 언제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원리뿐아니라 선군시대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요구이다.

우리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여 수령형상창조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수령결사옹위정신서철야한 소유자로, 선군혁명투사로 준비시키는데서 귀중한 정신적량식으로 되는 작품들을 더 많이 편집발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주체사상교양, 혁명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 반미반일교양주체와 계급교양주체, 조국통일주체를 비롯한 여러가지 주체의 혁명적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더 잘 편집출판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한다.

창작되는 모든 문학작품들을 명작으로 만드는것은 현시기 우리 작가들과 편집원들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는 모든 글들에서 류형과 도식, 모방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시고 개성이 있는 글, 발견이 있고 철학적무게가 있으며 지성도가 있는 품위있는 글들을 편집발행해냄으로써 선군시대 인간들의 높은 사상미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출판사와 문학예술부문 그리고 출판보도부문에 주신 강령적인 가르치심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우리의 출판물들이 주체성과 민족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내용과 형식이 새롭고 다양하며 전투성과 호소성이 높은 선군시대의 출판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과의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며 그들의 창작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정치적인목과 창작실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실력이 없으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설수 없고 당의 문예로선을 제대로 관철할수도 없다.

우리는 편집출판사업에서 강한 요구성을 가지고 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부단히 높여나감으로써 더 많은 명작품들을 안아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문학》잡지의 기자, 편집원들은 우리 당의 기초축성시기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심으로 받들었던 일군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장군님과 사상과 뜻과 정을 같이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혁명동지가 되어 집필, 편집출판사업에서 전면적공세를 벌려 《조선문학》잡지에 명작품들을 마련함으로써 조선문단이 흥성이게 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다. 우리는 《조선문학》잡지가 명실공히 주체문학의 가장권위있는 잡지로 되게 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홍영길**

# 빨간 저고리



김 정 그림 김광석

중위 김산해의 고향은 그가 소속된 군부대비행장으로부터 삼백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개암골이라는 산골동네였다. 출격명령을 받고 전장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중위는 고도를 낮추어 개암골상공을 미속으로 한바퀴씩 선회하곤 하였다. 그곳에는 김씨가문사람들이 5대를 두고 살아오는 집이 있다.

명성황후의 시해로 떠들썩했던 망녕스런 을미년봄에 새색시를 데리고 살길을 찾아 류랑길에 올랐던 고조할아버지가 개암골에다 보짐을 풀고 오두막 한채를 지었다. 그 오두막이 바로 개암골사람들이 파주집이라고 부르는 김산해네 집의 조상이었다.

그후 증조할아버지가 두칸짜리 집을 지어 아담한 남향집이 오두막자리에 새로 태어났을 때 증조할아버지는 이웃들을 청해다가 차조밥에 콩나물국을 대접하였다.

아버지대에는 방을 하나 덧달아 초가삼간을 만들었다. 지금은 그 집에서 어머니와 누이동생 인해가 살고있다.

초가삼간이라지만 중위의 고향집은 추격기의 기창안에서 하나의 미미한 점, 등껍데기가 셋노란 딱정벌레만큼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지상에 존재하는 온갖 세부들이 모두 무시된다.

그러나 김산해는 그 《딱정벌레》의 등껍데기 밑에 가리워져있는 이러저러한 세부들을 죄다 보고 있었다. 육안으로가 아니라 감각으로 가위다리를 려상시키는 발방아의 모양새와 토방돌의 색조로부터 시작해서 뒤옹박의 주름살과 만물상을 려상시키는 체비둥지의 굴곡은 물론 그 무슨 유산처럼 대들보밑에 대대로 매달려온 첩약봉지의 개수

까지도 고스란히 기억속에 떠올리며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였다.

토담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정원에는 박꽃도 있고 넉출당콩도 있고 무궁화나무도 있었다. 먹을것을 가지고 싱갱이질을 곤잘하는 새끼고양이와 복슬강아지, 엄지탐의 날개밑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아장아장 《세계일주》를 하는 병아리때도 있었다.

장마도 가물도 타지 않고 싱싱하게 자라 매번 알찬 열매를 선사해주곤 하던 토담가의 피마주는 산해네 집뜨락의 풍경을 또 얼마나 멋드러지게 부각시켜주었던가. 읍거리에 고급중학교 교사가 건설된 그때부터 김산해는 뜨락에 피마주를 심었다. 가을이면 열매를 따서 그 속살로 교실 널마루와 책상을 알뜰알뜰 윤기나게 닦았다. 중학생인 인해도 그랬다. 피마주포기수는 해마다 늘어났다.

김산해는 2학년말기부터 군대에 나갈 꿈을 꾸었다.

어떤 바람개비같은 친구가 하루는 모모한 군관을 통해 입수한 정통한 소식이라면서 철봉현수를 10 번이상 하는 대상이라야 입대자격을 준다는 정보를 퍼뜨려놓았다. 김산해는 그후 인차 마당 한쪽구석에 철봉대와 평행봉대를 세웠다. 그는 현수를 30 번이상 하는 기구체조의 《선수》가 되어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입대심사를 할 때 현수동작을 검열한다고 한 소식통의 《정보》는 물론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대포였다. 하지만 김산해는 유쾌한 그 허풍쟁이 친구를 조금도나누라지 않았다. 철봉과 평행봉의 덕으로 그는 사단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힘장사가 되었다.

김산해의 추억속에는 고향집 사립문밖의 풍경도 그림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앞내가의 웅달샘과 달맞이꽃, 하얀 면사포밑에서 봄마다 수레를 머금고 한들거리던 민들레와 소똥굴레, 100만군사의 대장정을 연상시키는 질서정연한 개미의 장사진까지도 고스란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중위는 고향마을을 한바퀴씩 순회할 때마다 매번 코노래로 《나리나리 개나리》하는 동요곡을 건드려지게 부르곤 하였다. 언제인가 개암골의 코흘리개들이 파주집의 처마밑에 와서 고드름을 깨먹으며 부르던 노래였다. 봄은 아직 만리밖에 있는데 아이들은 개나리와 병아리를 노래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저너석들이 하필이면 왜 이런날 고드름을 깨물면서 《개나리》노래를 부를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그 동요가 어느때부터인지 김산해의 생활에 뛰어들었다. 추격기비행사의 입에서 《개나리》라니 얼마나 피이하고 파격적인 정서인가.

그러나 김산해는 《개나리》를 연줄로 하여 지상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였으며 그 선물의 도움으로 고향의 모든것을 심장속에 융해시키고 있었다.

어느날 출격을 앞두고 같은 추격기비행사인 서영도가 이런 훈계를 하였다.

《산해동무, 오늘은 〈고향시찰〉을 그만두는게 어때? 공과 사를 뒤섞어서야 안되지.》

《알겠네. 그렇게 하지.》

김산해는 서영도가 제때에 씨가 박힌 조연을 준다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때 편대장 박상조가 서영도를 편찬하였다.

《영도동무, 고향을 사랑하는건 비행사의 임무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숭고한 임무야. 산해동무가 요전날 어떻게 되어 단방에 적기를 쏘떨렸는지 아는가? 그의 날개밑에 고향이 있기 때문이야. 고향이 그에게 힘을 주거든. 그걸 알아야지.》

《편대장동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도 산해동무와 함께 개암골을 시찰합시다.》

잔격정이 많기는 하지만 서영도역시 대범한 《하늘사람》이 었다.

그날은 편대 전체가 개암골을 순회하였다. 그때부터 개암골은 김산해만이 아니라 모든 비행사들의 마음속에 꼭같이 자리잡은 공동의 고향으로 되었다. 편대의 비행사들중에서 출격기지와 전장사이에 고향을 둔 사람은 김산해밖에 없었다.

중위가 고향을 돌아보고 북쪽으로 기수를 돌릴 때마다 이마가 《3천평》 쯤 되는 마음씨 좋은 편대장은 마이크로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곤 하였다.

《3번, 고향은 어떤가? 다 제대로 돼있는가?》

《네, 정상입니다.》

그것은 날강도 미제의 《갈가마귀떼》들이 개암골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의 말이였다.

일곱세때밖에 안되는 개암골의 농가들은 조국해방

전쟁이전의 목가적인 풍경을 그대로 보존하고있었다. 아직은 폐허도 없었고 폭격에 무너진 집들과 허청간도 없었다.

첫 출격의 날로부터 아홉달이 흘렀다.

어느날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김산해는 저공에서 개암골을 순회하다가 빨간 《장미》한송이를 발견하였다. 그 《장미》는 그가 무더운 여름밤 미역을 곧잘감곤 하던 앞내가 빨래터에서 허공을 향해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어주고있었다.

빨간 《장미》, 빨간 저고리, 오래간만에 보게 되는 빨간 옷의 고향너자!

누구일가? 누가 저렇게 손을 흔들면서 나를 반겨줄가? 혹시 우리 집 말팔랭이 인해가 아닐가?

어느해인가 김산해는 뿔나무를 해다 판 돈으로 옥양목 다섯자를 끊어 온 일이 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옥양목에 발간 물감을 들여 인해에게 저고리를 지어 주었다. 김산해가 보안간부훈련소로 떠나던 날 인해는 그 저고리를 입고 역에서 오빠를 배래주었다. 그때부터 빨간 저고리는 중위의 뇌리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누이동생의 상징으로 되었다.

그러나 빨간 저고리는 인해한테만 있는 독점물이 아니였다. 그가 빨간 저고리를 입고다니게 되자 승벽이 강한 옥이와 밤나무집의 삼녀도 빨간 저고리를 지어입고다니였다. 동갑나이를 자랑하는 세송이의 빨간 《장미》가 학교로, 산으로, 장거리로 밀려다닐 때는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김산해가 빨래터의 《장미》와 인해를 결부시키면서도 그 주인공을 인해라고 딱 찍어서 단정해버리지 못하는것은 바로 그것, 개암골의 빨간 저고리가 세벌이라는 사정때문이었다.

중위는 지상에서 빨간 저고리를 발견하는 순간 형언할수 없는 감동을 받아안았으나 인차 불안스러운 생각에 잠기였다. 저 애들이 공중전을 할 때 저렇게 야단스레 손을 흔들면 어찌나 하는 불안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빨래터에서 손을 저어주고있는 저 빨간 저고리의 행동은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어처구니없는것인가.

김산해는 기지에 돌아오자 그날로 인해에게 편지를 썼다.

《인해야. 사랑하는 내 동생아!

다시한번 물어보자. 그날 빨래터에서 내 제비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게 누구냐? 너냐? 옥이냐? 삼녀냐? 손을 흔들어주게 되면 물론 기분이야 좋지. 그렇지만 그건 위험한 노릇이야. 만일 그날 너희들이 손을 저어보인 그 비행기가 《B-29》나 《그라망》이였더라면 어쩔번 했니. 아마 기관총알이 한삼태기나 쏘아졌을게다.

미제놈들은 빨간색을 좋아 안해.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빨갱이〉라고 부른다는거야 너도 알겠지. 하늘에서 제일 잘 보이는 색깔이 바로 하얀 색깔과

빨간 색깔이라는것쯤은 너도 알리라고 본다. 지금이 어느때라고 빨간 저고리를 걸치고 로천에 나와서 더떨거린단 말이냐.

미군놈쉬파리들이 아무때든지 날아들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그저 비행기소리만 나면 덮어놓고 움속에 들어가 움짱말고있어라. 앞마당 김치움에 말이다. 그리구 밖으로 나다닐 때는 빨간 저고리대신 검은 교복을 입는게 좋겠다. 그러되 위장은 꼭 하고다녀야 한다. 지금이 어디 밋을 따고 돌아칠 때냐. 전쟁인데 기사니처럼 목을 빼들고 우쭐렁거릴 필요는 없다.

삼너하구 옥이한테두 빨간 저고리를 입고다니면 위험하다고 해라. 빨간 저고리, 빨간 저고리! 그게 참 문제거던.》

한주일후 인해는 오빠에게 살뜰한 답장을 보냈다.

그 편지가 얼마나 친근하고 따뜻한 말마디들로 엮여졌는지 김산해는 시종 미소를 금치 못하였다. 그러다 마지막 단락에 들어가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같은 문장들을 세번, 네번씩이나 곱씹어 읽었다. 인해가 오빠의 경중에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섰기 때문이었다.

《오빠. 그런데 오빠 언제부터 그런 겁쟁이가 되었나. 빨간 저고리를 입고다니는게 뭐가 위험해서 그렇게 벌벌 떠는가 말이야.

우리 교장의 보잡이군들은 폭격속에서도 가대기를 끌고 청천강에다 가설다리를 놓는데 이 동생이 뭐 준비와 적기도 가려볼줄 모르는 밤통인줄 알았어? 이 인해를 뭘루 알아.

가짓것 기관총알을 한삼태기가 아니라 열삼태기라도 쏴라고 해 미제놈의 《B-29》나 썩썩기같은건 톱파리만큼도 무섭지 않아. 그것들이 못되게 굴면 굴수록 난 보란듯이 빨간 저고리를 더 자주 입고다닐테야. 그제 조선사람이지 뭐야. 예헴!》

남자번지개같은게 여전하다니까.

인해는 온 마을이 공인하는 말팔랭이었다.

그가 남자번지개로 불리우기 시작한것은 김산해가 열아홉번째 생일을 맞던 날부터였다. 그날아침 그는 구룡집 앞마당에 있는 대추나무꼭대기에 올라가 마을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구룡집이란 일제식민지통치말기에 개암골을 등지고 남만주로 떠나간 집이다. 주인없는 초가는 폐가가 된지 오래지만 대추나무만은 길길이 자라서 해마다 풍작을 뽑내었다.

날짐승들이나 겨우 깃을 붙일수 있는 휘친휘친한 나무가지를 벌디디고 서서 인해는 상수리에 열린 대추알들을 열심히 세고있었다.

《인해야, 너 거기서 뭘하니?》

조반전에 남산에서 강대를 한지게 찍어가지고 돌아오던 김산해는 대추나무밑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고 역증스레 물었다.

《나? 대추 〈현물세〉를 거두러 왔어. 내가 키운 나무이니 〈현물세〉는 내가 먹어야지.》

그 말은 옳았다. 그 대추나무의 주인은 인해였다. 인해는 해마다 대추나무에 거름을 주었다. 그해 초봄에는 진도집개가 물고다니던 까마귀의 송장까지 물어주었다. 가을이면 작대기로 두드려서 수확한 대추를 되박으로 되여 일곱집에 팔고루 나누어주었다.

《〈현물세〉 구 뭐구 당장 내려오지 못해!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찌자구 그래.》

《...》

인해는 오빠를 뵈히 내려다보다가 자기네 학교 력사선생의 코맹맹이소리를 입내내여 《김산해학생,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난 원인이 무엇인지 대답해보시오.》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휘파람을 췌지게 불었다.

그러자 대추나무밑에 모여들었던 처녀총각들은 폭소를 터뜨리었다.

《망종같은것!》

김산해는 말본전도 못찾고 처녀총각들의 결을 떠났다.

그날아침 밥상에 마주앉은 그는 밥그릇에 꽂혀있는 대추나무아지를 보고 다시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건 뭐가?》

그는 밥상옆에 아닌보살을 하고 앉아있는 인해를 돌아보며 통명스레 물었다.

그러자 인해는 눈을 가볍게 흘기었다.

《뭇긴 뭐야 생일선물이지. 오늘이 오빠 배꼽떨어진 날이라는것두 몰랐나?》

《!》

대추나무가지에는 김산해의 나이를 상징하는 열아홉개의 대추알이 다량다량 달려있었다. 그날 김산해는 그 열아홉알의 대추앞에서 얼마나 감격하였던가.

풍파사나운 이 전쟁도 참대같은 인해의 성미만은 허물어내리지 못하였다. 그 전쟁으로 하여 참대는 오히려 몇곱절 더 푸르싱싱해진것 같았다. 봄물이 올라 살이 포동포동 진 내가의 버들개지처럼 살을 하고 복성스럼기만 하던 누이동생의 말마디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막대기처럼 꽂꽂혀졌던가. 그것은 읍거리의 고급중학교와 녀자중학교 교사가 폭격에 불타버린 그날 그밤으로 오빠에게 써보냈다는 성토문같은 그 편지에서부터였다.

그때부터 인해의 편지는 인간백정들을 고발하고 저주하는 연단으로 되었다.

김산해는 누이동생의 배짱이 빈 양철통같은 허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심지에 불만 달리면 확하고 폭발하고마는 인해의 화약같은 성미를 그는 너무나도 잘알고있었다.

그래, 미군비행기가 무서워서 빨간 저고리도 못입고 다니면 그건 인해가 아니고 조선녀자가 아니지. 내 로파심이 지나쳤던것 같애.

김산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누이동생을 애써 변호하였다. 그러나 인해에게 보내는

답장에서는 《그래도 빨간 저고리는 밖에 입고나오지 말것.》하고 엄숙한 포고를 하였다. 그날의 답장은 그제 전부였다. 그대신 그 명령문의 아래에는 웅근 한페지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는 커다란 주먹을 그리었다. 《오빠가 하라는데로 안했다간 알지?》하는 위협이었다.

열닷새가 지난 후 김산해는 누이동생한테서 한장의 만화를 받았다. 입술사이로 혀를 삐죽 내밀고 눈이 울롱해서 그 무엇인가를 쳐다보는 인해의 자화상이 그려진 답장이었다. 아무런 주해도 달리지 않은 그 자화상에 설명이라는것이 있다면 삐죽 내밀린 혀끝에서부터 줄을 길게 굵고 그우에 흔들거리는 필체로 아무렇게나 써갈린 《흥!》자뿐이었다.

그쯤되면 그 공방전은 인해가 승리한 공방전으로 된다.

중위는 백지에 더 큰 주먹을 그려서 보내려다가 그만두었다. 보냈대야 소용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김산해는 어째서 자기가 매번 선수를 쓰면서도 종당에 가서는 누이동생한테 양보를 하게 되는지 그 까닭을 알수 없었다.

며칠후 중위는 출격의 길에서 또다시 빨간 저고리를 보았다. 그날의 빨간 저고리는 빨래터근처의 보리밭 한가운데서 중위의 제비가 선회하는 방향을 따라 원무라도 하듯이 잦은 걸음으로 또아리를 틀어가며 열광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손을 좌우로 흔들 때마다 한줄기의 예리한 섬광이 번쩍하고 대공을 찌르곤 하였다. 낮날에서 쏟아져나오는 반사광이었다. 지상에서는 보리가울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었다.

잇누런 곡식의 주단우에서 낮을 들고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해의 모습은 무대에서 보리가울을 형상화하고있는 한떨기의 무희를 연상시켰다. 태양은 그 무희를 위해 걸려있는 고팡도조명등이라고 명명해도 무방하리라.

김산해는 다 익은 보리향기가 금시 기창으로 흘러드는것만 같아서 연방 코를 벌름거리었다. 중위는 그 냄새가 못건디게 그리웠다. 수염이 한자나 되는 보리이삭을 뺨에 살살 문대며 이삭에서 풍기는 구수한 난알향기에 취해서 종다리의 노래를 접도록 감상하던 여름날의 정경들이 구름처럼 눈앞에 피어올라 화려한 화폭을 펼쳐놓았다. 머리에 땀방울이 이고 발머리로 나오곤 하던 어머니의 모습도 눈에 삼삼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화면들에서 그윽음냄새가 났다. 생활은 비록 불에 타고 포탄에 그슬렸지만 그 생활이 엮여온 지난날의 복많은 로정에 대한 중위의 향수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애잡짙한것이였다.

김산해의 눈에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원무를 하며 돌아가는 누이동생이 마치 빨간 날개를 가진 한마리의 불사조처럼 보이였다. 조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빨간 의상을 걸친 불사조로 응축되어 날마다 손을 흔들어 편대의 전공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다. 중위는 부지중 자기가 그 날개에 실려 하늘을 날고있는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히였다. 그러자 온몸에서 힘이 융솟음쳤다.

인해야, 장하다! 올해는 너 혼자서 보리가울을 시작했구나. 그래 어떻게? 잘 영글었니? 잘 영글었으면 이 오빠에게 한이삭 올리던지럼!

김산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지상을 향해 병싯 웃어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는 사이에 개암골은 뒤로 아스라하게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중위는 멀리서도 누이동생의 말없는 대답을 듣고있었다.

오빠, 잘 영글었어. 차돌처럼 탄탄하게 말이야자, 반어! 보리가울은 넘려마. 올해도 현물세는 맨선참으로 바칠테야!

출격의 길에서 빨간 저고리를 보는것은 어느덧 김산해에게 있어서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였다. 중위는 인해를 통해 조국과의 교감을 하였다. 누이동생이 지상에서 손을 흔들 어줄 때면 그 변화무쌍한 손동작을 타고 거대한 심장을 가진 대지의 맥박이 《제비》의 동체안에까지 흘러들어와 자기의 심장을 기운차게 툭툭 건드려주는것만 같았다.

인해가 보이지 않는 날이면 이상야릇한 적막감이 중위의 심신을 엄습했다. 그런 날이면 그는 기지에 돌아가서도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젠장, 오늘은 그 말팔랭이같은게 왜 나타나지 않았담!》하면서 누이동생을 나무람하곤 하였다. 편대의 동무들도 《그 남자번지개가 웬일일가?》하면서 자못 허전해하였다.

《빨간 저고리, 빨간 저고리, 그제 참 문제거던!》하던 김산해의 걱정은 고조할아버지시대의 망건이나 나막신처럼 쓸모없는것으로 되버리였다. 빨간 저고리의 존재는 이 전쟁에서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자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김산해의 전쟁에 대한 견해를 지진처럼 뒤흔들어놓았다.

땅과 하늘이 일심으로 결합된 전쟁, 전선과 후방이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전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구별이 따로 없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한계가 청실홍실의 차이처럼 뚜렷하지 않은 전쟁—이것이 빨간저고리로 하여 중위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전쟁의 참다운 얼굴이였다.

그러나 중위의 안도감은 오래 갈수 없었다. 적의 폭격기들이 개암골을 만신창으로 만들어놓았기때문이었다.

그날 계절조들이 떼를 지어 남쪽길을 재촉하던 그윽씨년스러운 마가를 아침 공군기지에서는 적의 《그라망》편대가 개암골상공에 나타나 파도식폭격을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고 추격기편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편대가 목적지에 당도했을 때 적의 폭격기들은 멀리 서해쪽으로 황황히 꼬리를 감추고있었다.

박상조편대장은 추격기 비행사들에게 저공비행으로 지상의 피해정형을 료해하라는 명령을 내리였다.

치명상을 당한 개암골, 태풍직후의 어촌을 방불케하는 김산해의 고향, 처참하다는 말만으로는 도저히 그 피해의 심도를 그려낼수 없는 산촌의 모습.

청천강에 부설된 가설다리는 어디로 날아갔는가. 강기슭의 계선장들도 풍지박산이 되었다. 죽탕이 된 안주—개천사이의 철길로반, 화산의 분화구를 련상시키는 폭탄구덩이들로 하여 로반은 꿈보딱지가 되었다. 은행나무 고목밑에 외따로 떨어져있던 선로감시원의 집은 형체조차 찾아볼수 없다. 개암골 막바지의 물방아간도 벌집처럼 되었다.

제일 가슴섬찍한 피해는 개암골의 《딱정벌레》들이 대부분 지상에서 자취를 감춘것이였다. 김산해네집도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고… 하늘이 아끼고 사랑하는 빨간 저고리도 보이지 않았다.

편대장은 기지에 돌아가자 김산해를 위로하였다.

그러나 김산해는 동무들이 자기를 위로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하고 뒤숭숭해하였다. 그는 어머니와 인해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편지 세통을 써서 한꺼번에 개암골로 보냈다. 한통은 진도집으로, 한통은 밤나무집으로, 한통은 물방아간집으로, 하지만 그 어느 집에서도 답장은 없었다.

그렇다면 개암골은 무인촌으로 돼버렸단 말인가. 혹시 우편차가 박살난게라도 아닌가. 그후부터 중위는 빨간 저고리를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청천강의 가설다리도 소생하고 계선장도 다시 일어서고 철도로반의 폭탄구덩이들도 모조리 메워졌으나 고향의 빨간색만은 종시 그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산해는 빨간 저고리의 원무가 없는 고향산촌을 지날 때마다 입술을 깨물면서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였다.

그런데 한달후 천만뜻밖에도 기적이 일어났다. 군사우편대호를 가진 인해의 편지가 공군기지에 불쑥 날아들었던것이다.

《오빠, 놀라지 말어.

방금전에 난 군인선서를 했어. 군대가 됐단 말이야.

옥이하구 같이 전선을 탄원했는데 한사단이야. 나는 전방봉대소 간호원. 옥이는 사단군의소 간호원, 어때. 멋있지?

우리가 인민군대에 입대한건 삼너의 원쑤를 잡기 위해서야. 오빠도 봤겠지. 놈들이 개암골을 어떤 물골로 만들어놓았는지, 일곱집밖에 안되는 함지박만 한 마을에 폭탄을 열두개나 떨구고 달아났으니 알만 하지 않아 삼너는 그 폭격에 잘못됐어. 옥이네 식구들도 모두… 글썄 하루동안에 아홉명의 마을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나하구 엄마하구 옥이가 무사한건 그날 현물세달구지를 끌고 면으로 갔었기때문이야.

오빠, 그 날강도같은것들이 뭘 보고 우리 마을에 달려들었을까. 우리 개암골에 도대체 뭐가 있나 말이야. 병실이 있나 포진지가 있나 군수공장

이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않아. 혹시 이 빨간 저고리가 미워서 막 짓몽개놓는게 아닐까. 좋아, 어쨌든 결판을 내자는거야.

삼너를 잃은게 정말 분해. 얼마나 좋은 애였나. 오빠도 그엘 금식이 고와했지. 이북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는 애라구. 생각나나? 우리 셋에게 산에서 따가지고온 개암을 나누어주다가 두알이 남아돌아가게 되자 그걸 몽땅 삼너에게 주던 일이. 그땐 나도 옥이도 삼너를 시샘했어. 철이 없었으니까.

오빠 이 원쑤를 잡기 전에는 오빠에게도 엄마한테두 편지를 쓰지 않을래. 기다리지 마.》

삼너, 삼너가 죽다니… 동실한 얼굴에 불우움을 파며 방글거리던 삼너의 모습이 창가에 방불하게 어러온다. 심장의 피가 끓어올랐다.

김산해는 편지를 세번이나 곱씹어 읽었다. 해지지도 않고 퇴색하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는 빨간 저고리, 적들이 죽음을 강요하면 할수록 더 세차게 깃을 치며 대공에 날아올라 천하를 굽어보는 내 고향, 내집의 귀여운 빨간색, 글썄를 타고 올려오는 삶의 고동소리, 생명의 웨침소리를 듣는 김산해의 행복감은 무아경에 가까웠다.

인해의 편지를 받은 다음부터 중위는 개암골에 대한 저공비행을 중지하였다. 그대신 고공에서 이따금씩 소생하여가는 향촌의 모습을 부감하였다. 중위는 빨간 저고리의 원무를 보지 못하는 비행에 습관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조국은 전쟁의 마지막해를 맞이하였다.

김산해는 그 몸을 맹랑하게도 야전병원에서 보냈다. 그것은 그가 전혀 바라지도 않던 생활이였다. 조국이 중위의 능란한 비행술과 용감성을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을 때 그는 침상에 매인 몸으로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고있었다. 적탄에 갈비뼈 하나를 잃은 비행사, 그가 하는 소일거리란 간호원이 하루 두번씩 랑독해주는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듣는것이였다.

김산해는 급한 고비를 넘기자 한주일에 한번씩 인해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어떤 날은 즉흥시까지 지어보냈다. 중위는 누이동생과의 대화를 몹시 고대하였다. 답장도 받지 못하는 편지가 꼬리를 물고 전선으로, 전선으로 날아갔다.

어느날 김산해는 병문안을 온 서영도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우리 인해한테서 편지가 오거든랑 지급으로 보내주게.》

《암, 그야 물론 그래야지. 그런데 이것 보게. 개암골에 빨간 저고리가 다시 나타났네.》

중위는 빨간 저고리라는 말을 듣자 서영도의 손을 덥석 틀어잡았다.

《뭘? 빨간 저고리?!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야.》

《언제부터 나타났게?》

《한주일전부터야. 처음엔 편대장이 발견했구 그 다

음은 내가 발견했어. 우릴 보고 빨간 수건까지 막 흔들어주지 않겠나.》

《그게 누굴가?》

《글쎄 그게 수수께끼란 말이야. 우리도 그것때문에 론쟁을 좀 했네. 지네의 말을 들어보면 세 빨간 저고리중 하나는 죽고 둘은 전선으로 나갔다는데 전방에 간 처녀애들이 수백리밖에 날아와 손을 흔들어줄수가 없지않아.》

《그게 정말 수수께끼는 수수께끼로구만.》

김산해는 서영도가 돌아간 다음에도 계속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고심하였다. 최전선의 인해나 옥이가 고향에 나타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삼녀는 저세상사람이니 셈에 넣을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인해도 옥이도 삼녀도 아닌 제4의 빨간 저고리가 개암골에 나타났단 말인가. 하기는 내가 고향을 떠난지도 삼년석달이나 되니 그동안 우리 개암골에 무슨 변화인들 없겠는가.

전송의 날을 한달 앞두고 김산해는 야전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그는 부대에 돌아가자바람으로 공중전에 참가하였다. 그것은 그가 《제4의 빨간 저고리》를 보는 행운의 날이었다.

바로 그날 급강하하는 적기의 꼬무니에 불벼락을 안기면서 저공으로 내려온지던 김산해는 고향마을의 박우물가에서 수수께끼의 그 빨간 저고리와 그 저고리의 머리우에서 기발처럼 나뭇기는 빨간 수건을 보았다.

인해를 대신해서 나타난 빨간 저고리, 어쩌면 인해의 분신같이도 생각되는 빨간 저고리, 인해는 전선으로 갔지만 개암골은 하늘의 매들을 위해 다른 빨간 저고리를 또 내세워주었다. 하늘은 저 빨간 저고리를 통하여 대지의 즙액을 빨아들이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조국이 하늘의 매들을 위해 마련한 빨간 저고리의 제주가 아니고 무엇인가.

김산해는 이런 상념을 번개같이 이어가면서 적기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바다속에 수장시키었다 싸움을 끝내고 기지로 돌아갈 때 그는 동무들과 함께 다시한번 개암골을 돌아보았다. 공중전이 끝난지도 이속하건만 미지의 그 빨간 저고리는 수건을 흔들면서 그냥 박우물가를 맴돌고있었다.

고맙다, 빨간 저고리야. 유감스럽게도 나는 아직 너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나는 너의 모습을 보고 큰 힘을 얻었다.

김산해는 기체를 상하로 까딱거리며 빨간 저고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이 땅에서 전쟁의 불비가 맺은것은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였다.

말복을 며칠 앞둔 어느날 김산해는 휴가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떠났다. 거리도 광장도 갯구도 향만도 렬차도 나루배도 온통 전송의 열기로 끓어번지는 8월이었다. 고향읍에서 기차를 내린 중위

는 우편국에 들러 초소의 인해에게 《조선인민군 군사우편 제 XX호 김인해 앞. 승리한 누이동생에게 전송을 축하함. 승리한 오빠로부터》라는 전보를 친다음 개암골로 들어갔다. 어떻게 되었을가, 나의 민들레, 나의 웅달샘, 나의 개미, 나의 소똥굴레는...

그리나 중위를 맞이한것은 폐허로 된 개암골이었다.

태풍에 뿌리채 뒤집힌것 같은 고향마을의 서름서름한 정경은 중위의 가슴을 사뭇 아프게 하였다. 평화는 봄아씨처럼 따뜻한 미소를 고향산촌에 아낌없이 뿌리고있었지만 개암골은 아직도 지난날의 안정과 균형을 되찾지 못하고있었다. 개암골의 옥토를 파먹은 흉물스러운 폭탄구멍이들은 전쟁방화자들이 조국에 강요한 불행과 재난의 깊이를 다시한번 통감하게 하였다.

파주집의 집터자리에는 초가삼간대신 낫설은 오두막이 생기었다. 올미년 봄에 고조할아버지가 지었다는 오두막도 저런 집이었으리라.

김산해는 트랙에서 빨간 저고리가 언뜻거리는것을 보자 걸음을 다그쳤다. 그러니까 그날 박우물결에서 우리를 보고 수건을 흔들어주던 빨간 저고리는 인해였단말인가. 그래, 인해가 틀림없어. 인해가 아니라면 누가 저렇게 우리 집 트랙에서 부루를 숙고있겠는가 저 말팔랭이같은게 그새 혹시 제대라도 됐나. 집에 왔으면 왔다고 편지라도 해야지.

빨간 저고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를 살룩살룩 절곤 하였다.

저런, 저 애가 부상을 당했군. 그래도 치명상은 아니었던 모양이야. 전방봉대소에 배치받았다고 했지. 싸움을 많이 한게로군. 장해.

《인해야!》

중위는 사립문밖에서부터 큰 소리로 누이동생을 찾았다.

그 소리를 듣고 빨간 저고리가 뒤로 뺄 돌아섰다.



중위는 그만 사립문가에서 화석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앞에는 인해가 아니라 옥이가 서있었던 것이다. 옥이도 말끄러미 김산해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인해의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림자처럼 물어다니던 소녀시절의 새침한 인상과 고집스러운 표정이 얼굴 한쪽구석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오빠!》

처녀의 입에서 가늘게 새어나오는 탄성, 김산해를 친오빠처럼 허물없이 따르던 처녀의 탄성치고는 너무도 소심하고 연약했다. 그 탄성과 함께 입가에 피어난 미소는 또 얼마나 쓸쓸하고 가냘픈가 이 어설픈 미소는 중위를 몹시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옥이야, 이게 몇해만이나!》

김산해는 뚜벅뚜벅 다가가서 옥이를 덤석 그리안았다.

옥이는 갑자기 오두막앞에 풀썩 주저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아이들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중위는 그가 폭격에 희생된 아버지, 어머니와 오빠, 언니생각이 나서 통곡한다고 생각하였다.

《옥이야. 그놈들이 글썽 너를 혈혈단신으로 만들었구나.》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래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옥이는 꺾적 막히는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다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오두막안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처녀는 빨간 저고리 한벌을 들고 김산해의 앞으로 주춤주춤 다가왔다.

김산해는 그 저고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은 불안을 느끼었다. 비통한 오열 뒤에 옥이가 들고나온 인해의 빨간 저고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중위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오빠, 인해는... 인해는... 전사했어요!》

휘파람소리같은 흐느낌소리가 옥이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김산해는 두손으로 인해의 빨간 저고리를 와락 부둥켜안고 한참동안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토방돌우에 맥없이 주저앉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었다. 중위는 한참만에야 마음을 다잡고 옥이에게 물었다.

《언제... 언제 그렇게 됐니?》

《금년초야요. 하루는 사단군의소에 온몸에 붕대를 감은 인해가 실려오지 않았겠나요. 고지에서 부상병들을 구출하다가 그렇게 됐대지요 뭐. 열일곱명째 부상병을 업어나르다가 포탄파편을

맞고 쓰러졌다는거예요. 인해 사흘만에 잘못됐어요. 그 저고리를 나한테 맡기면서 〈난 오빠네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이 저고리를 입고 손을 흔들어주곤 했어. 오빠네 편대 비행사들은 모두 빨간 저고리만 보면 좋아했다누나.〉 하질 않겠나요 그리고는 눈을 감았어요.》

옥이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먼 남쪽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그럼 왜 여태 인해가 전사했다는걸 나한테 알리지 않았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가 전사했다는걸 오빠한테 알리지 말라구 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집생각을 하면 큰 일을 망칠수 있다면서... 어머니 오늘아침 군다수확농민열성자회의에 참가하려고 읍에 나가셨어요.》

《인해의 유언은 그것밖에 없었니?》

《있었어요. 나더리 전쟁이 끝난 다음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대신해서 파주집 딸이 돼달라더군요. 난 인해가 전사한 다음 전방방대소에 탄원해나가 싸우다가 중상을 당했어요.》

김산해는 누이동생의 체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빨간저고리에 얼굴을 파묻고 인해가 일생을 두고 아름답게 엮어온 백화같은 사연들과 일화들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한참동안 덤덤히 앉아있었다.

인해, 저 들판의 종다리처럼 철새없이 웃고 떠들고 노래부르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던 개암골의 말팔랭이, 하늘의 매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 대지의 인사를 보내던 파주집의 빨간새.

김산해는 인해가 없는 개암골을 한번도 상상해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중위의 눈앞에는 인해라는 빨간저고리대신 옥이라는 빨간 저고리가 서있다. 그 옥이가 인해를 대신해서 빨간 수건도 흔들어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어머니도 모시고있다.

얼마후 중위는 옥이와 함께 어머니마중을 나갔다. 그는 생전에 인해가 빨간 저고리의 원무를 펼치던 벌한가운데 서서 이마에 손채양을 붙이고 고향의 하늘을 명상에 잠겨 바라보았다. 포연을 말끔히 가시고 옛 모습을 다시 찾은 8월의 청청하늘, 그 하늘의 한쪽각은 인해의 몫이다. 암, 인해의 몫이구말구. 인해야, 내 앞으로도 저 하늘을 잘 지키마. 그는 입속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옥이를 앞세우고 계신장쪽으로 걸어갔다.

5년후 김산해와 옥이는 부부가 되었다.

중장 김산해의 집에는 지금도 인해의 빨간 저고리와 옥이의 빨간 저고리가 나란히 걸려있다.





## 로인의 미소

전찬기

해변가에 좋아라 뛰노는 아이들을  
로인은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네  
바다는 정다운 노래를 부르는듯 속삭이는듯  
끝없이 즐겁게 흥떡이네 철썩이네

파도 금방 씻어간 은모래불우에  
사뿐히 내려앉은 작은 물새발자국을  
부드러운 바람손이  
귀여웁다 쓸어보는 여기 송도원

머리칼이 모래불같이 하얀 로인  
얼굴엔 온통 뒤덮였네  
해수욕장 이 모래우에 덧찍혀있는  
수많은 발자국들처럼 엇갈린 살주름—

옷차림 단정한 로인의 가슴에선  
빛발쳐라 전승훈장  
꼬마들은 그 훈장 만져도 본다면  
그 미소와 훈장의 사연이야 어이 알랴...

애무 한껏 어린 로인의 미소는  
숭고함이 파도쳐 넘치는 미소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줄  
이제 저 아이들도 알 때 있으리

해빛은 금소나기를 붓고 바다는 넘실거리고  
생각깊은 로인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하네  
그 미소에 떠받들리는듯  
아, 청높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웨침소리...

## 영웅의 가슴

박상민

송개천기슭  
해방의 해토로 부드러워진 땅  
애국열 뜨거웁속에 살찌는 땅  
그 구수한 흙내음새  
그리도 달게 마시던 영웅

새삶의 노래  
배움의 즐거운 종소리에서  
행복의 날과 날을 호흡했던가  
**김일성**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공화국의 찬란한 래일을  
영웅은 가슴에 안고 꿈을 키웠더라

머슴살이 지겨웠던  
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다시는 잃지 않을 이 땅, 이 행복을  
아름다운 고향산천과 끝없이 속삭였던  
리수복영웅의 가슴

그 가슴에서  
봄싹처럼 자란것 무엇이던가  
그것은 한없이 소중한 내 고향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었다

그 행복이

영웅의 가슴에  
애국의 장서마냥 가득찼기에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바치는  
시. 시가 태어났거니

시가 끓는 가슴을  
끓을 총탄이 어디에 있고  
시가 끓는 가슴으로  
지키지 못할 땅이 어디 있으랴

세월은 멀리도 흘러  
영웅이 바라던 아름다운 희망  
영웅이 바라던 위대한 행복이 꽃피난 이 땅에  
지금 무엇이 울리는가  
무엇이 끓고있는가

아, 영웅의 가슴에서  
뜨겁게 울려나온 시이다  
원췌의 화점앞에  
서슴없이 내대인 영웅의 심장이 끓인  
조국과 함께 사는 시!

이런 영웅 어찌 죽는다 하랴  
이런 아름다운 시 어찌 영원하지 않으랴

## 로병의 고백

문선건

아들딸 다섯남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나서  
인제는 한시를 놓았다 했더니  
전연에 나간 내 막내아들  
원쑤들의 도발을 물리치고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는 소식  
한장의 전보가  
백발의 이 가슴 피끓게 하누나

내 왜 몰랐던가 싸움의 그날엔  
미제놈들 말끔히  
남해가에 처넣지 못한 후환이  
반세기 지난 오늘 또다시  
이처럼 내 앞에 닥쳐올줄을

한개 분대가 넘는 손자손녀들

그들도 모두 병사로 자라리라  
하나 내 원쑤의 씨앗을 남겨둔것으로 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지 못한것 아니던가

군기앞에 다진 선서  
다하지 못한 병사의 임무가 가슴을 찌다  
나는 아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사  
미제와 기어이 결판을 내야 할  
전쟁로병

아 전쟁로병  
다 잡지 못한 원쑤가  
눈앞에 있는 한  
세월이 백발을 없애주어도  
차마 늙을수가 없구나

## 숨쉬는 기둥

### —공병의 추억중에서—

권태여

전쟁의 불기둥이 솟구치던  
도하장의 밤  
허리치는 얼음장을 가르며  
끊어진 다리를 떠메고 선 전사  
말없는 기둥이 되어 굳어졌는가

사려문 입술, 부릅뜬 눈동자  
진격의 속도를 재촉하는가

가사

포차들이 굴러간다 남으로 남으로!  
전사가 부어준 숨결을 안고...

아 죽어도 휘지 않는 기둥이 되어  
원쑤격멸의 합성을 영생의 호흡으로 새긴  
공병대대의 나의 전우  
오늘도 이 가슴속에 숨쉬는 기둥이여

## 대동강에 묶여있는 간첩선

량원의

저 꼴 봐라 대동강에 묶인 간첩선  
오늘도 세상앞에 망신하누나  
백두령장 지락에 꼼짝 못하고  
동해에서 붙잡혀 예까지 왔네  
으하으하 으하하 날강도 미제야  
덤벼들면 몽땅 수장할테다

너도나도 갑관우에 올라서 보니  
미제숨통 딛고 선 기분이구나  
군대도 인민도 선군의 용사

승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으하으하 으하하 날강도 미제야  
덤벼들면 몽땅 수장할테다

꼴도 좋다 백여년전 불 탄 침략선  
그 자리에 묶이운 미제의 물골  
패배의 그 력사 이어갈수록  
최후멸망 함정속에 빠지고말리  
으하으하 으하하 날강도 미제야  
덤벼들면 몽땅 수장할테다

## 포화속의 노래

한찬보

### 공화국기 《중앙청》에 날린다

진격 진격이다  
남으로 남으로  
동두천전투, 의정부전투에서  
련전련승한 자랑찬 철갑부대  
기세는 충천 속도는 번개로다

우리 땅크 서울에 들어섰다  
시내에선 포를 쏘지 말라는  
수령님의 단호한 명령이 있어  
우리는 포 한방 날리지 못했다  
하여 시가전은 혈전에 혈전

피와 피의 대결을 하며  
힘겹게 진격하는 우리  
한시바빠 원쑤의 아성에 육박하여  
《중앙청》에 공화국기 날리는것  
이것이 우리의 임무!

아 드디어

공화국기 날린다  
해와 별 빛나는 저 기발  
서울 창공에 펄펄 날린다

그것은 압제를 끝장낸  
장엄한 선언의 표식이 아니냐  
순간 하늘땅에서 터진 함성  
《김일성장군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

해방된 도시에 메아리치는  
승리의 함성  
수령님 품에 안겨  
재난과 불행의 그늘이  
가뭇없이 가셔진  
인민의 세상 새 세상이어

(1950) 서울에서

### 오산에 올린 개가

오산! 여기는  
우리가 침략자 미제와  
첫 싸움을 벌린 곳  
우리와 맞다든 놈은  
미군 24사단의 선견대  
스미스특공대  
노르망디전선에서 악명떨친 악질

허우대는 커도  
속은 텅 빈 놈들  
그것들은 겁이 많은 비겁쟁이  
돈에 코를 꿰여 끌려온 그런것들이니  
우리 무엇이 두려웠으랴

전쟁의 승패는  
다른데 있지 않거니

정신이나 육체나  
우리는 수령님이 심어주신  
조선의 정신으로 싸운다

우리 중대엔  
입대나이전에 군복을 입은  
꼬마전사들이 적지 않았다  
허나 그들은 제 키보다 더 큰 총으로  
꼭다리양키를 호되게 족쳤다

그 손탁에 놈들의 지휘처와  
야전포진지가 거덜이 났다  
참호와 전호들은 수류탄에 목사발되고  
감시병놈들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도망 못친 놈은 포로가 되어  
두손 들고 벌벌 떨었다

하면서도 쉬이 수그러들지 않아  
어차피 해야 하는 백병전 백병전  
삶이나 죽음이나  
그렇게 오산의 원쑤 깡그리 없애려니  
우리도 힘에 겨웠다

그러나 미제와의 대결에서  
조선은 승리하였다  
승전의 개가 높이 올린

잊지 못할 오산  
그날 오산에 비가 내렸다  
그것은 미제가 흘리는 눈물

승리는 우리의것  
미제에겐 수치와 죽음뿐  
우리는 웃고  
미제는 울었다

(1950) 오산에서

## 땅크병과 보병

땅크병과 보병은  
가장 가까운 사이  
돌격선에선 더욱 그런것  
허물없는 그들 이야기를 나누네

—땅크병 친구  
우린 자네들이 부럽네

—그럼 입대할 때 애당초  
땅크병이 될걸 그랬네

—전쟁이 무슨 아이들 군사놀이인가  
땅크병이 되고프면 되고 보병이 되고프면 되구...

—그렇다면 우릴  
왜 그렇게 부러워하나

—그런게 아닐세  
그 병종이 부러운게 아니라  
앞으로 땀다 미는 그 기질

드센 배짱 씨원씨원한 성미  
원쑤를 무자비하게 깔아뭉개는 그 용감성  
그게 맘에 들어 그러네

—아니 우린 보병을 존경하네  
용감성을 말하면야 동무들을 당할자 없지  
이번 전투에서도 동무들이  
추격전을 벌려 적을 몽땅 소탕하고  
전투를 승전으로 결속하지 않았나

—아닐세 동무들이 앞장서서  
돌격로를 열어주었으니 우리가 앞장에 선거지  
전장에서 어찌 병종타발이 있으랴  
자기 병종에 대한 긍지가 없는  
그런 병사는 하나도 없네  
위훈에는 병종의 차이가 없는줄 아는 병사들  
수령님 전사라는 그 긍지로 하여  
하나로 싸워 승리하는 용사들이라네

(1951) 원암령기슭에서

## 전사의 길

전사의 길 이 길은 앞으로만 가는 길  
명령을 끝까지 목숨으로 지키는 길  
그 길엔 불도 물도 죽음도 있다  
하지만 전사는 다른 길은 모른다

이 길엔 거짓이 없어  
심장만이 통한다

참다운 인생의 값을 량심에 묻고  
조국과 함께 머리 들고 웃으며 가는  
가장 뜨겁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성한 길

아 누구나 쉽게 갈수 없는  
그 길이 바로 전사의 길이다

(1950) 평택을 지나며

## 승리의 축포여

전승의 축포가 오른다  
사람들은 너무 기뻐도 우는가  
이날 밤 우리는 울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광의 이밤에

우리 3년세월 이날을 위해  
얼마나 멀고 험한 길 헤쳐왔던가  
더운 피 뿌린  
결전의 언덕은 그 얼마며  
고지를 지켜 지새운 밤은 또 얼마라

잊을수 없어라  
서울 창공에 날린 공화국기발  
비에 젖은 오산의 결전장  
온밤 강행군으로 넘은 대전의 준령

락동강의 붉은 여울목이여  
포화에 낮아진  
1211고지 351고지여  
조국을 알게 하고 인생의 값을 알게 한  
천리전선길이여

그 길에서 우리 깨달았노라  
아껴야 하는것도 목숨이지만  
바쳐야 하는것도 목숨이라는것을  
피를 바쳐 귀중함을 더 잘 알게 되는것  
그것이 바로 조국이라는것을

그 철리 새겨안고  
**김일성**장군님 현명한 령도따라  
불속에서 목숨과 바꾼 우리의 승리  
내 어찌 노래하지 않을수 있으라

나의 노래 피로 지킨 노래여  
저 축포에 담아실고

추억의 꽃보라  
위훈의 꽃보라 되여 한껏 뿌려라  
하늘을 채워 온 세상이 다 바라보게

황홀한 밤하늘 쳐다보노라니  
우리결을 떠난 전우들이  
못건디게 못건디게 그리워져라  
그날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르며...

한강을 넘어서며 남해끝까지  
단숨에 진격해가자고 소리높이 웨친  
강계태생의 선동원이며  
제가 땅크병만 아니였어도  
사단장 띠늬를 잡았을거라며  
무척 아쉬워하던 홍안의 재령 꼬마

화선오락회때 익살로 판을 치던  
목청도 좋던 정평내기  
씨름판을 벌리면 힘장수로 소문내던  
키도 구척같은 평북운전사아바이...

정녕 그 꽃보라 하나하나가  
잊지 못할 전우들의 넋이 아니냐  
사랑하는 전우여  
그대들은 가지 않았다  
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더불어  
저 하늘의 위훈의 금별로 영생하고있다

축포여 승리의 축포여  
오늘의 이 영광 이 기쁨  
전우들과 인민들이 함께 나누도록  
더 높이 더 높이 올라 터지라  
패전을 모른다던 미제를 타승한  
영웅조선의 명절축포여  
평양의 아름다운 전승의 밤이여!

## 경구, 격언

- 시는 온갖 재능의 내적인 불이다
- 시인은 세계의 넋이다
- 시인은 후대들과 나란히 서자면 자기 시대를 앞서야 한다
- 생활이 문학을 따라나가는것이 아니라 문학이 생활의 방향에 맞게 변화되는것이다
- 자기 인민의 사랑을 받는것은 시인의 지상의 꿈이다!
- 작가의 문체는 그의 넋을 반영하지만 언어자료의 선택과 리용은 습작의 결과이다
- 작가의 안해는 결코 하나만을 리해할수 없다, 작가는 창문을 내다볼 때에도 일을 하고있다것을

##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최유일

나에게는 소중한 간직한 한장의 사진이 있다.  
유치원시절의 나를 안고있는 군관모를 쓴 아버지의 모습이 찍혀진 색날은 사진이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주 들려주곤 하던 잊을수 없는 이야기가 떠오르곤 한다.

나의 아버지가 세상에 태어난지 한살도 못되던 때인 주체39(1950)년 6월 미제는 신성한 우리 조국땅에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다.

그때 할아버지는 귀중한 조국땅을 지키기 위하여 용약 전선에 탄원했고 할머니는 후방에서 전선 원호에 나섰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 해방직후의 로동당원들로서 조국의 귀중함을 심장깊이 간직한 사람들이였다.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이 함주땅에 기여들었다.

원수들은 미쳐 후퇴하지 못한 당원들과 애국자들을 끌고 가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은폐시키고 뒤늦게 후퇴하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었는데 그때 아버지를 업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원수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향하여 미친듯이 총질을 일삼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총소리에 놀란 아버지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정신을 잃었다.

할머니가 온몸이 싸늘해진 아버지를 껴안고 놈들에게 항거하자 악귀같은 야수들은 할머니를 끌어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원호미를 감춘 곳만 대면 살려주겠다고 지껄이는 놈들에게 할머니가 추상같이 웨치자 살인마들은 할머니의 얼굴을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치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가져다댔다.

채찍에 할머니의 살점들이 묻어나고 피비린내가 고문장을 가득 채웠다.

놈들은 사람의 가족을 뒤집어쓴 승냥이였다.

할머니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자 아버지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교형리들은 《빨갱이》는 씨종자를 말리워야 한다고 하면서 의식을 잃은 할머니와 아버지를 차디찬 감방속에 발길로 차넣고 사형선고를 내렸다.

함께 갇힌 애국자들이 이 참혹한 광경앞에서 치를 떨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 아버지를 감싸안고

입김을 불어 아버지의 얼어서 부은 두볼을 녹여주었다.

그 간악한 인간백정들을 그대로 두고 할머니는 눈을 감을수 없었다.

《치안대》놈들은 다음날 할머니를 비롯한 당원들을 총살하려 하였다.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두주먹을 불끈 쥐며 원수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던 할머니와 애국자들은 인민군대의 재진격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원되었다.

후날 할머니에게서 이 뼈저린 과거사를 들으며 그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원한을 안고 아버지는 한생을 최전연에서 군사복무를 하였다.

계급의 총을 잡고 위대한 장군님과 조국을 지키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친 나의 아버지.

우려가 한시라도 손에서 총을 놓으면 다시금 원수의 노예가 된다고 준절히 일깨우던 아버지의 당부 안고 나도 조국보위초소에 섰다.

사진속의 아버지는 오늘도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듯 하다.

《아들아, 지금도 그날의 원수들이 우리 조국땅을 노리고있다. 미제와는 끝장을 볼 때까지 싸워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시력이 나쁘고 불편한 몸이었지만 선참으로 전선에 나가 그 도수높은 안경을 추스르며 락동강을 넘었으며 할머니가 원수들과 맞서 로동당원의 신념을 지켜 곳곳이 싸웠는가를.

그리고 아버지가 한생 군복을 입고 총과 함께 조국수호의 길에 삶을 빛내였는가를.

그렇다,

수호자의 대가 즐기차게 이어져야 이 땅의 행복의 대도 영원히 이어질수 있기에 오늘은 내가 계급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주고 복무의 길을 걷고있다.

우리 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원수를 잊는다면 전 세대들이 당한 그 피눈물나는 불행과 고통의 력사가 되돌아온다는것을.

나는 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조국보위초소를 철벽으로 지켜갈것이다.

## 풍자해학적감정으로 충만된 전시가요들을 더듬어

신정수

가렬처절했던 지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전시가요들가운데는 반미대결전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한 생활적인 가사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해방의 기쁨으로 행복하고 민주건설의 보람으로 환희롭던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저주와 증오의 감정, 전쟁승리에 대한 혁명적락관 등을 통제한 풍자해학적형상을 통하여 노래한 작품들이 이채를 띤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풍자문학도 발전시켜야 한다.》**

풍자해학적감정으로 충만된 전시가요들은 미제에 대한 신랄한 풍자적형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혁명적락관과 전투적기백을 북돋아주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전시가요들인 《저격수의 노래》(리선을, 1952), 《비행기사냥군조의 노래》(리선용, 1952), 《습격조의 노래》(리선을, 1951), 《썩새기와 기관사》(최창섭, 1952), 《우리의 자랑》(심봉원, 1953)등이 바로 그 대표작이다.

풍자해학적감정으로 충만된 전시가요들의 특징은 우선 혁명적락관과 전투적신심에 넘친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정서가 원쑤에 대한 칼날같은 저주와 증오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앙양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풍자시의 서정적주인공들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저주와 증오에 넘쳐있다. 원쑤에 대한 저주와 증오는 풍자시의 서정적주인공의 성격에서 핵을 이룬다. 따라서 풍자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이 체현하고있는 불타는 저주와 증오로써 원쑤의 흉악한 물골을 여지없이 《태워버리》는 형상이 펼쳐진다. 이것은 풍자문학일반의 형상생리적 요구이다.

그러나 풍자해학적감정으로 창작된 전시가요들에서는 단순히 원쑤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감정만을 직선적으로 펼쳐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전시가요들에서 추악한 미제원쑤들에 대한 저주와 증오는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생활에 대한 락관과 혁명적락관, 전투적기백을 안겨주는데 철저히 복종되였다. 때문에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세계도 이러한 감정정서로 충만되어 있는것이다.

이때에 풍자해학적인 감정정서는 혁명적락관과 전투적기백으로 특징지어지는 서정적주인공의 특

특한 서정세계의 근처에 놓이면서 그의 충분한 생활적바탕으로 된다.

전시가요 《비행기사냥군조의 노래》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양철날개 까딱대는 양키비행기  
한눈 감고 방아쇠를 슬쩍 당기면  
영낙없이 백발백중 불덩이 된다  
이놈이지 이놈이야  
우리 마을 불을 지른 그때 그놈이  
요놈이지 요놈이야  
어린것에 총질하던 어چه 고놈이  
이제야 알았느냐 못된 놈아  
우리는 비행기사냥군조다

...

계속하여 노래에서는 병원과 학교, 평화적인 우리 인민이 사는 아무곳이나 불을 지르고 총질을 해댄 원쑤놈들의 비행기를 통쾌하게 사냥하는 용감한 사냥군조의 혁명적이고 락관적인 정서를 훌륭히 노래하였다. 이러한 생활적형상은 민주의 새 봄빛이 완전하던 우리 조국을 재더미로 만든 미제놈들에 대한 칼날같은 저주와 불타는 증오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러나 단순히 원쑤들을 조소하고 야유하며 풍자하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한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발현되는 전승의 신심에 넘친 서정적주인공의 성격의 핵을 긍정하고 사람들에게 혁명적락관과 전투적기백을 북돋아주는것으로 의의를 가진다.

결국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저주와 증오에 기초한 풍자가 통쾌하고 신랄할수록 그것을 통하여 서정적주인공의 혁명적신심과 락관, 전투적기백은 더욱 고조되게 된다.

이처럼 풍자해학적전시가요들에서는 서정세계의 근처에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저주와 증오의 감정을 깔고 신랄한 풍자적모습을 펼쳐보이면서 그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서정적주인공의 전쟁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락관, 끝없는 생활량만을 노래하였다.

풍자해학적감정으로 창작된 전시가요들의 특징은 다음으로 노래되고있는 생활내용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작품들은 서정적주인공으로 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원쑤들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동이 트는 새벽길에 찬바람 찬바람 헤쳐가며  
살금살금 적구를 기어 위장을 하고 숨으면  
나타났다 나타났다 미국놈의 대가리  
지그시 한눈 감고 방아쇠를 당기면  
저놈 봐라 저놈 봐  
팔라에 눈이 멀어 숨이 지는 양키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우리는 명사수라 이름난 부대의 저격수  
미국놈사냥에 신바람나네

...

전시가요 《저격수의 노래》1절에서는 은밀히 적 구로 들어가 미제놈들을 쏘아잡는 용감한 저격수들의 전투이야기를 노래하였다. 동이 트는 첫 새벽에 찬바람을 맞으며 살금살금 적구로 들어간 용감한 저격수는 위장을 하고 숨어있다가 《미국놈의 대가리》를 통쾌하게 명중하였다.

썩썩기눔 어데선가 갑자기 나타나  
기차를 보더니 사격을 하였네  
에이 흥한 놈 에이 흥한 놈  
에이 흥한 놈 저놈을 끌려주지  
저놈을 끌려나 주지  
끌려나 주어라 끌려나 주어  
기관사 못본듯이 끄떡도 않고  
거세인 속력으로 그냥 내닫네 기차를 모네

썩썩기눔 분한듯이 다시금 떠돌아  
로케트포화를 내려퍼붓네  
에이 바보놈 에이 바보놈  
에이 바보놈 어디 포를 갈기나  
어디 포를 갈기나 어디 포를 갈기나  
기관사 제동기를 힘주어 잡고  
쏜살같이 굴궐 향해 가깝변 당겼네

썩썩기눔 미친듯이 쏜살로 내려쫓다  
전선줄에 코박고 산산이 깨졌네  
에이 청맹과니 에이 청맹과니  
에이 청맹과니 골탕을 먹었구나  
골탕을 먹었구나 골탕을 먹었구나  
기관사 번개같이 주름을 잡아  
오늘도 무사고로 기차를 모네

전시가요 《썩썩기와 기관사》에서는 전시수송길에 나선 기관사가 미군놈비행사와 벌리는 전투이야기를 펼쳐보이고있다.

이처럼 풍자해학적감정으로 충만된 전시가요들

에서는 서정적주인공에 의하여 원쑤들이 풍자적물결로 변하는 내용을 시적이야기로 하고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야기전개의 특징은 긍정적주인공과 풍자적대상과의 대결이 치열하고 예리하며 간고하지만 궁정이 겪는 시련과 엄혹한 체험이 아니라 원쑤들이 겪는 처참한 패배와 악에 반친 심리를 야유적으로 그려주는데 서정적묘사의 초점이 돌려지고있으며 긍정적주인공(서정적주인공)의 심리정서를 시종일관 통쾌하고 랑만적인것으로 끌고나간다는것이다.

풍자해학적전시가요들의 특징은 또한 양상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가사의 양상은 단순히 풍자해학적인 색채라고만 단정할수 없다. 물론 형태적특성에 맞게, 생활모습의 특성에 맞게 풍자해학적인 양상을 뚜렷이 살리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풍자해학적감정으로 노래된 전시가요들에서 생활의 본색, 즉 양상의 기본은 혁명성, 전투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락관적이며 랑만적인정서에 있다.

전시가요 《습격조의 노래》에서 기본양상은 용감한 인민군습격조원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녹아나는 미군놈들의 풍자적모습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원쑤들의 처참한 물결앞에서 통쾌해하며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다듬는 서정적주인공의 락관적정서속에 있다.

노래에는 어리석고 불꽃없는 미군놈들에 대한 통쾌한 풍자적감정이 짙게 흐르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전투정황속에서도 두려움이나 순간의 주저도 모르는 용감한 습격조원들의 전투승리에 대한 혁명적락관을 더욱 북돋아주는데로 조화롭게 통일되었다. 이 노래에서 양상의 기본을 살린 생활의 본색은 놈들의 풍자적물결이 아니라 놈들을 그렇게 되게 만들고 통쾌하게 관망하면서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는 인민군전사들의 락관적인 감정정서에 있다.

풍자해학적감정으로 충만된 전시가요들의 특징은 끝으로 역설적이고 야유적이며 과장된 어휘표현들과 속어들이 아무런 무리없이 리용되는것이다.

《가짜대는》, 《요놈》, 《고놈》, 《못된 놈》, 《야수같은 놈》, 《미국놈사냥》, 《대가리》, 《양키》, 《흥한 놈》, 《바보놈》 등을 비롯한 표현들은 다 속되거나 야비하고 얄잡아 대하는 어휘표현들로서 풍자해학적감정으로 충만된 전시가요들의 형상세계를 훌륭히 장식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미제에 대한 통쾌한 풍자를 통하여 혁명승리에 대한 전투적락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이런 노래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반미대결전을 벌리는 오늘의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미제에 대한 풍자해학적감정으로 충만된 생활적인 가사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 무산의 하늘

김윤걸

## 1

수백리 뽕뽕히 뻗어간 산줄기가  
어깨걸고 하늘을 가리운 곳  
발파소리, 대형차의 동음소리 우렁찬  
약동하는 무산이여  
네 아래 서면  
내 마음의 하늘은 왜 이리도 넓어만 지는것이나

그 누가 알랴  
예가 바로 그 옛날  
광부의 피타는 한숨이  
먹장구름마냥 산봉우리마다 걸려  
하늘을 가리우던 무산인줄

처자의 운명  
애오라지 시커먼 질통에 걸머지고  
숨가빠 뿔아뿔아 올라도  
울분서린 가슴에  
하늘이 안보이던 곳

고역에 지쳐  
광석우에 숨진 남편  
정없는 산천에 묻으며  
땅을 치며 망국의 세월 저주하던  
막바지 너인의 애끓는 울음소리에  
한줄기 호곡의 비라도 쏟아줄  
한조각 하늘조차 없던 방

보아라 그 산천우에 펼쳐진 푸른 하늘을  
신호수처녀의 빨간 기발에 떠실려  
한껏 푸른 저 하늘  
《무사고주행》천리를 웃음속에 함께 달리는  
부부운전사의 저 차창에도 희망으로 밝게  
비졌구나

가없이 푸르른 저 하늘을 주시려고  
우리 수령님 찍으신 헌신의 자욱자욱이  
산발마다 뜨겁게 어려와  
눈뿌리 후더웁게 안겨드는 무산이여

일제가 파괴한 광산폐허의 아픔보다  
채찍에 피멍이 든 광부의 어깨우에 내려앉는  
쇠돌가루를  
더 아프게 마음속에 안아보신  
우리 수령님의 사랑에 떠받들려  
저 하늘이 열리지 않았더냐

어둑컴컴하던 무산에 푸른빛 비쳐들지 않았더냐

한톤의 광석이 귀중하던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도  
우리 수령님 먼저 지어주신  
광산마을 학교와 집집의 처마가  
희망의 푸른빛 되어  
저 하늘을 물들이지 않았더냐

다심한 그 사랑은  
자욱자욱 우리 마음속 가까이 자리잡았고  
무한한 그 사랑은  
자욱자욱 아득한 저 하늘에 닿았구나  
아, 수령님 한평생이 펼쳐준  
로동계급의 하늘 무산의 하늘은  
가없이 맑고 푸르다!

## 2

두번다시 가리울수 없는 저 푸른 하늘을  
영영 없애려고  
고난의 나날 원썬들은 얼마나 발악했던가  
핵전쟁의 검은 구름으로  
우리 수령님 펼쳐주신  
인민의 저 푸른 하늘을 무너뜨리려고 날뛰었다

무산의 숨결, 로동계급의 숨결이 멎고  
신념의 기둥이 무너져  
끝끝내 저 하늘이 꺼져내리리라고  
원썬들은 시간표까지 짜보며 기다리고있었다

무산광부들의 마음속엔  
수령님 주신 사랑과 믿음이  
하늘이 되어 언제나 펼쳐져있었으니  
가없는 그 사랑아래 그 믿음아래  
어찌 다른 길이 있을수 있으랴

그 푸른 하늘을 지켜주시려  
온 한해 전선길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 안녕을 바라며  
불비 쏟아지는 원군길인양  
아버지가 오르던 철산봉으로  
아들이 올랐다  
남편들을 따라 안해들이 올랐다

무산의 숨결은 멎지 않았다  
고난속에 그 숨결 더 억세졌나니  
원썬들을 끌어앉히며  
발파소리 산천에 메아리쳤다  
원썬의 머리우에 들보는 돌사태가 되어  
낮에도 밤에도  
락광정에선 광석이 쏟아져내렸다

우리 장군님  
전선길 이어 무산에 오셨던 그날부터  
저 하늘은 더 맑고 푸르려  
북방의 강추위속에 옷자락 날리시며  
환히 웃으시던 장군님의 미소가  
아득한 철산봉 저 우에서  
해살되어 향시 쏟아져내리거니

이보다 더 푸른 하늘을  
무산의 광부들은 알지 못해라  
이 하늘아래서  
위훈으로 지새운 밤 행복이 되고  
창조의 열매는 조국의 자랑되여라

이 하늘아래서  
광석은 폭포처럼 쏟아지고  
내뺨치는 조국의 무진장한 힘인양  
벨트콘베아에 실려가는 광석의 흐름은 거세차다  
이 하늘아래  
조국의 위용을 떠받드는  
억년 드눌지 않을 무쇠기둥이 솟는다

아, 무산이여 무산이여 너는  
치솟은 봉우리마다  
강성대국의 푸른 하늘을 떠이었다  
가장 넓고 푸른 하늘을  
조국의 무궁할 미래를...

## 돌격대거리

누가 먼저 불렀던가  
골안가득 처마와 처마를 이은  
돌격대의 이 보금자리를  
그 이름도 멋스럽게 돌격대거리라고

이웃은 함박이요  
길건너는 평복이라  
온 나라 도, 시, 군이  
의종게 들어앉은 돌격대거리

지붕마다  
제 이름을 새겨안고  
휘날리는 붉은기가  
명칭없는 이 거리의  
주소이며 문패라고

어쩌다 휴일의 한때이면

차표없이  
온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이 거리를 거닌다네

인심 후한 《평남》이며  
맘씨고운 《강원》지나  
쌀고장으로 이름난  
《채령》, 《웅진》문어구를 지날 때면  
구수한 밥내부터 다르다네

그 어이 지나치라  
옛적부터 미인의 고장이라 소문난  
《강계》의 대문가를  
얼굴곱고 일손고운 강계처녀 맘에 둔 그날부터  
언제나 《처가집》동네에 들어서는 기분이라네

맞아주고 바래주는  
말씨와 인정은 서로 달라도  
백두산을 삶의 지붕으로 이고 사는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모이고모여  
구역울 이루고 거리를 펼친  
돌격대의 이 거리

백두산을 굽이돌며  
이사도 그 몇번  
빨찌산의 천막처럼  
순간이면 일떠서고  
순간이면 자릴 터는 거리이건만  
곳곳마다 행복을 낳고 기쁨을 낳는  
창조의 거리!

## 문용철

삼수라 골도 깊은 이 산천에  
두른 호수 출렁이고  
물새들 날아드는 그날이면  
아 우리의 땀이 어린 추억많은 이 거리는  
눈부신 발전소의 새 거리로 남으리라

## 유모아

## 동정심

불쌍한 사람이 백만장자를 찾아와 자기의 신세를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의 가난을 생동하게 이야기하여 부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애썼다.

이야기를 듣는 부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 흘러내리었다. 부자는 급히 하인을 찾아 울먹이며 말했다. 《존, 이 사람을 밖에 내쫓게나. 가슴 아파 더 못듣겠네.》



1

…좁이 벌게 아지를 친 벼포기들이 그쫘한 논  
배미들과 풀 한대 없는 강냉이밭과 콩밭 그리고  
앞그루감자와 밀보리밭 어데든지 다 가보라.

농사란 하루이틀에 마음먹은대로 채색해놓을수  
있는 그림그리기가 아니다. 두엄을 장만하고 씨  
앗을 물을때부터 오랜 나날 땀과 노력을 바쳐야  
만 이처럼 아름다운 화폭을 얻을수 있는것이다.

분조의 로력구성상태나 논밭면적, 영농조건과  
농기계수단, 비료공급정형을 따져보아도 남다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잘 모르긴 하겠지만 비  
결은 다른데 있지 않을것이다. 분조가 단합된데  
있을것이다. 분조원들을 단합시켜 농사일에 한사  
람같이 떨쳐나서게 하는것이 분조장의 첫째가는  
임무이며 분조농사의 선결조건이라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의 이 말은 이렇  
게 끝났다.

방식상학에 참가한 군안의 각 협동농장 분조장  
들의 눈길은 오늘 농작물비배관리방식상학을 진  
행한 분조의 분조장한테서 떨어질줄 몰랐다.

보통을 넘는 키를 더 돋구어주는듯 한 탄력있  
는 두어깨, 모가 난 얼굴에서 항시 앞을 주시하  
고있는 눈빛…

어떤 경우에도 평시의 자세를 흐트러뜨릴줄 모  
르던 30대의 제대군인출신 분조장 석천일은 술한  
사람들앞에서 지나친 평가를 받는데 싫어 몸가짐  
이 웅색해졌다.

방식상학참가자들을 태운 버스와 자동차들이

변창률

떠나간 뒤 해질무렵의 기다란 그림자를 드리운  
백양나무밑에 서있던 한 나이지속한 분조장이 자  
전거를 끌며 다가와 천일에게 말을 건네었다.

《농사초기에 이런 작황을 마련하기란 정말 험  
치 않은데… 참, 여기 작업반에 오춘순이라고 있  
지 않소? 3년전에 이곳을 떠나갔다가 작년에 다시  
돌아온…》

《지금 우리 분조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한데?  
…》

《어쩐지 그럴것같다 했더니… 본가집에 와있는  
동안 그가 우리 분조에서 일했소. 늘 우리 분조.  
우리분조장 하더니만. 그가 왜 도루 가고 말았는  
지 이제 알만하오.》

《?…》

그 말은 천일에게 있어서 참으로 뜻밖이었다.

다름아닌 분조장 자기에 대한 원망을 안고 본  
가로갔던 오춘순이가 아니었던가?

《가을에 내 분조원모두를 데리고 견학을 오겠  
소. 농사경험도 배우고 오춘순이도 만나볼겸 …》

자전거를 타고 멀어져가는 그를 바래우는 천일  
의 눈앞으로 오춘순이가 떠나던 때의 일이 밝혀  
왔다.

오춘순의 남편 최도철은 천일이와 중학동창이  
였다. 작업반 프락뜨르운전수였던 그는 안해와  
금술이 유별나게 좋아 오춘향이와 최도령이라고  
할만큼 깨가 쏟아지게 살았다. 그런데 최도철이  
불치의 병으로 사망하자 젊은 나이에 뜻밖의 불  
행을 당한 오춘순은 오누이자식을 데리고 천일  
네 분조로 옮겨왔다. 아마 분조장이 남편과 가  
까운 사이였으니 여러모로 의지하고싶었을

것이였다.

동그란 얼굴에 여무진 눈빛을 가진 오춘순은 사리에 맞는 말만 했고 일숨씨 또한 여무져서 누구한테 흠잡힐 일이라고는 털끝만치도 하지 않았다.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일 잘하던 그가 별안간 분조를 떠나갈줄이야...

삼년전 결산분배를 앞둔 때였다. 초급일군모임에서 작업반 통계원은 오춘순을 년간 최고로력수 득자로 추천한다고 발표했었다.

천일이로서는 예상밖이어서 따지고 들었다.

《우리 분조에서는 선동원이나 김삼실아주머니가 앞자리인데 어떻게 오춘순이가 1등이요?》

통계원이 타협조로 사유를 설명했다. 그의 시어머니가 농사일을 도우면서 번 공수를 머느리한테 올려주었다는것이였다. 머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오춘순을 동정하는 못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스쳐지날수 없었다.

《안됩니다. 사실그대로 평가해야지. 그 어떤 인정을 섞어서야 안되지요. 모두가 믿을수 있게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결국 오춘순은 뒤자리로 밀려났다.

며칠후 작업총화뒤끝에 오춘순이 천일에게 따로 만나자고 하는것이였다.

《전 래일부터 여기 농장원이 아니니 찾지 마세요. 농사일을 하기야 아무데서나 마찬가지로 여가서 마음고생까지 할 필요야 없지요.》

갑자르는 기색 하나 없이 너무도 혼연히 내뱉는 소리에 천일은 눈만 커졌다.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어 따라가보니 이불장과 찬장, 그릇가지들을 실은 달구지가 떠나가고있었다.

《머느리 보내는 설음이 더 크다더니... 내가 외로울가봐 이 애들을 내놓고 가누만. 한데 분조장, 우리아메미가 왜 갑자기 떠나가나?》

천일은 둔중한 물체에 얻어맞은것 같은 충격에 머리를 흔들었다.

《모른다구? 그것두 모르면서 무슨 분조장인가? 분조장같이해야 누군들 마음을 붙이겠나. 너무할세, 너무해...》

그리니 전번 결산분배공수문제때문에?! 그것이 그렇게도 속에 맺혔는가?...

그렇게 떠나갔던 오춘순이가 웅근 두해만에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돌아왔다.

벼랑상모판에 첫 씨앗을 뿌리던 날, 땅에 떨어지는 씨앗을 보며 마음이 어지간히 들떠난 분조녀인들이 오춘순에게 말했다.

《...우린 영영 가버린줄 알았지? 왜 여기만 못하던?》

《...》

《못하지 않구. 쓰던달던 저 살던데가 낫지 아이들 앞날을 봐서두 그렇구...》

40대의 중년인 신창옥이 제사 다 안다는듯 흰자위많은 큰 눈을 겁적이며 오춘순을 보았다.

《알기두 잘 아누만요. 자, 박막이나 씌우지요.》

오춘순은 빨가닥거리는 새 비닐박막의 한끝을 신창옥의 손에 쥐여주며 반대편으로 벌어져갔다.

《아픈 매를 맞으면서두 제살고싶은데가 있는 법이지. 오춘순이가 눈 하나는 바로 배겼어. ...》

분조의 좌상적인 선우영국아바이가 박막 물을 흠을 짜나가며 하는 소리였다.

오춘순이 분조배치를 받을 때 꼭 3분조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것을 천일은 후에야 알았다. 침을 뱉고 떠나갔던 그가 왜 부디 3분조로 돌아왔는지 누구도 몰랐다. 흠금을 터놓고 사연을 듣자고 하기엔 그의 태도가 너무도 랭랭했다. ...

그러니 오춘순이가 단합되어 일이 잘되는 분조이기때문에 되돌아왔다는건가?

단합된 분조라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분조앞에 맡겨진 일을 드림없이 해나가야 할것이다.

그런데 우리 분조는... 사소한 문제를 놓고도 사사건건 시비를 가르느라 때없이 얼굴을 붉히고 별치않은 일에도 승벽심이 살아올라 열을 올리고 하는통에 조용한 날이 별반 없었다. 무슨 일이든 와와 웃고 떠들며 불이 번쩍나게 해치우는것도 3분조요. 모임이나 작업총화때 언쟁소리가 제일 높은것도 3분조였다. 출력이 높은 고정기처럼 항상 소리가 크게 울리는 3분조였다.

그런데 포전길 하나를 사이에 둔 4분조는 어떠한가.

분조원들은 웃을 때도 히죽이 웃고 성났을 때도 좀해서는 큰소리를 칠줄 모르는 분조장을 닮아서인지 모든 일을 될수록이면 소리없이 해나간다. 어찌다 말썽거리가 생겨도 모래무지에 부은 물처럼 조용히 잣아들뿐 《불협화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들은 분조장이 없어도 일감을 스스로 찾아 《할만큼》하고 작업총화도 저희들끼리 병어리 떡 노나먹듯 오손도손 짓는다고 했다.

두 분조가 같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벼와 강냉이처럼 이렇듯 대조적인것은 무엇때문인가.

구태여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녀자로력구성이 류다르다고 해야 할지... 리소재지작업반에 속해있는 3분조에는 농호세대가 아닌 녀성농장원들이 적지 않다. 리병원 원장의 안해, 철도역 운전지휘원의 안해, 중학교 교원의 안해도 둘씩이나 있다. 농호세대인 경우에도 세대주들은 관리위원회나 편의, 기계화반에 다니고 가족들만 농산반에서 일하는 실례도 있다. 군당에 있다가 지난해 가을 이곳 농장으로 온 리당비서의 안해도 3분조 농장원이다. 분조원의 과반수가 녀성로력이다. 개개를 따져보면 하나같이 나무랄데 없는 일군들이지만 그만큼 웬만한 손탁이 아니고서는 《그러 쥐기》가 험치않았다.

이런 실태가 분조일에 불리한점도 있었지만 유리한점도 못지 않아 남다른 조건이라고는 할수 없다.

하다면 3분조가 《편안치 못한》 것은 분조를 책임진 이 석천일의 탓인가?

## 2

기복이 느린 서쪽산마루로 하루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천일은 분조원들이 일하고있는 솟돌모루 강냉이 밭으로 향했다. 방식상학때문에 하루일을 분조장대리인 윤철이에게 맡기긴 했으나 그냥 돌아서게 되지 않았다. 윤철이가 오늘 작업총화를 제대로 짓겠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제 저녁 분조에서는 미진된 부분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출근시간을 좀 앞당기기로 했다.

오늘아침 대다수의 분조원들이 정한 시간보다 앞당겨 밭머리로 나왔다. 리당비서의 안해인 안봉녀가 나오자 시간이 되어 작업을 시작했다. 그뒤로 신창옥이와 또 한사람이 조금 늦어 일터로 나왔다. 그 무렵에 천일은 방식상학시간이 되어 일터를 떠났다. 밟고 끊는데가 없어 천일이한테 가끔 따끔한 소리를 듣곤 하는 윤철이가 그것을 정확히 총화하겠는지 알수 없었다.

둔덕우에 무성한 뽕나무밭이 가까와오자 천일은 밭걸음이 저절로 떠졌다. 설사 윤철이가 그쯤이야 하고 그냥 지나친다 해도 이왕 믿고 맡긴바에야... 더구나 분조가 굳적인 방식상학대상이 된 오늘날은 날 크게 늦어진것도 아닌데...

어제 저녁 안해가 하던 말이 떠오르자 그는 아예 멈춰서고말았다.

《제발 성격 좀 죽이세요. 일을 하느라 제 생각대로 안될 때도 있는 법인데 거슬리는것마다 꼭꼭 잡아뜯으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분조일을 혼자 하는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일만 해도 그렇지요. 난 얼마나 웅색하던지...》

안해가 말하는 《오늘 아침일》이란 뒤집에서 사는 김삼실아주머니로 해서 생긴 일이다.

어제 새벽 천일은 간밤에 내린 비에 논두렁이 무사한가를 돌아보려고 논벌로 나갔다. 비내린 뒤의 개인날은 대체로 그러하듯이 논벌은 길은 안개속에 잠겨있었다. 규격화된 논배미들에서는 이슬을 함뱉 뒤쓴 벼포기들이 안개의 애무를 받으며 해뜨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미끄러운 논두렁을 조심히 밟으며 갓 모내기를 한 모판자리 논배미에 이르렀을 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좌락좌락 논물을 헤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하여 그쪽으로 다가가던 천일은 무춤 굳어졌다. 논두렁에 미끄러진 신발자리가 나있는데 금시 땅겉데기를 뚫고 대가리를 내밀던 콩 몇포기가 문드러져있었던 것이다. 밭이 지쳐내린 두렁밧의 벼포기들도 한열으로 자빠져있었다. 천일은 대번에 낫색이 컴컴해졌다.

《콩을 짓몽개놓는게 누구요? 벼포기들을 짓밟고 돌아가는게 누군가 말이요?》

신발을 신고 장관방을 돌아치는 철부지를 꾸짖듯 천일은 기겁하여 소리쳤다. 이런 일을 방지하자고 어제늦도록 김매기를 하느라 신고를 했는데 누가 새벽부터 돌아가며 곡식포기를 짓밟는가?!

논판에 굳어진채 서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김삼실이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벼모춤이 들려있었다. 모살이가 끝난 논에 모춤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어제 애벌김을 매면서 보니 이 배미에 빈포기들이 더러 있길래... 한시간이라도 늦으면 그만큼 소출이 떨어진다는 생각만 하면서 덤비다니니 그만...》

천일은 불시에 혀가 굳어졌다.

마지막모내기를 하는 날 어둡기전으로 보식작업까지 하다나니 빈포기가 더러 생긴 모양이다. 분조장도 미처 살피지 못한것을 바로 잡자고...

《그렇다고 곡식을 못쓰게 해야 안되지요. 아주 머닌 덤비는게 탈이라니까요.》

천일은 콩포기며 벼포기들을 손질해놓고 자리를 떴다.

이것을 일터로 나오던 안해가 띄어본것 같다. 일을 찾아서 하던 노릇이 방금 싹트는 콩 몇포기때문에 추궁받는것이 보기가 딱했던 모양이었다.

《...사람을 알아본 다음에야 왜 그렇게밖에 말 못하나요? 그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4분조장 같은 온 농장에 소문내자고 했겠는데...》

《그렇다구 잘한다고 칭찬할수야 없지 않소?》

《그래두 주의하세요. 분조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줄줄도 알구 그들을 위해줄줄도 알아야지요. 그제 없으니까 오춘순이처럼 간다온다하면서 복잡한 일이 생기지요. ...》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분조가 합심이 되겠어요?》

(분조원들을 위해줄줄 모른다고? 하다면 어떻게 대해주는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것인가?)

천일은 안해의 말이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

잠시후 천일은 뽕밭둔덕에 올라섰다. 저아래 강냉이밭과 물도랑이 린접한 비탈진 뚝에 분조원들이 모여 앉아있었다. 작업총화를 짓는중이었다.

《...이렇게 누구라 할것 없이 모두가 수고들 많았기때문에 최고점수로 평가합니다.》

윤철이 혈색좋은 등실한 얼굴로 분조원들을 둘러보았다.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다

《매일작업은 철길넘어 연자돌트리 강냉이밭김매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만, 이름은 안부르나? 총화야 명백해야지. ...》

풀을 뜯고있는 부림소의 고삐를 잡고있던 선우영 국아바이가 하는 소리였다.

윤철은 그제야 잊었었다는듯 이마를 툭 치며 종이장을 펼쳐들었다. 종이장이 아니라 분조원들의 기색을 살피며 뜬금으로 내리외었다.

《...오늘은 이만합시다.》

했으나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모임이 또 있길라도 한듯 묵묵한 표정들이었다. 나중에 엉거주춤 일어서던 삼실이 천일을 띄어보았다.

《저기 분조장이 와요.》

뒤따라 일어서던 사람들도 다시 앉았다. 어떤 녀인은 보자기같은것을 깔고 편안히 앉았다. 선우영국아바이도 슬금슬금 다가왔다.

《아니, 총화가 끝났는데 왜들 그래요?》

윤철이가 불만을 터뜨렸다. 자기의 존재가 무시당한듯 싶어 기분이 잡친 모양이다.

물도랑의 풀덤불속에서 토끼풀을 골라뜯느라 앉은걸음을 하며 여기저기를 기울거리던 신창옥이가 머리를 들었다.

《언제 총화를 짓거나 했게?》

《아주머닌 귀가 정전인가요? 뭘하고있다가...》

윤철의 언짢은 소리에 선우영국아바이가 대꾸했다.

《신창옥인 분조장이 총화짓는걸 듣구싶은게지.》  
아닌게 아니라 그것을 원했는지 신창옥의 눈길 이 천일이한테서 떨어질줄 몰랐다.

《자요, 분조장이 다시 지으랴요.》

윤철은 총화일지를 넘겨주고 한옆에 주저앉았다. 일지를 들여다보던 천일은 그가 왜 작업총화를 어물쩍 해버렸는지 짐작이 갔다. 거기에는 방금 들은것과는 달리 매 사람별로 일터에 나온 시간과 작업실적, 그에 따르는 로력공수가 빠짐없이 기록 되어있었다. 시끄러운 언쟁을 피하자고 그리고 오 늘만은 모든 사람들이 너그러이 이해할것이라는 생각에서 좋은 말로 총화했었던가.

하지만 신창옥에게는 두리몽실한 총화가 곧이 들릴리 만무했을것이다. 아침에 몇걸음 늦어나온것을 분조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꼭 알고싶었을것이다. 어찌 그 하나의 심정뿐이겠는가.

천일의 눈길이 분조원들에게 향했다.

질어가는 노을빛에 붉게 상기되듯 싶은 분조원들의 모습이 천일을 지켜보고있었다.

뒤쪽 한옆에 앉은 오춘순만이 고개를 숙인채 다래끼안의 토끼풀을 뒤적이고있었다. 손끝이 여무진 그가 제손으로 뜯어넣은 풀속에서 열변을 뒤적여도 딱일 하나 골라내지 못할것이다. 하다면 저 모습은 무관심인가?아니면 결말을 두고보자는 속심의 은폐된 표현인가? 명백한것은 작업총화가 그의 관심밖으로 될수 없다는 그것이였다.

천일은 갑자기 등뒤로 땀이 흐르는듯 한 감을 의식하며 심호흡을 했다.

매 사람별로 출근시간을 준수한 정형을 불러주 고났을 때였다. 맨 앞에 앉아있던 신창옥이가 나란히 앉은 삼실의 옆구리를 툭 쳤다

《이자 분조장이 내가 지각이라고 했지?》

삼실은 알릴듯말듯 고개만 끄덕였다.

신창옥의 큰 눈이 곧바로 천일에게로 날아들었

다.

《내가 지각이란 말이에요? 앞사람이 발머리에 착 마주 앉을 때 뿔발뚱덕에 착 올라섰는데...》

《아주머니, 그 순간에 시계바늘도 착 멎어서야 하는데 발으로 내려오는 사이에도 착착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각이지요.》

윤철이가 머리를 기울이며 시계초침이 돌아가는 흉내를 내었다.

《저기말은 듣기도 싫수다. 그렇다면 왜 방금전엔 지각이라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었나요?》

신창옥의 말에 윤철은 얼굴이 시뻘개졌다.

《소고삐 한기장만큼 떨어진것도 지각이라니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칠천평짜리 밭을 옹근 하나 지나왔는데 소고삐 한기장이라니... 말이야 바로 해야지.》

선우영국아바이의 핀잔이 었다.

《됐어요. 지각한 공수가 얼마나 되겠다구...》

삼실이 제발 떠들지 말라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로력공수가 탐나서 그러나? 사람을 업수이 봐도분수가 있지.》

《그건 또 무슨 뼈꾸기같은 소린가요?》

윤철이 이죽거리자 신창옥은 들고있던 다래끼를 털썩 내려놓았다.

《까놓고 말해서 내가 그만큼 앞서나오고 그뒤로 정철이 엄마가 나왔다면 지각이라고 했겠나요? 로력공수를 뻗겠나 말이에요?》

정철이 엄마— 안봉녀는 그 소리에 얼굴이 확 붉어졌다. 리당비서덕이 그 정도로 지각했다면 하고 정면으로 걸고드는 바람에 당황해진것이다.

《그건 억지예요. 우리가 지금 출근시간을 놓고 말하지 다른 문제를 논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선동원이 푹바로 쳐다보며 반박했다.

《그래두 난 옆이랑을 마주 매주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안봉녀아주머니는 작업실적평가에서 그만큼 적게 받았단 말이에요. 대신 아주머니에게는 더 첨가되고...》

선동원이 두사람의 공수를 상기시켜주었다.

《어쨌든 날 지각으로 보는건...》

《서로 이해하기탓인데 됐어요. 어지간하면 웃읍시다, 웃자요.》

작년까지 4분조에 있다가 올해 3분조로 온 신창옥이와 동년배인 백희옥이가 가는 눈을 반짝이며 하는 소리였다. 랑쪽을 가라앉히는 시늉으로 랑팔을 퍼들고 흔드는 품이 흡사 물동적인 춤이라도 추는듯 싶었다.

《아주머니, 명백한 근거가 없는 소리는 함부로 하지 맙시다. 대중의 눈과 귀가 있다는것도 생각해야지요.》

천일은 불끈거리는 속을 누르며 그루를 박았다  
부지중 천일의 눈길이 오춘순에게로 향했다.

그의 두손이 차곡히 다져놓은 다래끼안의 풀우에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생각에 잠긴듯 한 눈길은 앞사람의 어깨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문득 중학시절 그의 남편 최도길과 약산동대 거북바위에서 찍은 사진이 떠올랐다.

담임교원이었던 신창옥의 남편의 량옆에 바싹 붙어앉아 멀리 아득한 지평선을 바라보는 두 소년...

혹시 이 순간에 오춘순이가 그 사진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이알라?... 많은 사람들앞에서 옛 스승의 안해를 아던정 보던정 없이 매정스레 대하는 이 천일을 쓰겁게 비우고 있는지 누가 알라...

저쯤 휘우듬히 누운 포전길로 하루일을 마친 4분조사람들이 지나가고있었다. 한쪽어깨에 돼지풀다래끼를 걸치고 한손에는 빈소랭이를 썬 보자기를 든 박만실이가 이쪽을 보며 웃고있었다.

《3분조가 오늘 군적으로 소문을 냈는데 하다못해 강낭떡이라도 단단히 내야지요?》

지금의 3분조 분위기를 넘겨짚고 하는 소리에 천일은 낯색이 어두워졌다. 주제에 무슨 방식상학이냐고 비웃는것처럼 느껴졌던것이다.

《우린 그래두 여태 〈떡만실〉 이를 기다리고있는중인데 빈소랭이만 들고와서 우릴 보구 떡을 내라니 웬말이요?》

삼실이 능치는 소리에 백희옥이도 끼어들었다.

《글쎄말이야 아침에 〈떡만실〉 이가 소랭이를 이고나오길래 오늘은 우리도 〈병어리떡〉 을 먹는가 부다 하구 시름한 김치국만 퍼마셨지...》

《왜 〈병어리떡〉 만이겠나. 〈심봉사떡〉 도 있었지. 》

박만실은 그냥 벌죽거리며 멀어져갔다.

떡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박만실은 일터로 떡을 싸들고 나오기를 즐겨했다. 쌀떡, 수수떡, 쑥떡, 송편, 절편... 거기에 곁들이는 부식물도 가지각색이었다. 분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만실은 떡을 싸들고 나와 실참에 나누어 들며 오해를 풀고 양보하도록 분위기를 돌려놓았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도 물어버리고 좋은 인상으로 지내게끔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하군 한다는것이다.

박만실을 《떡만실》로 부르는것도 그때문이다. 그 떡을 《병어리떡》으로 이름지은것은 백희옥이었다. 그떡을 먹으면 본것도 못본척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심봉사떡》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분조원들이 포전길로 나설 때까지도 한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던 신창옥이가 일어섰다.

《와우간 좋아요. 분조장이 어느 모퉁이에서든지 오늘처럼 한본새라면 난 의견이 없어요. 》

천일은 쓰다달다 대꾸없이 바지가랭이를 털었다. 발머리를 한번 돌아보려는데 그가 불쑥 말했다.

《우리 집에도 한번 와보시구려. 다른 집엔 찾지 않아도 잘만 가더군요. 》

뜻밖의 말에 천일은 찌프린 낯으로 마주보았다.

《대체 무슨 일로 언제 오라는건가요?》

《일이야 무슨 오늘 저녁에 오시구려. 》

방금전의 일때문에 가책을 느낀탓인지 아니면 어찌나 보자 하고 중떠보는것인지 알수가 없었다.

천일은 다분히 반발적인 어조로 대꾸했다.

《가지요. 》

그제야 신창옥은 앞선 사람을 따라잡으려는듯 부리나게 달려갔다.

천일은 신창옥의 속마음이 손금처럼 보이는듯했다. 이 길로 뛰여가서 집안사람들을 들볶으며 분주탕을 피울것이다. 그러다 분조장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래일은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나와서 최근의 일은 물론 10년묵은 일까지 들추어가며 불그락푸르락할것이다. ... (헛참,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분조가 단합되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천일은 저도모르게 긴 숨을 내그었다.

### 3

작업반에 들러 하루사업총화를 끝낸 천일은 어둠이 깔린 길을 따라 마을로 향했다.

집으로 향한 갈림길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신창옥이를 봐서는 그의 집으로 갈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중든삶든 일단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하는것이다. 더구나 옛 스승을 봐서라도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다.

다른 제자들은 병문안도 하고 일손도 도우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곤 했다. 그러니 스승이 나를 얼마나 섭섭히 여겼겠는가? 신창옥이가 그래서 더 었서는것이 아닐까?...

천일은 마침내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키높이 자란 나무들속에 둘러싸인 모교의 운동장을 지나 교원사택의 어느 한 집앞에 이른것은 얼마후였다.

불빛이 환한 집안에서 여러사람들의 흥그러운 말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록음기에서 울리는 조용한 음악, 장단처럼 엇갈리는 그릇소리, 웃음소리, 문여닫는 소리...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혹시 평양에서 대학공부를 하고있는 맏아들이?... 하지만 지금은 방학때가 아니다.

신창옥이가 억지다짐으로 분조장을 청한것이 아니라 생각에 들자 량손이 주머니를 더듬었다.

부엌문이 열리더니 뜬김을 앞세우고 신창옥이가 바깥을 들고 나왔다. 프락토통이에 있는 패치 우리에 드물을 쏟아주고난 그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담장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어둠속을 바라보던 그가 주춤주춤 다가왔다.

《분조장이 아니에요? 정말 왔구만요. 난 또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들은가부다 했는데… 향남이 아버지, 분조장이 왔어요!》

문이 열리더니 50고개에 이른 스승이 큰 키를 구뭇하고 토방의 마루로 나섰다.

《바벨텐데 용케 시간을 냈구만. 들어가자구.》

스승이 마중나와 천일의 손을 잡아끌었다.

방안에는 여러명이 음식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앉아있었다. 천일의 중학동창들도 몇명 있었다.

《새벽부터 뛰어나느라 시장하겠는데 우선 좀 들고보라구… 자 이걸 굳적인 방식상학대상이 된 자네를 축하해서 주는것이니 받으라구.》

스승이 큼직한 유리고뿌에 거품이 이는 맥주를 부었다.

《한데 전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무슨 자리긴… 다들 이렇게 찾아와 마련된 좌석이니 달리 생각할건 없네…》

한 동창이 선생님의 생일이라고 귀뜸해주었다.

천일은 더욱 웅색해져서 두손을 마주 비볐다. 제 손으로 마련한 술이라도 한잔 부어드리지 못할망정 이런 무례한 노릇이 어데 있단 말인가?

창황중에도 그의 눈길은 상우의 음식을 살폈다. 큰 접시에 무드기 담긴 떡그릇들을 중심으로 두부탕이며 물고기회, 고사리볶음이며 콩나물, 농마국수… 요란한것은 아니지만 품들여차린 음식상이었다.

그러니 신창옥이 이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지난밤을 꼬박 새우다싶이 했을것이 아닌가?그러고도 출근시간을 늦지 말자고 달려나왔겠는데 몇걸음 늦은탓에 지각으로 평가받았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오늘은 분조의 호주인 자신뿐만아니라 한 가정의 주부인 신창옥에게도 몹시 바쁜날이었다. 내가 왜 이런것을 생각지 못했는가. … 내가 너무했구나, 늦어진 사연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누구든 사실그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만 했으니 너무 뻥정했어. … 이제라도…

열려있는 사이문으로 신창옥이가 들어왔다.

한뿌리의 인삼이 멋스럽게 새겨진 상표가 붙은 병이 그의 손에 들려있었다.

《분조장과 함께 일한지도 이젠 여러해가 되었는데 한번 오라소리도 못해 안됐어요.》

나때문에 분조장이 속을 많이 썩이는줄 알면서도 원체 성미가 덜떠먹은탓에…》

그는 천일의 앞에 놓인 잔에 맑은것을 가득 부었다. 주량이 씨원치 못한 천일이었으나 그 어떤의무감 비슷한 충동에 단숨에 잔을 비웠다.

무슨 말인가 해야 했다. 괜찮다고… 하나마나한 소리야. 그럼 내 잘못이 더 많다고… 그건 속에 없는 걸발린 소리야.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안타깝도록 할 말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듣고싶어한다는것은 헛통한데 빈소리는 할수 없다는 모순된 심리때문인지…

천일은 신창옥이가 아니라 스승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제가 지금껏 도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난 스승으로서 자네를 자랑으로 생각하네. 굳적인 모범분조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노력을 빛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공지를 안겨주는것이 진짜 도리가 아니겠나…》

《무슨 일이든 일한 뒤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하지않겠어요. 이 신창옥이는 그래서 한사코 3분조를 뜨지 않고있어요. 분조장은 미워하겠지만…》

방금 마신 액체때문이 아니라 터쳐놓지 못하는 걱정으로 하여 속이 불같이 달아올랐다. 아주머니, 난 아주머니를 미워한적이 없습니다. 그저 한사람도 백사람도 하나같이 대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칭찬도 하고 욕도 했을뿐입니다. 그것이 아주머니를 싫어하는것으로 보였다면 용서하십시오.

천일의 이 한마디면 10년 뻘뻘했던 응어리도 서로의 뜨거운 눈물속에 단번에 풀어져나갈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야기에 지장이 없을정도로 음량을 조절해놓은 록음기에서 서정가요의 절절한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선율이 가슴속에 일고있는 불길의 열도를 한층 더 뜨겁게 해주었으나 천일은 종시 입을 열지 못했다.

부지중 그의 눈길이 상가운데 무드기 놓여있는 떡그릇으로 갔다. 그래, 이 석천일이는 《떡만실》의 《떡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나를 열자고 백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된다. 아니 그 하나 하나가 모여 열, 백이 되고 천이 되는것 아니겠는가. …

천일은 손에 든 저가락이 떡그릇으로 가는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분조장이 지금껏 떡생각을 하고있었군요. 하긴 떡한테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신창옥은 의미있는 웃음을 지으며 떡그릇을 천일이 앞으로 옮겨놓았다.

그의 집을 나설 때 신창옥이 담장밖까지 따라나왔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신창옥은 하품으로 벌어지려는 입을 가리며 말했다. 자식마저도 내리내리 아들만 넷을 낳아키우는탓에 도울손이 없는 그가 어제오늘 얼마나 피곤했을텐가. 하루쯤 꼭 쉬고 나오라고 말하고싶었다. 했으니 헤어지면서 한천일의 말은 자기로서도 뜻밖의것이였다.

《래일은 늦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두 이 신창옥이가 분조에 있긴 있어야겠는 모양이지요.》

《한시라도 조용해지면 그땐 3분조가 아니지요.》

천일의 그 말에 신창옥은 피곤에 물린 사람같이 않게 소리내어 웃었다. 옛 스승도 병글거리며 뒤에 서있었다.

그때 천일은 다름아닌 신창옥이때문에 분조가 다음



날도 《조용하지 못한》날이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 4

오전설참이 지나가고 다시 김매기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신창옥이가 길잡이새마냥 앞장섰다.

허리를 굽히고 강냉이포기사이 흙을 술술 긁어 나가는 그의 입에서 설참에 배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비위살이 떡판같다는 그자신으로서도 망칙스레 여기는 음치인지라 이따금 왕청같은 음정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웃겼다.

설참에 집에서 싸들고 나온 음식보따리를 풀어 놓으며 자기떡은 《병어리떡》이 아니라 《변호사떡》이라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하고싶은 말을 큰소리로 더 잘해야 한다고 해서 한바탕 웃긴 그였다. 선동원의 방조로 그의 노래가 제값을 타기 시작하자 분조원들이 목소리를 합쳤다. 건너편 밭에서 후치질을 하는 선우영국아바이의 입에서도, 삽을 메고 밭머리를 지나가던 물관리공의 입에서도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끝이 안보이게 긴 이랑을 다 나가고 새 이랑을 잡고 돌아나올 때 신창옥이 또 선창을 뗐다. 이번에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다.

농장벌이 좋아서 두루미때 내리고  
분조살림 흥겨워 노래소리 넘치네

호미가락을 쳐들고 어깨춤을 추며 선자리를 한 바퀴 빙그르 돌자 삼십이며 백회옥이가 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며 입장단으로 북소리를 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 스리랑  
분조농사는 나의 농사  
백가지 농사일 알뜰한 솜씨로  
우리 분조 우리 살림 꽃을 피워가세

노래도 부를래 춤도 출래 김도 맬래 굽혔다 폈다 하며 부산을 피우는통에 신창옥의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던 신창옥의 노래가 별안간 뚝 그쳤다.

이제는 기운이 진했는가 싶어 쳐다보니 그의 큰 눈이 매나가던 이랑을 더듬어보고있었다. 밭이랑을 찬찬히 살피며 앞으로 걸어가던 그는 밭중간쯤에서 앞쪽을 지켜보다가 되돌아왔다.

《왜 그래요?》

선동원이 묻는 소리에 모두의 눈길이 그에게 쏠렸다.

《정말 모를일이야... 이게 우리 분조밭이 옳긴 않은가?》

윤철이 목덜미로 흐르는 땀을 문지르며 무슨

당치않은 소리냐는듯 눈을 흘겼다.

《아니야. 우리 분조에는 이런 밭이 없었어...》

신창옥은 주변을 둘러보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천일은 이랑을 가로질러 신창옥에게로 갔다.

그가 매나가던 이랑을 살피며 나가던 천일은 밭가운데서 굳어졌다. 의혹이 비낀 그의 눈이 좁전의 신창옥이처럼 주변이랑을 더듬었다.

다른 이랑은 모든것이 정상이었다. 단지 신창옥이 잡은 이랑만이 전혀 낯설어보였다. 눈에 띄게 벌어진 포기사이 간격, 한포기 혹은 두포기씩 비여있는 빈포기들... 살부러진 열레빗마냥 보기조차 흉한 이랑이었다. 종자묻는 깊이를 보장하지 않아 씨앗이 걸마르면서 빈포기가 생겼다는것이 첫눈에 알렸다.

파종을 하던 날 분조원들앞에서 직접 파종을 해보이면서 포기사이간격과 씨앗깊이보장 그리고 씨앗을 묻은 다음에는 밭자국으로 꼭꼭 밟으며 나가야 한다고 몇번이나 강조했던가.

분조원들이 하나둘 모여왔다.

천일은 누가 파종한 이랑인가고 당장 따지고싶었다. 하지만 분조장부터 모르고있을것을 누구더러 따진단 말인가. 이제는 아무리 떠들고 부산을 피워도 행차된 나발이라는 생각에 쓴입만 다셨다. 이제와서 보식을 한다는것은 한갓 걸치레에 불과한것이다. 사이그루로 콩같은것은 심을수 있으나 원그루와의 생육비례를 맞출수없다. 열매를 맺을수 없는, 빈땅이나 가리우기 위해 서있는 곡식은 김보다도 더 해로운것이다. 늦어도 애벌김매기때 대책했어야 했다. 만사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노래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천일의 눈앞으로 분조원들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갔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머리를 젖던 천일의 눈앞으로 안봉녀의 모습이 다가섰다.

한해전까지만 하여도 읍전직공장에서 작업반장을 하던 녀인이다. 편직기와 채봉기를 다루던 그에게 있어서 농사일은 육체적으로도 힘에 겨운것이지만 미림이 트지못해 곱절로 어려웠을것이다.

하다면 그가?... 그의 모습이 좀처럼 물러설줄 몰랐다. 안봉녀, 정말 그가 파종한 이랑인가?

설사 그렇다쳐도 씨앗의 발아상태를 명백히 판별할수 있는 애벌김매기때 왜 누구도 몰랐을까. 안봉녀가 심은 이랑인줄 알고 눈감아버렸는가? 리당비서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런데 신창옥이는 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가? 그가 이쯤한것을 넘겨짚지 못했을리 없다. 혹시 어제 작업총화때 《납작》해진 체면때문에 꼬집어드는건 아닐까?...

어쨌든 스쳐지날수 없는 《비상사고》였다. 진실을 밝혀내고 경종을 울려야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오래전에 한 일을 무슨 수로 밝혀낸단 말인가. 명백한 근거가 없이

어렵짐작으로 추궁할수는 없지 않는가.

잘 뜯 누룩덩어리처럼 부근부근한 흠을 긁어주며 호미질을 하는 천일의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땅이 이렇게 걸구어지도록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가. 농사에 종동원, 총집중 할데 대한 공동사설을 받들고 어떻게 하나 최고수확을 내자고 정초부터 벌에서 살다싶이 했다. 이 포전에만도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름을 내고 좋은 품종을 선택하여 알알이 골라 심었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가는 포전을 볼 때마다 풍작 이론 가을이 눈앞에 보이는듯싶어 가슴 부풀던적은 몇번이던가. ...

앞쪽에서 삼실이와 선동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글쎄, 잘 생각나지 않아. 학생들처럼 제가 심은 나무에 표쪽이라도 써붙였다면 또 몰라도...》

삼실의 말에 선동원의 눈길이 얼핏 이쪽으로 향했다. 그와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천일은 섬광처럼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는가?! 이 밭에서 파종하던 때의 일이 방금전이런듯 되살아났다.

그날 점심참이 좀 지나서 포전에 나오니 종자주머니를 찬 녀인들이 벌써 파종을 시작한 뒤였다. 모대기준비작업때문에 한발 늦은 봉창을 하려고 서둘러 이랑에 들어서던 천일은 발머리에서 서성거리는 선동원을 띄여보았다.

가까이 가보니 그는 분조원들의 이름이 하나씩 적힌 하얀 마분지조각들을 이랑마다 묻고있는중이었다. 천일은 습기가 배어들지 않도록 비닐로 밀봉한 표쪽을 집어 들고 선동원에게 묻는 눈길을 던졌다.

《언젠가 분조장동문 말했지요. 올해 처음으로 씨앗을 묻는 밭을 기억해두었다가 가을에 가서 제손으로 열매를 걷어들이게 하면 분조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파종하는 이 포전을 잊지 않게 이랑마다 이 표쪽들을 묻어놓는 중이에요. 가을에 가서 파내어 분조원들에게 보여주면 참 기뻐하겠지요.》

선동원은 어린애같은 동심에 싸여 씨앗을 묻어 나가는 사람과 이랑을 곱씹어 확인하면서 표쪽들을 깊숙이 파묻어나갔다.

사람들에게 참된 긍지와 보람을 안겨주기 위해 아글타글하는 선동원의 그 마음에 천일은 몹시 감심했었다. ...

발머리로 향하던 천일의 발걸음이 차츰 떠졌다.

지금 매나가고있는 이랑에 표쪽이 있겠는지 그것부터가 미라했다. 밭을 둘러보니 지금의 위치가 비슷하긴 했다. 어느정도 신심이 생기긴 했으나 걸음이 선뜻 나가지 않았다. 성실한 땀과 노력의 열매를 실물로 보여주는 표적으로 되게 하자던것이 잘못을 밝혀내는 증거물로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억이 막혔다.

얼마쯤 더 나가던 천일은 끝내 벗어나고말았다.

고 아무말없이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내가 지금 무엇때문에 발머리로 나가고있는가. 십중팔구는 안봉녀의 이랑이었을 그것을 확인하고자?...어쩐지 안봉녀한테 죄스러운감이 들었다.

리당비서의 안해여서가 아니라 그의 인간됨때문이었다. 입이 무거운것은 너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미덕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는 참으로 입이 무거운 너자였다. 간부안해라는 티는 조금도 없이 농장원들과 잘 어울렸다. 보다는 분조의 한 성원으로서는 제 몫을 다하려는 성실성이었다.

그런 안봉녀에게 본의아닌 잘못을 까밝혀 사람들의 면전에서 무안을 주는것이 잘하는 일일까.

또 다른 생각이 머리를 쳐든다.

낡고 불필요한것들을 버리고 새롭고 필수적인것을 흡수하는 유기체의 신진대사과정인 그 어떤 요인으로 몇게 된다면 그것은 벌써 건강한 유기체가 아닐것이다. 낡은것을 밝혀내고 그것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한 극복과정은 집단의 참된 단합과 성과를 위해 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될 《신진대사》 과정이 아니겠는가.

천일은 발머리로 나섰다. 발머리에는 커다란 밭상처럼 둥그런 웃면만 드러내고 반나마 묻혀버린 연자들이 있었다. 천일은 한이랑의 발머리를 파보았다. 없었다. 연자들쪽으로 내려가면서 파보니 드디어 사기조각같은 흰 표쪽이 나타났다. 표쪽을 집어 들고 무심결에 얼굴을 드니 아래쪽에서 앞서나오던 오춘순이가 이쪽을 건너다보고있었다. 그뒤에서 안봉녀가 김을 매 나오고있었다.

천일은 슬며시 표쪽을 내려놓고 흠을 덮어버렸다. 일어서서 발끝으로 공공 다쳐버렸다.

가슴들레는 기쁨에 앞서 이런 얼굴 붉혀야 할일이 몇끝이나 더 많을수 있다는것을 왜 생각지 못했는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이 자리를 피하고싶은 막다른 생각마저 들었다.

자기 이랑을 끝내는 족족 사람들이 발머리로 나섰다. 나중에 나선 안봉녀는 이랑을 등지고 앉은채 일어설 녀를 못했다. 땀에 뜬 그의 얼굴이 천일에게로 향했다. 말 못할 부끄러움과 그 어떤 강렬한 호소가 엮힌 그의 표정을 보자 천일은 드디어 결심을 내렸다.

방금 파헤쳤던 자리에서부터 그아래로 이랑을 하나씩 잡도록 했다. 발머리에서부터 다섯번째 포기밭을 한뼘깊이로 파보라고 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종자감자를 캐듯 호미끝을 조심하며 흠을 헤치던 삼실이가 가벼운 탄성을 질렀다. 뒤따라 너도나도 표쪽을 파들었다. 안봉녀는 아직 호미질을 시작하지 못하고있었다.

《왜 그래요? 어서 파보라요.》

오춘순이가 안봉녀를 건너다보았다. 뭘 겁날게 있느냐 하는 어조였다.

안봉녀도 표쪽을 집어들자 이름들을 불렀다. 천일이 파보았던 이랑에 마주앉은 신창옥만이 입을 다물다시 표쪽을 들여다보고난 그가 천천히 일어섰

다.

《정말… 네가 어쩌면… 그럴수 있니?응, 백희옥이?》

아연해진 눈길들이 신창옥이와 백희옥이 사이를 누볐다. 백희옥은 금시 구운가재빛이 되었다.

《백희옥이, 내 농장원으로 몇십년동안 일해오면서 지금처럼 창피스럽기는 처음이다. …》

신창옥은 진정으로 분개한 어조로 계속 말을 이었다.

《난 정철이 엄마 이랑인줄 알았다. 그래서 애벌김매기때 누군가가 그걸 알고 못본척 한줄 알았다. 보구두 못본척 한 그 사람을 난 꼭 알고싶었어. 애벌김때도 이 이랑을 네가 땀지?뒤편이 켜켜 골라잡았는지 아니면 우연히 맞다들었는지 몰라도…너두 〈벼어리떡〉을 먹었니? 왜 말 못해?》

방치로 두드려놓은 빨래모양이 된 백희옥이가 가까스로 얼굴을 반쯤 들었다.

《난 그전처럼 비료두 넉넉치 못하구… 그날 밤비가 내린다기에… 또 그날 집에서 바쁜 일이…》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서 그따위 변명이나? 정철이 얼마나 분조원들을 그리구 분조장을 뿔루 만들뻔 했는지 생각이나 해보았나 말이야? 서로 의심하구 믿지 못하구…》

더 말하고싶지도 않다는듯 신창옥이가 돌아섰다.

《분조장은 왜 가만 있어요? 사람의 가슴에 생허물을 남길뻔 했는데, 분조의 얼굴에 먹칠을 했는데 분하지두 않아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분조장이 해야 할 말을, 분조원들이 바라고있는것을 다 더놓았는데야… 다만 한가지 선동원이 표쪽을 물어놓은 진의도를 모르고있는것이 속에 걸렸다. 하지만 진실은 어느때진 밝혀지는 법이다.

백희옥이가 신창옥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표쪽을 뽑아낸 그는 파낸 자리에다 다시 내려놓았다. 흙을 모아 호미자루로 쾅쾅 다지며 떠듬거렸다.

《나같은것이나 밝혀내자고… 곡식이 다 자란 가을날에… 분조장이 표쪽을… 나때문에 …》

분조원들도 말없이 표쪽을 제자리에 다시 묻었다.

천일은 또 하나의 가파로운 낭떠러지를 툭아오른듯한 감을 느끼며 이마에 내뻗 땀을 문질렀다.

한두사람의 체면이나 인정때문에 그냥 지나쳤다면 가을날 이 곡식포기들에 강냉이이삭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이 달렸다 해도 표쪽을 영영 파내지 못할것이다. 그 어떤 놀라운 기적도 진실을 외면하고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는것이다.

점심때가 되였는지 멀지 않은 포전길에서 4분조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맨앞에 선 《떡만실》이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빨리 들어가자요. 농장상점에 전어생선이 들어 자전거를 세우자바람으로 천일이도 분조원들과

왔다는데 물이 빠지기 전에 빨리 받아와야지요. 》  
했으나 그쪽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 5

자전거를 몰아 30리 밤길을 숨가쁘게 달려온 천일은 탈곡장으로 향한 갈림길에서 급정거를 했다. 내쳐 탈곡장으로 갈것인지 아니면 마을로 달려가 분조원들부터 동원시켜야 할지 선뜻 결심하기 어려웠던것이다.

천일은 얼핏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하나 없는 밤하늘에 크기를 대충할수 없는 검은 구름이 한구석에 남아있던 희미한 빛을 삼키며 걸죽한 기름처럼 느릿느릿 퍼져가고 있었다.

많은 비가 내릴 징조였다. 앞그루 밀보리가을을 시작할 때부터 우려하던 보리장마가 터지려는 모양이다. 어디선가 황황히 쫓겨온듯싶은 누기찬 바람에 가로수의 우듬지들이 썩아—하고 불안스레 뒤채이기 시작했다.

지금쯤 읍쪽에서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천일은 탈곡장쪽으로 꺾어들었다. 이제 분조원들을 동원시킨다는것은 공연한 시간낭비로 될수 있다는 촉박감이 그쪽을 택하게 했다.

탈곡장에는 엇그제 가을하여 실어들인 앞그루밀 보리단들이 밭 들어놓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한마당 널려있었다. 비를 맞으면 짝이 트고 변질되기 쉬운 낱알이어서 소출이 떨어질수 있다. 더구나 종자밀보리가 문제였다. 언제 개일지 모를판에 종자까지 비를 맞으면 난사가 아닐수 없다.

이웃농장 남새분조장인 장인이 새 품종의 가을 남새종자를 마련했다는 기별을 받고 휴식날을 리용해서 떠났던 걸음이 이런 봉변을 당할줄이야…

잠시후 탈곡장전경이 들여다보이는 둔덕에 올라선 천일의 눈이 금시 커졌다. 추수높은 외등이 환한 탈곡장에서 밀보리단을 안고 뛰어다니는 농장원들의 모습이 보였던것이다.

《…1분조, 2분조, 어떻게 됐소?》

작업반장의 거센 목청이다.

《나오구있습니다.》

1, 2분조장이 련이어 대답했다.

《3분조!》

대답이 없다. 탈곡장지붕안에서 윤철이와 남자들이 타원형의 큼직한 동가리에 올라서서 《빨리, 빨리…》하며 연방 소리를 지르고있었다. 밀보리단을 한아름씩 안은 3분조녀인들이 언뜻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또 재촉해서야 윤철이 동가리에서 훌쩍 뛰어내리며 대답했다.

《3분조는 종자밀보리 처리를 끝냈습니다.》

《좋소. 나머지도 서둘러야겠소. 4분조!》

함께 동가리를 치기 시작했다. 오춘순이와 백희옥

이가 보이지 않을뿐 모두 나왔다.

작업반장의 목청이 또 들려왔다.

《4분조, 4분조장동무!...》

종합탈곡기옆에서 두세명의 4분조녀인들이 날라온것들을 어느 위치에 쌓아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서성거리고있었다.

《우리 분조장은 사람들을 동원시키느라 집집을 돌고있어요. 이젠 나올 때가 됐는데...》

《당장 비가 떨어지겠는데 한심하구만. 3분조는 분조장 없이도 다 나왔는데...》

작업반장이 자리를 잡아주며 하는 소리에 박만실의 눈이 실췌해졌다.

《3분조야 우리 분조장 덕에 빨리 나왔지요, 말은바른대루.》

《그럼 온 동네사람 다 깨우면서 소리치지 말구 제분조사람만 듣게 〈떡만실〉 아주머니, 비가 온다는데 3분조 모르게 빨리 나오시라구요하고 몰래 알려줄게지...》

신창옥이가 박만실의 귀박죽에 대고 속살거리는 흥내가 어찌나 방불했던지 급기야 폭소가 터졌다.

잠간사이에 3분조 동가리치기가 끝났다. 천일은 한두사람이 뒤거둠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4분조를 돕도록 했다.

비방울이 커지며 바람이 태질하기 시작했다. 다른 분조원들도 일을 끝내는죽죽 4분조로 왔다.

모두가 달라붙어 마지막동가리를 칠 때 백희옥이가 바람에 나뭇기는 비웃자락을 붙잡고 허둥지둥 나타났다. 늦은 봉창이라도 하려는듯 사람들사이를 재봉바늘 나들듯 하던 그가 삼실이와 마주치자 슬며시 물었다.

《우리 분조두 나오라구 알려줬나?》

삼실의 표정이 나뭇 정색해졌다.

《분조장이 그 집엔 안갔던가요?》

《그러니 알려줬단 말이지?》

백희옥의 눈이 짙어졌다. 얇은 입술을 감쌀며 눈을 치뜨는 모양이 뭔가 편치 않은 기색이었다.

그제야 삼실은 자기의 엉너리가 분조를 소란케 하는 빌미로 될수 있다는것을 느꼈는지 황황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사실은...》

했으나 백희옥은 들을념도 않고 썩하니 바람을 일구며 지나쳤다.

바로 그때 오늘 밤일에 빠졌던 분조의 마지막사람인 오춘순이가 나타났다.

바닥에 널린 이삭들을 주어모아 동가리틈에다 쑤셔넣던 신창옥이가 눈길을 들었다.

《네가 어떻게? 우린 본가집에 간줄 일았는데...》

《누가 본가집에 간됐어요?》

오춘순은 얼굴에 휘뿌려지는 비물을 흠치며 새파래진 낮빛으로 따졌다.

《너야 휴식날마다 본가집에 갔다오군 하지 않았니? 오늘도 그래서...》

《그것두 말이라구 해요? 점심녘에 우린 빨래터

에서 어기지 않았나고 갔는지 안갔는지 알아보지 두 앓구 없는걸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그래두 난 우리 분조만은...》

당장 울음이라도 터칠듯 한 그의 말이 자신을 빗대놓고 하는 소리라는것을 느끼자 천일은 《허허, 참...》 하고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락수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탈곡장처마안으로 들어선 백희옥이가 천일을 등지고 선채 설분을 토했다.

《분조장이야 우습겠지요. 하지만 사람을 놓고 저울질해서야 안되지요. 4분조장이 옆집에다 소리칠 때 난 기다렸어요. 우리 분조장이 이 백희옥이도 찾겠지하구 말이에요. 그런데 종시... 찾아오지 않더군요. 오춘순이도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금 나왔을거예요. 누군 찾구, 누군 지나치구... 난 우리 분조장이 사람만은 절대로 갈라보지 않는다고 믿었었는데 이제보니...》

그의 마지막말은 천둥소리가 삼켜버렸다. 주룩주룩 쏟아지는 비를 피해 탈곡장안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눈길이 3분조로 쏠렸다

천일은 백희옥의 생트집에 아연해졌다.

선우영국아바이가 백희옥을 향해 입을 열었다.

《분조장은 처가집에 갔다가 곧장 이리루 왔는데 뭘 알려주구 말구 하나? 여기에 알려줘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자 의혹어린 오춘순의 눈길이 백희옥에게로 향했고 백희옥의 찌르는듯 한 눈빛이 삼실에게로 날아갔다. 삼실이 험사한 웃음을 짓고 병글거렸다.

흰자위 많은 눈을 흘기며 그들 세사람을 쳐다보던 신창옥이가 손을 저었다.

《됐다. 사람의 마음은 다 같애. 나두 탈곡장에 나올때까지는 불이 잔뜩 부어서 어디 보자 하구 버리며 나왔어... 그러니 분조장이 얼마나 속을 썩이겠나. 욕할 때나 칭찬할 때뿐아니라 이렇게 급한 대목에 바쁜일을 시킬 때조차 차별을 두지 않나 해서 저저마다 눈을 밝히는 판이니. 하두 굳은 땅에 박아놓은 쇠꼬쟁이 같은 우리 분조장이니...》

천일은 불길이 없이 타는 모닥불을 마주한것처럼 눈이 쓰러났다. 했으나 왜서인지 마음만은 혼 혼했다.

《아, 언젠 못본척 하지 앓구 꼬집어든다고 맞갖지들 앓다더니 이젠 절 찾지 앓았다고 서럽다니 사람들이 이렇게 까다롭고 변덕스러워써야 분조가 어떻게 합심이 되겠어요.》

사람들앞에서 망신스러운 일이라든듯 윤철이가 하는 소리 였다. 그러자 선우영국아바이가 말했다. 《우리 분조원들이 분조장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왜 그렇게 마음을 쓰는지 자네 정말 모르겠나? 누구앞에서든 뻔줄도 보텔줄도 모르고 진실그대로를 말하기때문이야. 분조장의 평가이자 대중의 평가이기때문이지.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갈구같은

소리로 들린다면 그게 무슨 분조장의 말이겠나...》

담배를 말아 입에 가져가던 아버지는 탈곡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그냥 쭉서넣고 말을 이었다.

《마음을 붙이고 살 곳이 못된다고 떠나갔던 저 오춘순이가 왜 두해만에 부디 우리 분조로 돌아왔겠나? 그 어떤 인정이나 특혜가 아니라 집단을 위해 바친 노력에 의해서만 대 사람의 금새가 평가되는 그때문이 아니겠나. 진실만이 통하는 이런 집단이야말로 한생을 의지하고 참답게 살수 있는 곳이라구 믿었기에, 남편없이 살수 있어도 이런 집단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몸이기에 돌아온거라구 생각하네. 이렇게 단합이지 별다른 것이겠나. ...》

신창옥이가 머리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다.

《웁야요. 뭐니뭐니해도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내세워주는것이 사람을 제일로 크게 위해주는 것이지요.》

《난, 난... 번덕쟁이였어요. 흑...》

오춘순이가 얼굴을 싸쥐며 비대리는 어둠속으로 뛰쳐나갔다. 뒤로 제껴진 비웃자락이 그가 못다한 말을 알아달라는듯 바람에 펄럭이었다.

외등밑에 앉아 오늘 밤작업총화를 준비하던 천일은 불시에 가슴이 쿵—하고 울려났다. 오춘순이와 엮혔던 지난날의 사연들이 그리고 오늘까지의 분조장사업이 한순간에 돌이켜졌다. 비결은

단합에 있다고, 단합된 분조라고 말하던 경영위원장의 말이 새로운 의미를 안고 되새겨졌다.

웃음도 많았고 번민도 있었다. 때로는 오해와 불신으로 어성을 둔구던 나날들도 없지 않았다. 안해와 가까운 이웃들의 원망을 받을 때마다 자기의 성격적약점을 두고 고민도 했다. 그때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놓고도 열반을 재여보고 스무번을 따져가며 자신을 다잡고 채찍질해온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나라의 쌀독을 말아나선 농장원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자신을 따라세우기 위해, 그것으로 하여 대중이 믿고 따르는 초급일군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제야 천일은 10여년이라는 짧지 않은 나날을 분조장으로 일해오는 자신이 어찌하여 지금도 하루하루의 작업조직과 총화를 위해 분조원들앞에 나서기가 그토록 힘겨웠는지 비로소 명백히 깨달았다. 오로지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친 노력과 헌신의 값높은 무게로써만 매개 인간들의 진가를 평가할줄 아는 선군시대 일군들의 참된 목소리를 대중은 듣고싶어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대중이 바라는 참된 일군이 되자. 설사 그때문에 잠을 덜 자고 땀과 피를 더 흘린대도 후회가 없으리라. ...

천일은 분조원들앞으로 나섰다. 불과 한두시간 안의 작업에 대한 총화이지만 결코 험하지 않으리라는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 작가소개

# 리승인과 그의 작품

고려시기의 시인, 학자였던 리승인(1349~1392년)은 고려말기에 목은 리색, 포은 정몽주와 함께 《삼은》의 한사람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리승인은 경상도 경산부의 량반가정에서 출생하여 공민왕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다. 그는 일찍부터 천품이 영민하고 문장이 우수하여 어려서부터 수재로 이름났으며 벼슬살이기간에는 나라의 외교문서를 도맡아 썼고 정몽주와 함께 실록편찬에도 참가하였다. 뿐만아니라 리색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그와 함께 사절단의 수행원으로 명나라에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그는 동방의 이름난 명문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리승인은 벼슬살이기간에 복원과의 사대적외교를 배척할데 대한 문제, 매관매직으로 문란해진 관직제도 그리고 약화되는 나라의 군력을 바로잡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일련의 개혁안들을 제기하였으나 그때마다 반대자들의 모해를 당하여 관직을 박탈당하고 류배살이를 하면서 곡절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는 고려말기에 리성제일파의 반역음모에 참여하지 않고 그에 반대의사를 품은것으로 하여 가혹하게 살해당하였다.

리승인은 자기의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당대 사회현실의 부정면을 비판한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시 《옛시 〈세상살이 어려워라〉의 운을 따라》는 이러한 주제의 우수한 작품이다. 또한 시 《오호도》는 리성제일파의 반역행위를 저주하여 고려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절개》와 《의리》를 절절히 노래한것으로 하여 중세 학자, 문인들속에 널리 알려졌다.

그의 산문작품으로는 1380년 왜적의 침입을 당하였을 때 민족적지조를 지켜 용감히 싸운 경상도 지방의 소박하고 평범한 배씨의 애국충정을 찬양한 《배렬부전》이 후세에 높이 평가되고있다.

리승인의 문집으로는 《도은집》이 있다.

허종구

# 벌의 공상

리진협

긴긴세월 공상으로만 있었다  
땅의 주인이 되는 농민…  
하루에 열흘같이하는 《무쇠소》…  
소박했어도 실현되기까지는 실로 수천년  
혁명과 함께  
위대한 수령의 손길아래 현실로 온 공상

현실로 오기 시작해서는  
빠르기도 하다 반세기우에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미치 공상할수도 없던 일들을  
변혁과 비약으로 이루며 어느덧  
강성대국 그 현실 눈앞에 펼쳐졌다

폭우에 옷 젖고  
가뭄에 땀짓는 일들이 없으리라  
저절로 여닫기는 관개물길수문들  
지휘안테나의 지령에 따라  
김매고 거름내고 가을하는 지능농기계 출근길  
또 새 종자 새 기계 생겨나  
더욱 흥할 농사일을 공상하는

바쁘리라 혁명이 주는 그 흥에  
어절씨구 노래춤이 즐거운 포전

날마다 경사들이 겹치고겹쳐  
발명권에 학사 박사  
잔치날맞듯 하루건너 경사가 나고  
정보당 수십톤이 레사로 입에 올라  
그 기쁨 분배하는 가을이 바쁘고

나라와 인민 위한 혁명이 아니면  
또 긴 세월 공상으로만 있을지 모를 그 공상  
누구나 변혁과 비약에 몸바쳐  
이 공상이 실현된 그날에는  
《학사농민》 《박사분조장》 《수재실농군》  
오늘의 감나무집 배나무집들이  
박사집 영웅집으로 불리우리라…

오, 순간에도 천년을 가는 첨단과학시대  
오늘의 공상은  
장군님 펼치시는  
강성대국 원대한 미래도 지척에 당겨오는  
일대 비약이다! 혁명이다!  
가슴 부푸는 이 투쟁속에서  
내 또한 농민영웅이 되리니

벌이어!  
마음껏 아름답게 공상을 펼쳐라

# 주타격전선

오필천

남몰래 이삭을 빼무는 벼포기들이  
팔뚝같은 쌍둥이 이삭아기 업은  
앞내들 강냉이들이  
나에게 말을 하는듯 해요

주타격전선 ! 그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안겨주는  
조국의 말없는 표창이라고

말들을 해요  
출렁출렁 흘러오는 관개수도 길을 멈추고  
살그머니 내려접고 내리는 흰두루미도  
하늘아래 제일 큰 일 내가 맡았다고

내 손이 보배손이래요 나라의 쌀독을 맡은~  
김매기 지원나온 인민군포병들도

성의 국장도 공훈배우 언니도  
온 조국이 내 일손 도와줘요

그 마음들이 고마워  
곡식들은 푸른 들에 무럭무럭…  
열매는 총알처럼 주렁주렁…  
내 구슬땀 방울방울 무르익은 가을이 오면

나는 진정 사진 찍을테야요  
휘늘어진 누런 벼단을  
한아름 가슴에 척 안고서

그러면 내 가슴에선  
해빛같이 밝은 빛을 뿌릴거예요  
나는 그것을 주타격전선 맡겨준  
조국이 주는 표창으로 간직하고  
한생을 벌에서 값있게 살테야요

## 생명수

김광수

줄대처럼 싱싱한 벼포기들, 가없이 펼쳐진 들길을 걷는 나의 마음은 끝없이 상쾌하였다.

두렁밑에 호합지게 퍼진 콩포기밑의 논고에는 미꾸라지사냥을 나왔던 팔뚝같은 메기가 인기척에 놀라 물갈기를 일으키며 달아났다.

어디선가 뜬부기가 《뜸북… 뜬북…》구성진 목소리로 무엇을 그리 듬뿍이 주라는지 끊임없이 부락한다.

싱그러운 논물냄새가 풍겨오는 들길로 송아지친구인 이곳 관리위원장과 함께 걷노라니 자연히 추억의 갈피갈피가 더듬어지기도 한다.

《김동무! 이 물길 용수잡판이 건설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취재 안해도 알겠지.》

《그렇네. 어떻게 그 이야기를 잊을수 있단 말인가.》

생각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뻗어갔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촌, 모든것이 폐허로 된 농촌에서 첫해농사를 짓자니 무엇보다도 물이 요구되었다.

해방후 꾸려졌던 소박한 수리체계마저 악착스러운 미제공중비적들의 폭격으로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농사에서 생명인 물이 있어야겠는데 그때 나라실정으로 해결책이 갑자기 있을수 없었다.

전후복구건설에서 쌀은 곧 생명이었다. 또 그 쌀생산에서 생명은 곧 물이었다. 그러니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었다.

그 시기 전선에서 돌아온 나의 할아버지는 얼마후 작업반장이 되었다.

군복에 건장자리가 또렷한 썩한 총각반장이었다.

어느날 배나무집 둘째가 숨이 차서 달려왔다.

《반장형님, 작업반논으로 겨우 흘러들던 물도랑이 콕 막혔어요.》

밀도 끝도 없는 어정쩡한 말이었다.

《콕 막히다니?》

《이웃마을 분녀작업반장이 아예 콕…》

《왜 콕 막는데? 빨리 가자.》

총각반장은 분기가 솟아 반달음쳤다.

배나무집 둘째는 숨이 차서 따라가며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쳤다.

《내가 새벽에 논판에 물대러 나가니 글썽 분녀작업반장이 우리 수로쪽을 막는게 아니겠어요. 그래 왜 막는가 했지요. 그러니 자기네만 농사짓

겠는가 오히려 호통쳐요.》

《그래서 그냥 쫓겨왔는가?》

《물고를 놓고 힘내기를 했지요. 그런데 힘이 얼마나 썩지 날 난작 들어 팽개치는데 저만치 논판에 철썩…》

《차, 남자라는게… 처녀한테 배지기 띄워.》

《첻, 그래서 나두 용기를 가다듬구 대드는데 이번엔 아예 우리 물고를 툭 깔고앉아 막았어요. 그러니 우리 물도랑으로는 물 한방울 안새나와요.》

두 청년이 옥옥 버리며 달려가니 역시 분녀반장이 떡 버티고 섰다.

삼자루를 창처럼 꼬나짚고 물고에 파수병마냥 서서 이쪽을 쏘아본다.

이어 두 반장사이에 치열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오목눈 분녀는 얼마나 이악쟁이인지 이번에도 같은 전술을 썼다.

더 말 못하게 물고를 떡 깔고앉아 총각반장을 바라다도 안본다.

힘으로 어쩔테냐 하는 배심이다.

총각반장은 더 양보할수가 없었다.

물을 대지 못하면 오늘 작업반모내기를 어떻게 보장한단 말인가.

《동무 정 이러겠소?》

총각반장은 단호히 결심하고 물고에 앉아있는 분녀를 뉘큼 들어내려고 겨드랑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러나 손맛이 몽클하는 바람에 텐접을 해서 물러서고말았다.

순간 분녀는 두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해요. 너무…》

《데거…》

배나무집 둘째는 어색해서 머리를 돌리고말았다.

총각반장은 어쩔줄 몰라 엉거주춤해서 손바닥만 썩썩 비볐다.

그러고는 두 반장의 하많은 감정을 담은 눈길 이 허공에서 오래동안 부딪쳤다.

처음엔 노여움이 짙은 눈길로, 두번째는 측은하게, 그다음엔 리해와 미소어린 눈길로…

그후 둘은 관개공사에 항상 앞장에 섰고 그 사연을 연줄로 회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 웃지 못할 희극의 주인공들이 바로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였다.

그 사연많은 물고자리에 오늘은 웅장한 용수잡관이 건설되었고 물을 억수로 뿜어내는 것이었다.

우리 조상들의 사연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백마—철산사이 자연물길로 끝없이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워움을 금할 수 없다.

백마호의 수만정미의 물이 수백여 km의 물길을 따라 통천군, 염주군, 철산군, 신의주시를 비롯한 6개시, 군의 방대한 면적의 농장벌에 자연적으로 흘러든다. 많은 전력과 수백대의 양수설비를 쓰지 않고 자연흐름 그대로 긴 물길굴들과 대형용수잡관들을 거쳐 생명수로 이 땅을 시루떡처럼 부풀게 하니 이 얼마나 장관인가. 이제 얼마 후이면 미루벌물길도 짙짙 뿜어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또다시 세인을 놀래울 것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물은 절대 필요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가정의 일상생활에서까지. 그러나 농민들처럼 물에 대한 귀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말처럼 그에 못지 않게 농민에게 있어 물은 생명수라고 하여도 누구 하나 과장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곡을 자라우는 젖줄기 같은 물, 생명수!

허나 지난 시기 우리 농민들의 물에 대한 세기적숙망은 실현될 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하여 관개의 역사를 펼쳐주신 그때로부터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며 절망과 탄식, 희망이 교차된 감정속에서 하늘에 빌고 또 빌던 농민들,

열두삼천리별 농민들에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평남관개라는 생명수를 안겨주시었고 기양관개, 어지돈관개, 압록강관개를 비롯한 대규모 관개공사들과 중소규모 관개공사들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랑이 있었기에 농민들은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었다.

오늘은 또 어떠한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농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려 《백마호》를 비롯한 대인공호수들을 수많은 건설해주시었고 자연흐름식물길이 이 땅에 뿜어 옥야천리를 적신다.

이 땅에 관개의 력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력사를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억년 마를줄 모르는 생명수를 준 위대한 은인이시다.

선군시대인 오늘 물문제는 이렇게 풀렸다.

지난 시기 가난과 수난의 력사가 서리서리 엉켰던 이 나라 농토에 생명수는 어머니 젖줄기마냥 끝없이 흘러들어 행복은 꽃피나고 희망은 끝없이 아지를 펼친다.

이 시각도 푸른 파도 설레이는 벌에서는 뜸부기가 더욱 흥이 나서 《뜸북… 뜸북…》쌀을 더 듭뼉이 내라고 호소하는 듯 울고있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푸른 들판, 끝없이 걷고 싶은 들길.

손을 고마운 물에 잠그니 끝없이 따스하구나.

## 웃놀이마당

김명철

어야씨 떠오르네 반질반질 웃가락  
좌르르 떨어저선 대굴대굴 텅구네  
걸이다 잡아라 이쪽에선 와—와  
어마나 개로구나 저쪽에선 쿵—쿵

봄한철 들에 살며 정성껏 모를 내고  
웃마을 아래마을 펼쳐놓은 웃놀이  
설참마다 참기름 바른 쫄떡은 서로 나누어도  
우승기는 양보없던 그 승벽 어디 가랴

비단적삼 분홍고름 나풀하면 어야씨  
쌍태머리 갑사댕기 팔랑하면 좌르르  
내기터가 웃음터나 구경군이 춤군이냐  
서로 말을 몰아대니 어깨성도 들썹들썹

마을이 달라도 숨결은 하나같아  
나라쌀독 생각하며 땀흘려온 너인들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을 그리며  
힘든 고비 함께 넘자 떨쳐나선 웃놀이마당

정은 나누고 마음은 합쳐선가  
웃마을이 씩하면 아래마을 춤이 덩실  
손에 손을 맞잡으니 신심이 넘쳐나  
아래마을 모가 나면 웃마을 북이 동동

아, 웃놀이 즐거워라  
장군님 은덕으로 우리 민속 꽃피니  
웃가락이 오를수록 하늘은 높아지네  
웃말이 달릴수록 산천은 밝아지네



## 풍자시

# 부쉬, 그 입에...

리동수

부쉬,  
당신은 덩지큰 《미합중국》의 대통령

흰샤쓰에 화려한 넥타이를 매고  
백악관의 주인으로 거룩하게 앉았건만  
입건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수없는 사나이

낮이나 밤이나 그 입에선  
태평양건너 우리를 향해  
《악의 축》 《테로국가》...

하루에 한가지라도  
모락과 거짓광고 없인 살지 못하는듯  
입만 벌리면 쏟아지는 《인권》 타령  
그리고 또  
《대량살륙무기확산》...

그래  
다음엔 또 무슨 딱지를 붙이려나  
밤을 새워가며 짜내보라구  
목구멍이 터지도록 췌쳐보라구

그래, 달보고 짓는 개 보았나  
지금 놀아대는 꼴이  
꼭 그 모양이야

그래도 그건 개라서 그런다 치고  
《큰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쫓쫓쫓...

분수없이 지껄이는 그때문에  
세계는 부쉬, 당신을  
사물현상도 가려 못보는 청맹과니  
력대 미국대통령들가운데서  
지능수준이 제일 낮은 저능아  
무지막지한 인물에 정신착란증환자로 보지 않나

이젠 그만 붙어대라구  
《대통령》체면에 나이도 적지 않아  
그만하면 철들 때도 되었는데  
생각은 길게 하되  
입이야 무거워야지

내 다시 한번 말하건대  
부쉬, 입다물어  
때도 장소도 모르고  
분수없는 소리를 그냥 췌치면  
그 입 가득히 폭탄을 물릴테야

입질은 고사하고 숨도 못쉬게  
백년간 쌓이고 덧쌓인  
치솟는 우리의 분노로 만장약된  
무자비한 징벌의 폭탄을!

## 가사

# 풋고추맛

풋고추 풋고추 우리 풋고추  
푸르른 빛갈이라 입맛이 당기던가  
토장에 듬뿍 찍어 먹는 맛이란  
우리 민족 아니면 알수가 없지  
어쩔다 어쩔다 얼벌벌  
너무 매워 눈물 찔끔 흘리면서도  
웃으며 먼저 찾는 우리 풋고추  
그 맛을 잃으면 조선사람 아니지

풋고추 풋고추 우리 풋고추  
맛 좋고 빛갈 고운 민족음식 많은 중에  
그 어이 풋고추를 먼저 드는지  
우리 민족 아니면 알수가 없지

어쩔다 어쩔다 얼벌벌  
너무 매워 눈물 찔끔 흘리면서도  
웃으며 먼저 찾는 우리 풋고추  
그 맛을 잃으면 조선사람 아니지

풋고추 풋고추 우리 풋고추  
어제도 오늘도 그 맛은 변함없어  
7천만이 모여서 웃으며 함께 들  
민족의 향기어린 조선맛이라네  
어쩔다 어쩔다 얼벌벌  
너무 매워 눈물 찔끔 흘리면서도  
웃으며 먼저 찾는 우리 풋고추  
그 맛을 잃으면 조선사람 아니지

# 아동문학작품의 지성세계를 높이자

류재영

문학의 지성도는 한마디로 말하여 형상세계의 이성적인 높이를 의미한다.

성인문학과 마찬가지로 아동문학에서도 작가가 높은 지성세계에서 어린이의 심리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현실을 분석하고 잘 형상한 작품은 사상에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랄수 있고 어린 독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화시킬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속에서는 아동문학에 《지성도》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는것처럼, 아동문학작가는 성인문학작가보다 지성세계가 낮아도 되는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편향도 없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아동문학이 작가—어른의 지성수준이 아니라 어린이의 지성수준에서 켜여지는것으로 리해하기때문일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아동문학작가는 주로 어른이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이 어린이의 시점에서 형상을 창조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게 되는 시점은 어른의 시점이 어린이의 시점으로 굴절된것이다. 말하자면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지성수준에서가 아니라 작가 어른이 높은 철학적안목과 지성적인 사고력으로 생활의 본질을 꿰뚫어본 다음 그것을 어린이의 시점으로 굴절시켜 어린이의 나이심리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이다.

아동문학의 지성도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자면 바로 어른의 시점이 굴절된 어린이의 시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어른의 시점이 굴절된 어린이의 시점의 리면에는 작가—어른의 지성세계가 비껴게 되며 그것이 어린이의 시점을 유지하면서 작가가 작품을 통하여 가르치려는 지식의 세계, 개척하려는 미의 세계, 활용하려는 형상기교에로 어린 독자를 최대한 이끌어간다.

지난해에 《아동문학》잡지에 발표된 시들중에서 실례를 들어보자.

철이랑 아까부터  
숙제하는데  
어째서 문제풀이  
자꾸 틀릴가

몇글자도 못쓰고  
어느새 때가  
연필심은 왜 자꾸  
부러만 질가

미제놈들 전쟁연습  
벌리는 소식  
방송에서 팽팡

울려나오니

문제풀이 생각보다  
주먹이 불끈  
그래서 연필심도  
부러지나봐

...

이것은 성연일의 련시 《전화놀이》(11호)중에서 첫번째 동시 《숙제공부 하다말고》이다.

이 시에서 시인의 미학적리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시기보다 철이 일찍 들어가는 어린이, 선군시대의 흐름에 합류되어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는 새형의 어린이를 그리는것이다.

시인은 자기의 사상미학적의도를 그대로가 아니라 어린이의 시점, 즉 동심적인 생활의 한 단면을 담은 화폭으로 굴절시키였다. 다시말하여 공부를 하다가 미제놈들이 전쟁연습을 벌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숙제생각보다 주먹이 불끈하여 문제풀이가 자꾸 틀리는것, 몇글자 못쓰고 연필심이 자꾸 부러지는것으로 굴절시키였다.

지난 시기 같으면 세상물계를 모르고 투정질이나 하였을 어린 아이가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전쟁연습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제에 대한 증오심을 금치 못해하는것은 선군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는 어린이의 새로운 모습이다. 그것이 어른의 시점 그대로가 아니라 미제에 대한 뚫어오르는 증오로 하여 문제풀이가 자꾸 틀리고 연필심이 자꾸 부러지는 구체적인 동심으로 굴절되었기때문에 진실하며 따라서 시에는 서정적주인공의 남다른 얼굴이 엿보이게 되었다.

여기서 어린이의 시점의 리면에 비껴있는 작가의 높은 지성세계란 다름아닌 시인의 높은 미학적리상이다. 그것이 어린이의 구체적인 생활단면을 통해 집약화, 집중화되어 동심적인 시형상으로 부각되었으며 바로 그것이 시인이 작품에 개척하려는 새로운 미의 세계에로 독자들을 최대한 이끌어가고 있다. 때문에 시는 끝났어도 선군시대 새형의 어린이, 서정적주인공의 남다른 얼굴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린이의 시점의 리면에 비껴 시인의 높은 지성세계, 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이 시의 철학적깊이가 보장되고 작품의 세계가 높아질수 있었다는것을 말해 준다.

동시 《문앞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나》(렘정실작 7호)도 《숙제공부 하다말고》와 같이 동심적인 생활의

한 단면을 화폭으로 펼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이 숙제공부가 싫증나서 뿔차려 함께 가자고 딱친구 남이를 찾아갔더니 그는 숙제공부하느라고 여념없다. 모를 문제 부여잡고 줄당기긴가, 짹짹눈맞춤을 암만 하해도 결눈질 모르니 큰 소리로 찾으려다가 입을 막고 만다. 소년단에 입단하던 날 언제나 숙제를 다한 다음 뿔차기도 제기차기도 하자고 손가락 걸며 다진 약속이 생각나서 슬금슬금 뿔구력을 뒤에 감추고 누가 볼세라 달음쳐온다.

매우 아담하고 동심적인 생활화폭이다. 여기에는 생활에 대한 시인의 아동정서적 탐구의 흔적이 어려있다. 그러나 시를 읽고나면 서정적주인공의 남다른 얼굴이 엿보이지 않고 제목 그대로 문앞까지 갔다가 돌아온다는것뿐이다.

이런 류형의 시들에서 어른의 시점을 어린이의 시점으로 굴절시키자면 현실속에서 동심적인 생활화폭을 발견하는것과 함께 거기에 시인의 미학적리상과 창작적개성이 개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에 펼쳐진 화폭은 생활 그대로의 화폭으로서 아직 시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것이 생활에 기초하고있지만 있는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여 저절로 시가 되는것이 아니다. 시인은 이미 파악한 동심적인 생활정서에 대한 체험과 사색을 심화시켜 그것을 자신의 정서로 재창조하는데 이것은 생활 그대로의 화폭에서 비본질적인것, 저속한것을 가려내고 전형적인것,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진실하게 살려내는 형상화의 과정이다. 생활 그대로의 화폭에 대한 이러한 재창조는 종자탐구과정에 시작되어 시창작의 전과정에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어른의 시점이 어린이의 시점으로 완전히 굴절될수 있으며 따라서 어린이의 시점의 리면에 시인의 높은 지성세계가 비껴게 된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재창조과정을 완전히 거치지않고 조급하게 생활화폭을 있는 그대로 원고지에 옮겨놓았다. 때문에 시를 읽고나면 시인의 미학적리상이 낮다는 느낌이 든다.

이 시의 서정적주인공은 숙제공부를 다하고 놀아야 한다는것을 자각하는 어린이이다. 이런 어린이는 오늘날이 아니라 어제에도 있었고 몇십년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 《숙제공부 하다말고》의 서정적주인공은 선군시대와 함께 숨결을 같이하는 새형의 어린이이다. 두 시인의 미학적리상에서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가.

만약 시인이 높은 미학적리상을 가지고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켜 생활 그대로의 화폭에 대한 재창조과정을 거치였다면 이 시가 어린이의 시점의 리면에 시인의 높은 지성세계가 비껴 지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되었을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생활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보고 평가하고 잘 그리자면 어린이의 시점의 리면에 반드시 작가의 높은 지성세계가 비껴있어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면 아동문학은 지성세계가 낮은 사람도 쓸수 있는 쉬운 문학으로 지성도 문제를

론의할 여지가 없게 될것이다. 어린이가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를 거쳐 어른으로 자란다 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으로 올라가는 쉬운 문학으로, 지성수준이 낮은 문학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작가의 높은 지성세계를 느낄수 없다면 그것은 아동문학작품이 아니다.

그러면 아동문학의 지성도가 높다, 낮다 하는것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작품의 지성도를 결정하는 지식과 미의 세계, 형상기교와 문화수준은 성인문학이나 아동문학에 공통되는것이다. 그러나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하여 지성도를 결정하는데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 특성은 무엇보다도먼저 지성도가 어린이의 시점에서 나타났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는데 있다.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시점에서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이다. 때문에 작가의 지성세계가 직접 그대로가 아니라 어린이의 시점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작가가 아무리 박식가라 하여도 작품에 담은 지식과 미의 세계, 형상기교가 어린이가 이해하고 공감할수 없는것이라면 한푼의 가치도 없으며 그런 데서는 지성세계를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어린이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지성도는 우선 작품에 어린이가 알고 받아들일만 한 새로운 철학세계가 개척되었는가, 어린이가 공감하고 높이 올려다볼만 한 미의 세계가 개척되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이자면 새로운 철학세계와 미의 세계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문학작품에 작가에 의하여 발견된 새로운 생활철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철학성과 관계되는 문제인 동시에 지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된다.

문학작품의 철학성은 철학적인 내용을 취급하였다고 하여 생기는것이 아니며 철학적인 양상을 띤다고하여 보장되는것도 아니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성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주로 작가의 새로운 발견이 깃들어있고 형상이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게 하는 깊이를 가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아동문학이라 하여 철학성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결국 작가의 새로운 발견과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게 하는 형상의 깊이를 부인하는것으로서 아무런 탐구도 없이 작품을 되는대로 쉽게 쓰려는 그릇된 경향이라고 할수 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지적수준과 인식능력이 낮은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에서 새로운 철학세계를 개척하자면 작가가 어린이의 시점에 톤톤히 서있어야 한다. 어린이의 시점에 톤톤히 서있는 작가는 높은 철학적안목과 지성적인 사고력으로 생활속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

제, 철학적인 문제를 찾아내며 그것을 어린이가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품에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게 된다.

지난해 전국문학축전입선작품인 동화 《류다른 이름》(김박문작)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로 포착하고 그것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의인화적 화폭을 통하여 천명하였다.

푸르내마을 개울가에 있는 올챙이학교에서 배움의 첫 발자국을 땀 옥개구리가 이름 높은 바글기상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날씨알림소에 배치된다. 얼마안되어 기상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소장사업까지 맡게 되자 옥개구리는 저도 몰래 축대끝에 오른 민중이마냥 우쭐해지기 시작한다. 어느날 배움의 첫자욱을 함께 땀 비단개구리가 찾아와서 첫 글자를 배워준 올챙이학교의 참개구리선생의 생일인데 함께 가자고 하자 옥개구리는 올챙이때 글을 좀 배운 선생에게 박사인데다가 소장인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하기가 창피하여 며칠후에 기자들과의 상봉모임이 있다는것을 구실로 가지 않는다. 그후 어느날 비단개구리와 함께 찾아온 참개구리선생이 날씨알림에 대한 조언을 주려 하자 올챙이때면 몰라라 이젠 다 커서 같은 개구리가 되었고 지위도 더 높은 자기를 가르치려 한다고 고깝게만 생각한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참개구리선생이 허리 굽은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찾아와서 날씨연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면서 책 몇권을 내놓고 간다. 옥개구리는 그 책들이 고강년에 쓰던 일기 같다고 하면서 적당히 처리하라고 하자 서기가 불쏘시개를 하고만다. 그 책으로 말하면 개구리가문에 가보로 전해져 내려오는 《날씨실록》이었다. 옥개구리는 그 책을 보지 않은탓으로 기자상봉모임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며 참개구리선생은 귀중한 《날씨실록》이 불쏘시개로 되었다는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고 옥개구리는 때늦게 스승을 잘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슴을 친다.

이 동화에서 형상의 힘은 진실성과 철학성에 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과 엄마의 말을 안듣다가 엄마를 잃은 다음에야 자기를 후회하며 가슴을 치던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주는 경험과 교훈을 바로 그 개구리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고있기때문에 진실한것이다.

우리들속에는 이 동화에 나오는 참개구리선생과 같이 한생을 제자들에게 진정을 바쳐가는 스승들이 있는가 하면 옥개구리와 같이 일정하게 발전하거나 잘되면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도 몰라보고 우쭐대는 제자들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위해 자기 한몸을 초월과 같이 불태워온 참개구리선생과 스승을 욕되게 한 옥개구리의 형상은 우리들에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산 경험과 교훈을 주고있다. 그것은 스승은 제자를 잘 가르쳐 자기를 따라 앞서게 하며 제자는 스승을 따라배워 그를 롱가해야 한다는것, 그러자면 스승은 제자에게 진정을 바쳐야 하며 제자는 스승을 잊지 말고 존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작품이 담고있는 생활의 귀중한 진

리이다. 사람들을 사색의 세계으로 이끌고갈만 한 생활의 진리, 심오한 문제성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작품은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있으며 높은 지성도를 느낄수 있다.

문학은 인간생활의 미를 찾아내고 그리는 사회의식의 한 형태이다. 아동문학작가가 현실에서 무엇을 아름다운것으로 보며 그것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그려내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지성도를 재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미학적리상이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런만큼 아동문학이 어린이에 대한 사상정서 교양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미의 세계를 펼치는데서 어린이의 미학적감정을 절대적기준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작가가 어린이의 시점에 서있어야 한다.

작가가 어린이의 시점에 톤트히 서있으면 주로 어린이와 그 생활을 미적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어린이가 공감하고 높이 올려다볼만 한 미학적리상으로 그려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된다.

중편소설 《너를 기다린다》(박현작)의 주인공 창무의 정신세계에서 아름다운것은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학습목표를 높이 세우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완강하게 노력하는것이다.

창무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목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처음에는 날아가는 배, 다음에는 수중날개선, 또 다음에는 다시 날아가는 배를 완성하려고 애를 쓴다. 그 과정에 난관도 적지 않았고 가슴아픈 실패도 있었다. 헛간에 차려놓은 실험실에서 똑딱거리며 맞추고 실험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치다가 대수과목에서 보통점수를 맞는 수지도 당했고 말쑥꾸러기라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헛간 실험실에서 하는 그의 작업은 결코 손재간이 있는 아이의 부잡스러운 장난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학교 2학년학생이 4학년교과서의 내용을 통달하고 아버지가 보는 《선박편람》을 몇번이나 읽고 터득한 지식에 기초한것이었다. 그는 B.C. 5000년경부터 시작된 선박공업의 역사가 후대들에게 《그때 당신들은 오늘과 같은 발전된 시대에 어떤 배를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던져주는 물음에 대답하려고 모태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생을 바치려고 결심한다. 때문에 그는 전동기를 설치한 꼬마기계선을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분단에서 조직한 쏜뿔전람회에 내놓지 않는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창조물이 완구상점의 장난감매대에 혼한 물건과 같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창무는 과학자의 필것을 꿈꾸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실책을 느끼면서 아직은 세상에 없으나 꼭 있어야 할 날아가는 배를 만드는 어려운 길을 변함없이 걸어간다.

이처럼 학습목표가 뚜렷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노력하는 창무의 성격은 어린 독자들에게 조국의 미래와 나라의 과학발전에 새세대의 위치와 임무를 깨우쳐준다. 때문에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탐구의 길을 걷는 어린 독자들은 자기들이 지향하는 주인공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공감하고 높이 올

려다보게 되는것이다.

어린이가 공감하고 높이 올려다볼만 한 미의 세계를 개척한다고 하여 아동주인공의 성격을 리상화하지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키와 몸집만 작고 속은 어른과 다른 점이 없는 아이를 그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에 발표된 아동소설들에는 아이다운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아이들도 등장하였다.

단편소설 《기다리는 동무》(김학근작, 7호)에서 《빨간 변두》로 불리우는 처녀애가 바로 그렇다. 군경연에서 1등을 하고 도 《알아맞추기경연》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차를 타러 가다가 논두렁에서 물새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도루레놈들이 똥은 물구멍을 막는 처녀애, 뽕죽산 험한 길을 두번이나 오르내리며 박새풀을 뜯어다가 도루레와 두렁허리놈들을 잡느라고 기차를 놓쳐버리고 도 대수롭지 않아하는 처녀애, 돌채석장 차를 타고 가자고 하자 돌나르기에 바쁜 차들이라고 마다하면서 도까지의 그 먼길을 걸어가는 처녀애는 어느모로 보나 아이답게 안겨오지 않는다. 당장 도경연에 가야 할 바쁜 길이지만 《그까짓, 기차야 놓쳤으면 뭐라니?》 하는것이라든가 용이에게 고향땅의 물냄새에 대하여 마치 어른처럼 깊이있게 일깨워주는것이라든가 하는것 등은 너무도 어른스럽다. 처녀애가 이처럼 어른스러워진것은 어느 한가지 측면에 모를 박아 그리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공부에서 1등이고 논두렁을 아끼는 마음 또한 어른들도 미처 따르지 못할 빈틈없는 아이로 그려놓았기때문에 아이로서의 계선을 넘어 어른스러워진것이다.

어린이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지성도는 또한 어린이의 흥미에 맞는 형상수단과 수법, 형상기교를 높은 수준에서 리용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문학의 흥미문제는 성인문학보다 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것만큼 작품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 어른은 목적의식적으로 책을 읽는다. 어른은 작품이 제기한 인간문제와 주인공의 성격을 통하여 사람은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배우고 작품에 펼쳐진 생활화목을 통하여 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며 감정정서를 풍부히 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읽는다.

그러나 아동문학의 독자대상인 어린이의 경우는 다르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문학작품을 재미에 끌려 읽는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사고가 단순하고 지속성이 약한 어린이의 흥미가 어른의 흥미보다 지향성이 약하고 확고하지 못하기때문이다. 어린이의 흥미는 순간적인 동기에 의하여 이것저것에 주의를 돌리거나 그 대상이 자주 변한다. 때문에 어린이는 좋은 내용을 담은 작품이라 하여도 재미있게 쓰지 못하였을 때에는 인차 싫증을 느끼고 책에 정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꿀벌이 향기나는 꽃을 찾아다니듯이 어린이가 스스로 책을 읽게 하여야지 그들에게 억지로 책을 읽히워서는 별로 소득이 없다. 결국 아동문학의 흥미문제는 어린이가 문학작품에 정을 붙이고 읽게 하는가 싫증을 느끼고 덮어버리게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작품이 얼마나 흥미있게 씌여졌는가 하는것은 지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된다. 때문에 아동문학작가는 묘사대상을 선택하고 그리는데서 어린이의 리해수준과 함께 흥미를 선차적인 기준으로 내세우고 작품을 재미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작가가 어린이의 시점에 톤튼히 서 있어야 한다.

작가가 어린이의 시점에 톤튼히 서있으면 어린이의 흥미를 자아낼수 있는 형상수법을 탐구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게 된다. 아동문학에서의 인화, 과장, 환상 등의 수법으로 성인문학에서 볼수 없는 특이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해에 창작발표된 동화 《보이지 않는 집》(김재영작, 2호)은 착상이 기발할뿐아니라 동화적 환상수법을 특색있게 활용하였다.

이 동화는 매 자식이 자기 똥을 다 하면 부모들의 집이 멀어지고 매 집마다 세 똥을 다 하면 나라가 허리를 편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눈으로 볼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속 집을 동화적형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작가는 환상을 펼치였다. 팔방할아버지에게서 신기한 안경을 받은 선동이가 집에 와서 그것을 끼고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고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니 등에 큼직큼직한 자루를 세개씩이나 지고있다. 안경을 벗으면 그 집들은 보이지 않는다. 밤이 되어 잠든 어머니의 곁에 누운 선동이가 안경으로 근심자루들을 바라보니 거기서 어머니의 걱정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맨 꼭대기자루에서는 말이인 자기가 농사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가운데 자루에서는 둘째가 무술을 제대로 닦지 않는다고, 맨 밑자루에서는 셋째가 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다음날부터 선동이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둘째는 무술을 익히고 셋째는 서당에 다니며 글을 착실히 배운다. 몇달후에 세 형제는 신기한 안경으로 기뻐서 웃고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니 등에는 아무런 짐도 보이지않는다.

보는바와 같이 아들들이 제구실을 못할 때에는 어머니의 등에 세개씩이나 얹혀있던 근심자루가 제구실을 하니 보이지 않는다는 환상은 작품의 사상적내용과 철저히 부합되는것이다. 자칫하면 억지스러운 감을 줄수있는 내용이지만 재미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는것은 작가가 환상수법을 솜씨있게 활용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깊이 따지고들면 동화적 환상이 어딘가 모르게 진실치 못한 느낌도 든다. 그것은 환상적존재의 특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본다. 환상적존재란 일정한 대상에 그 어떤 신기한 특성이 부여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때문에 어느 한 대상을 환상적존재로 설정함에 있어서 될수

록 그 신기한 특성이 해당한 대상의 생태적특성과 가까운것으로 되어야 보다 진실하게 될수 있다. 가령 돌맹이를 환상적존재로 설정하는 경우 그것이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금덩이로 변하는것으로 하면 별문제이지만 돌맹이에서 그윽한 향기가 풍겨나오는것으로 한다면 진실치 못하게 느껴질것이다.

이 동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환상적존재인 안경의 특성은 잘 보이는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경을 끼면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본다는것은 일없이 말소리까지 들린다는것은 어딘가 모르게 진실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맨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볼수 있는 신기한 안경인데 자루안에 들어있는것이 무엇인지 왜 보이지 않겠는가. 그 자루안에는 제구실을 못하는 자식들의 모습과 그것을 보며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새겨져있을수도 있다. 그러한 모습들이 쌓여 무거운 근심자루로 되었을수 있다. 그것을 신기한 안경으로 생동하게 볼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환상적존재가 안경인만큼 자루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것은 시각적으로 확인되어야 보다 자연스럽고 진실한것이다.

작품의 지성도를 재는데서 아동문학이 가지는 특성은 다음으로 지성도가 작품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도 공감시킬수 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는데 있다.

문학이 독자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성인문학과 아동문학으로 갈라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들도 성인문학작품을 읽고 어른들도 아동문학작품을 읽고있다. 어른에게도 흘러간 어린 시절에 대한 체험이 있고 더우기는 아이들을 교양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생활적으로 이해하고싶은데로부터 아동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성세계가 돋보이는 작품은 재미있게 읽는다. 동서고금에 이틀난 아동문학작품들이 어른들속에서 널리 애독되는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아동문학작가는 자기가 쓰는 작품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도 읽는다는것을 명심하고 착상을 하여야 하며 형상세계를 펼쳐나가야 한다. 어린이와는 다른 심리적특성을 가지고있는 작가—어린이 어린이의 시점에서 지성수준을 높여 어른들도 공감시킨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이것은 아동문학작가에게 있어서 큰 고충이며 난문제가 아닐수 없다. 아동문학이 쓰기 혈한 글인가 힘겨운 글인가 하는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실력을 높이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하여야 한다.

지난해 전국문학축전입선작품인 동요 《군대누나 우리 누나》(백광명작)는 진실하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동요에서 진실성은 사람들의 보편화된 심리에 발을 붙이고 생활정서를 펼쳐어나간데 있다.

밤하늘에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며 떨어져있는 귀중한 사람들을 그리는것은 사람들의 보편화된 심리이다. 여기에 발을 붙이고 동요에서는 살구나무아지구의 보름달을 보며 표창휴가 받고왔

던 군대누나를 그리는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세계가 펼쳐지고있다. 달나라만리경 옛말얘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던 누나, 밤길도록 농장일을 도와주면서 달빛아래서 수학문제를 함께꾼 누나... 이런 시적세부들이 달과 련관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사상감정이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것이다.

이러한 진실성에 기초하여 이 작품의 철학적깊이가 보장되고있다. 이 동요의 철학적깊이는 하나의 화폭을 통하여 다른 생활화폭들도 련상하게 한다는데 있다. 동요에는 서정적주인공이 달을 보며 군대누나를 그리는 하나의 화폭이 펼쳐졌지만 독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군대누나도 고지우에 솟은 그 달을 보며 고향의 아이들을 그리는 화폭을 련상하게 된다. 그리고 서정적주인공이 군대누나를 《우리 누나》라고 부르는 소리와 멀리 초소에서 군대누나가 《우리 동생》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한데 어울려 메아리치는것도 들게 된다. 나아가서는 인민은 군대를 그리고 군대는 인민을 그리는 군민일치의 대화폭을 련상하게 된다. 여기에 바로 하나를 통하여 많은것을 헤아리게 하는 철학적깊이, 사색의 깊이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발표된 시들중에는 사색의 심도가 깊이 느껴지지 않는 시들이 없지 않다.

어느 한 동시에서는 학부형회의에 갔던 아버지가 대렬의 뒤에 선 서정적주인공을 보고 우리 딸이 집에서도 막내가더러 학급에서도 막내이라고 하다가 경쟁도표에 제일 높이 솟아오른 붉은 줄의 키를 보고는 제일이라 기뻐한다고 하면서 결국에 가서 학생의 키는 지식의 높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여기서 서정적주인공의 작은 키와 경쟁도표줄의 큰 키를 대조시켜 학생의 키는 지식의 키라는것을 강조하려는 필자의 의도는 좋다. 그것이 구체적인 감정조직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흘러나오면 좋은 시로 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사상감정을 제시하고는 충분한 감정조직이 없이 서둘러 마무리를 하다보니 필자의 사상미학적의도가 직선적으로 생경하게 안겨오고있다. 시에서 감정조직은 시인의 사상미학적의도에로 사상감정을 한결음, 두결음 이끌어올리는 사색과 탐구의 과정이다. 충분한 감정조직을 하지 않았다는것은 결국 사색과 탐구를 깊이있게 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작품은 사색의 산물이며 작품의 지성도는 사색의 심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사색과 탐구를 하지 않으면 아동문학은 아주 혈한 글로 될것이지만 어른의 시점을 어린이의 시점으로 굴절시키는 사색과 탐구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나면 힘겨운 문학이라는것을 깨닫게 될것이다.

아동문학작품이 어른도 공감시킬수 있는 지성도를 결정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작품에 어린이와 어른의 공통된 체험에 기초한 미적지향을 반영하고있는가 하는것 이다.

어린이와 어른의 공통된 체험이란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두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수 있다.

하나는 어린 시절에 대한 체험이다.

어른은 이미 어린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된것만큼 어

린시절에 대한 체험은 어린이나 어른에게 있어서 공통적인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늘이 들끓는 사회주의현실과 시대의 주도적감정에 대한 체험이다.

오늘 우리의 어린이들은 학교물리안에서만 맴돌지 않는다. 그들은 학교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것과 함께 사회관계속에서 생활하면서 교육교양을 받는다. 때문에 체험의 깊이에서는 어른들과 차이가 있으나 어린이들도 자기의 시점에서 들끓는 사회주의현실과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체험하고있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작품에 어린이와 어른의 공통된 체험에 기초한 미적지향을 잘 탐구하여 그러면 어른들도 능히 공감시킬수 있다.

중편소설 《1학년생》(김정작)에서 작가가 아름다운것으로 본것은 자기 집, 자기 동네, 자기 학교의 좁은 테두리속에서 인간세상을 내다보는 1학년생들이 나이를 당겨 하루빨리 철이 들고 자라나려는 정신세계이다. 이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어른에게도 멀리 흘러간 1학년시절에 대한 못 잊을 체험이 있다. 때문에 1학년생들이 빨리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끌어주려는것은 어른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체험에 기초한 미적지향으로 하여 이 소설은 어린이도 어른들도 다 좋아한다.

어린이가 이 소설을 좋아하는것은 저들의 동심을 생동하게 그린것과 함께 자기가 지향하는 주인공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공감하고 높이 올려다보게 되기때문이다. 어른이 이 소설을 좋아하는것은 작가가 생동하게 그린 1학년생들의 동심세계를 보며 가벼운 공상속에서 흘러간 자기의 유년시절을 즐겁게 추억할뿐아니라 코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매달려 응석이나부렸던 자기의 미운 일곱살때와 금동이네를 대비해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나이를 당겨 몰라보게 자라는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경탄하고 높이 올려다보게 되기때문이다.

어른들도 공감시키는 아동문학작품들에는 어린이와 어른의 공통된 체험에 기초한 정서적지향이 잘 반영되어있다. 그것은 아름다운것이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으며 사람에 의하여 정서적으로 파악되는 사물현상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적지향에는 정서적지향이 반영된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주도적인 감정을 동심적으로 잘 일반화하였기때문에 어린이들뿐아니라 어른들속에서도 널리 불리우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이 세상에 좋은것이라면 다 그들에게 돌려주시였다. 어린이뿐아니라 어른들도 세상에 태어난 첫날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 날마다 당과 수령의 은덕을 받아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공통된 체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도 어른도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당의 품을 자기의 집으로 생각한다. 가사에서는 우리의 어린이의 어른들의 공통된 체험에 기초한 정서적지향을 동심적으로 일반화하여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표현하여 수령님과 당에 대한 뜨거운 신뢰의 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함으로써 어린이뿐아니라 어른들도 크게 공감시키고있다.

노래 《고향의 봄》을 들으면 누구나 나서 자란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들게된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타향에 가서 정든 고향산천을 그리는 마음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를바가없었다 물론 체험의 깊이에서 차이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가 울긋불긋 꽃대결을 차리인 동네, 파란 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속에서 놀던 동요시절에 대한 체험은 어린이나 어른에게 공통적인것이다. 그에 기초한 어린이와 어른의 정서적지향은 하루빨리 조국을 찾고 정든 고향으로 가고싶은 갈망이다. 이것은 당대 인민대중의 주도적감정의 하나였다. 이처럼 노래는 그리움과 갈망이 뒤엉킨 절절한 감정을 동심적으로 잘 일반화하였기때문에 어제 또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고있으며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서 자란 고향과 조국을 생각하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열망으로 가슴 불타게 하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작품의 지성도를 재는데서 아동문학이 가지는 특성은 지성도가 어린이의 시점에서 나타났는가, 작품이 어린이뿐아니라 어른도 공감할수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는데 있다.

아동문학작품의 지성세계는 작가의 지성도의 한계를 벗어날수 없다. 아동문학작품의 지성수준은 전적으로 작가의 지성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동문학작가는 성인문학작가와 지성수준이 못지않아야 한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아동문학작가가 성인문학작가보다 지성세계가 더 높아야 한다. 그것은 아동문학작가가 어른의 지성세계를 어린이의 나이심리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작품에 반영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작가는 아는것이 많아야 한다. 아동문학작가가 철학의 빈곤, 지식의 빈곤, 상식의 빈곤에 빠지면 아동문학을 매우 쉽게 여기고 접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동문학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단순하고 쉬운 문학으로 지성도를 논의할 여지조차 없게 될것이다.

아동문학작가는 지성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바로 가지고 생활의 박식가로, 뜻이 높고 수양이 있는 문화인으로 되여야 하며 생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철학적인 안목과 지성적인 사고력, 높은 형상능력을 지니고 아동문학의 지성수준을 높이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 내 조국의 하루

강옥녀

## 1

내 나라의 아침을 보려거든  
이 새벽 거리로 나오십시오  
밤이슬을 박차고 병사들이 지나간 거리에  
하나 둘 불이 켜집니다  
쌀씻는 녀인들의 모습에  
부엌창가마다에 비졌습시다  
저 굶인들이 건설장에서 울리는 기상나팔소리가  
새벽대기를 흔들며 울려퍼집니다  
땀줄을 쥐고 쿵쿵 땀박질하는 녀학생들 걸음에도  
마당을 쓰는 아버지들의 모습에도  
삶의 약동이 한껏 기운찬데  
밤새워 먼길 달려온 열차의 기적소리너머  
하늘은 한물씩 밝아옵니다  
방층에서 울리는 경쾌한 음악에 발걸음 가벼이  
맑은 공기 한껏 들이키며  
이 땅을 한품에 안고 높이높이 날고픈 마음  
정녕 사랑하는 마음없이는  
안아볼수도 그려낼수도 없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아침입니다

## 2

태양이 푸른 하늘 중천에 오르는 때면  
내 나라는 로동의 희열에  
한껏 달아오릅니다  
쟁글쟁글 햇빛이 입을 맞추는 푸른 벌에  
물관리공은 온도계를 들여다보며  
두렁길을 분주히 오고가고  
흰구름 한몽치가 떨어졌는가  
산굽이를 돌아가는 하얀 염소떼  
방목공의 긴 회초리가  
푸른 하늘에 원을 그립니다  
용해장의 채광장에서선 눈부신 햇빛이

상식

쏟아지는 쇠물과 어울립니다  
로동의 구슬땀이 흠뻑 익는 한낮  
밭이 닳도록 조국에 열정과 힘을 다 바치며  
뛰고 또 뛰는 한낮  
이 땅의 공민된 주인들이  
조국에 바치는  
사랑의 권리로만 느낄수 있는 한낮입니다

## 3

하늘의 미끄럼을 타고  
해가 서산마루에 내리는 때면  
로동의 희열로 푸근히 젖어든 이 땅이  
빠근해지도록 보람의 무게를 떠인 시간입니다  
저탄장에 높이높이 석탄산 쌓아놓고  
집으로 향하는 탄부들의 얼굴에 다 어려있습니다  
밭머리에 모여앉아 하루종일 짓는  
농장원들의 얼굴에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즐거운 하루가 머물러있습니다  
아마도 로동에 잠그었던 열기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식힐수 없는가 봅니다  
공원에 앉아 다정히 속삭이는 청춘들이며  
분수가를 못떠나는 사람들이며...  
아 궁지로온 일이 많아  
하고싶은 이야기도 많아진 시간  
누구는 일기장을 펼치고  
누구는 귀여운 아이들을 부쩍 추켜올리며  
조국에 바친 하루일을 궁지로이 안아보는 이  
저녁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  
끝없이 끝없이 전선길을 달리고 계시는 시간  
누구나 하루일 끝낸 즐거운 휴식의 이 저녁 위해  
우리 장군님 전선길 걸으시는 시간입니다

## 《부락의 유래》

《부락》이란 말은 오랜 옛날  
부터 우리 나라에서 써왔었다.  
《부락》이란 한자말로써 《마을》  
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마을을 한자로 《촌》, 《부  
락》, 《마로》, 《모로》 등으  
로 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는 《부락》이라는 표현을 오래  
전부터 써왔는데 그에 대하여  
서는 여러력사책들이 전하고있  
다.

《삼국사기》(권 13 고구려본  
기 동명왕 원연조)에 B.C. 277  
년의 일로서 고구려를 건국하  
였을 때 《그 땅은 말갈부락과  
접해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책 백제본기에 B.C. 3세기 중엽  
의 일로서 《2월에 한수(한강)  
동북의 여러부락 사람들의 나  
이 15세이상을 징발하여 위례  
성(왕궁)을 수리하였다.》(시  
조왕 41년)고 기록되어있다.

《삼국사기》뿐아니라 고려와 조  
선봉건왕조시기의 역사를 기록  
한 《고려사》, 《조선봉건왕조  
실록》에도 《부락》이라는 말  
이 서술되어있다.

일본 역시 《부락》이란 표현  
을 쓰고있는데 이것은 17세기  
일본의 도꾸가와 막부시대에  
처음 생겨난 말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넘어간것으로 보고있  
다.



## 일력을 번지며 (외 1 편)

### 리광규

오늘도 일력을 번지며  
나는 생각하노라  
이 한장의 무게와  
내 삶의 무게를

가볍다고  
이 한장을 쉬이 넘긴적은 없는가  
조국에 대한 의무보다  
권리부터 앞세우며  
하루계획 못다한채  
서둘러 퇴근길에 오른적은 없는가

조국에 바쳐야 할 땀을  
래일의 빛으로 남긴채  
못다 뿜인 쇠물은 없는가

그 못다 뿜인 쇠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오른  
조국의 발걸음 늦어진다면  
내 어이 이 일력을  
가벼이 번지랴

인생의 나날은  
한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아  
한일 없이 흘러보낸 하루로 하여  
삶은 돌이킬수 없는 후회를 남기나니

그때문에 땀흘린 자격없이  
쉬이 번질수 없는 이 일력장  
내가 남긴 인생의 공백으로 하여  
조국에 무거운 짐이 실리지 않게  
못다 뿜인 쇠물로 하여  
조국이 흘리는 땀이 많아지지 않게

### 유모아

조국의 걸음을  
이 마음에 새겨보며  
오늘도 공장에서 돌아와  
일력을 번지네  
내 마음을 번져보네

## 쇠 물

나는 아직  
조국땅을 다 밟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사택마을 내 집 트랙에서  
공장구내까지 길지 않은 출근길을 걸으며  
온 나라 길들을 밟아본다

5리도 못차는 출근길로는  
천리로 뻗은 조국땅을  
다 밟을수 없어도  
날마다 쇠물을 끓이며  
넓고넓은 조국땅 방방곡곡  
다 밟아보는 이 마음  
어찌 그렇지 않으랴  
내 끓이는 쇠물로  
공장이 일떠서고  
새집이 일떠서고...  
어디선가 무쇠선단이 바다를 헤갈 때  
내가 끓인 쇠물로 무어진 배들만 갈아  
용해공의 긍지를 한껏 느꼈나니

나는 아직  
조국땅을 다 밟아보지 못했다  
허나 조국땅 한끝에서 한끝까지  
쇠물로 나는 밟아본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먼먼 미래까지...

## 귀에 끼워놓은 만년필 찾기

국장이 서기를 불러놓고 《서기동무, 내 만년필을 어디에 두었소?》하고 물었다. 《내가 건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장님귀에 끼워있지 않습니까?》 서기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바빠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라는것을 모르오? 알려주려면 아예 어느쪽 귀에 끼워있다고 말해줘야지!》 국장이 짜증스레 말하였다.



장선홍

삼봉발전소건설장에 여러해째 돌격대대대장으로 나가있는 수길은 회의차로 도에 갔다오는 길에 시간을 내어 집에 들렸다. 1년만에 만나는 상봉인지라 안해와 아들이 얼마나 반가와하는지 그는 눈굽이 막 달아올라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다. 어느 한시도 잊은적 없는 혈육들이었다. 그러나 감격의 해후가 가져온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생각은 그만하고 이걸 좀 보시라요.》

건설장에서 갯을 떠나지 않고 긴장하게 전투를 벌리고있는 대원들 생각에 사로잡혔던 수길은 그 제서야 제정신이 들어 안해가 펼쳐든 단풍잎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진 고급비닐벽지를 의아한 눈길로 한동안 덤덤히 바라보았다.

《어때요. 방안이 대번에 환해질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저마다 이 무늬를 찾는대…》

《그래? 좋구만. 그런데 아직 우리 벽이야 깨끗하지 않소!》

《당신두 참, 우리도 집을 좀 번듯하게 꾸리고 삽시다. 옥이도 제대되어 오겠는데… 오면 시집도 보내야지요. 다른 집들을 좀 가보라요.》

《허허허… 깨끗하면 됐지 별 허식을 다 부리누만…》

《예?》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지 대번에 안해의 쌍겹진 눈이 가늘어지더니 《참,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하고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수길은 안해의 심정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방안에 그뿐하게 갖추어진 천연색텔레비죤이며 랑동기, 선풍기를 빙 둘러보았다. 그가 집을 떠나있는 사이에 안해가 마련한것들이

였다.

《어서 식사나 하세요.》

딸이 군대에 나가고 아들이 하나 남아 셋뿐인 단출한 식구지만 이렇게 오붓하니 마주앉아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길은 《이런, 상이 요란하구만. …》하고 부러 손까지 썩썩 비비며 나왔었으나 몇술 뜨지 못하고 자주 빈 저가락질을 했다. 돌가루 떨어지는 막장에서 시간이 아까와 무릎까지 물속에 잠그고 주먹밥을 선택로 먹고도 웃으며 착암기를 잡는 대원들의 얼굴이 망막을 따갑게 지지며 떠올라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물이 맞지 않아 앓는 대원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어디 아프세요?》

장마구름처럼 근심이 서린 안해의 얼굴이 산후 탈때문인지 몹시도 작아보였다.

《아니, 아무 일도 아니요. 건설장생각이 나서…》

《당신은…》

안해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그바람에 모처럼 마련된 자리건만 흥은 모래불에 물쫓듯 가라앉고말았다. 부엌으로 나가는 안해의 어깨가 별스레 처져보였다. 수길은 속이 알끈해났다.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 그들은 지워지지 않았다.려단에서는 삼지연지구건설때부터 오늘까지 여러해 동안 대대장사업을 해온 그의 수고를 생각하여 이젠 인계하고 들어가라고 또 권고했다.

밤이 깊었으나 수길은 뒤치락거리며 오래동안 잠들수 없었다. 대대는 장마철전으로 힘겨운 가배수로물길굴공사를 끝내야 한다. 수력발전소건설이란 물과의 싸움이어서 가물막이공사가 제일 어려운데 가물막이공사는 강물을 돌리기 위한 가배수로물길굴공사가 선행되어야 했다.

공사량에 비해 시간이 모자라는것이 제일 안타까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삼지연지구건설을 끝내고 삼봉발전소건설장에 도착한지도 몇달이 지났지만 물길굴공사에 제격 달라볼다보니 아직 안착된 생활조건을 갖추지 못한것이였다.

대원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것은 지휘관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였으나 모두가 건설을 하면서 가설건물을 꾸리겠다고 들이대는데는 그도 어찌는수가 없었다. 거기다 축산을 통이 크게 해보자고 돼지, 염소는 물론 오리며 계사니, 칠면조까지 가져다놓았으나 사양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밖에도 부식물문제며 세탁소문제며 생활에서 제기되는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 나날 그의 눈앞에는 자주 안해의 얼굴이 떠올랐다. 축산전문학교졸업생으로서 다년간 목장에서 일도했고 또 기능이 높은 운돌수리공이면서 부업에서는 막히는데가 없는 분옥이였다.

건설장에는 지금 이런 돌격대원이 필요했다. 그가 몇달만이라도 건설장에 나와 일해준다면 대대에 큰 도움이 될것이였다. 작년에 집에 들렀을 때 시름시름 앓는 안해를 보고 온터여서 선뜻 결심을 내릴수 없었으나 수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출장길에 아예 안해를 데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안해는 병원에서 금방 퇴원하여 안정치료를 하고있었다. 환절기면 도지군 하는 산후탈로 인한 병이라고 말은 별치 않게 했으나 그런것만 같지 않았다.

수길은 그간 자기가 안해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는 자책으로 하여 온밤 마음이 편안치 않았다. 군관으로, 농장관리일군으로 군인민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책임적인 일을 맡아온 남편을 시중하느라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안해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문득 군사분계선이 바라보이는 전연초소에서 군관으로 복무할 때 서해안지방의 어느 한 큰 젖소목장에서 일하는 분옥을 알게되던 일이 방불히 되살아났다.

렬차는 지평선 한끝까지 검푸른 물이 가득차 출렁이는 해안선을 끼고 달리고있었다. 맞은편 의자에 앉은 가름한 얼굴에 까만 눈동자가 새별같이 반짝이는 처녀는 전연군관들의 생활을 무슨 신비한 세계처럼 무척 알고싶어했다.

《전연군관들에게 무슨 다른 생활이 있겠소. 총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인데... 초소군무, 훈련, 그지 이런 생활이 반복되지.》

별치 않게 대답하던 그는 무춤 굳어섰다. 유순하게 반짝이던 처녀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서 확하고 불꽃이 피어올랐던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그 생활처럼 소중한 생활이 어디있어요? 조국의 운명과 잇닿아있는 생활이 아닌가요.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를 지키는...》

반발이라도 하듯 당돌하게 내쏘는 처녀의 말마디는 흥분으로 하여 가늘게 떨리기까지 했다.

뜻밖의 봉변이었으나 수길은 숨이 쉼 막히는 기쁨을 느꼈다.

《고맙소. 처녀동무!》

그들은 이렇게 서로의 인연을 맺었다.

그때부터 분옥은 군관의 안해답게 정말 남편이 사랑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 생활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쳤다. 351고지가 바라보이는 최전연초소인 무봉중대에서 형제봉초소로 거기에서 또 쌍바위고지로, 어깨우에 별이 늘어날 때마다 그가 옮겨간 초소마다에는 남편과 전사들을 위해 바친 분옥의 소중한 땀과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그가 힘에 부친 임무를 받아안고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척척 해낼수 있는것은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안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수길은 종시 잠들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이제는 대대장일을 인계하고 들어와 안해곁에 있으면서 돌봐주어야 옳은 처사일것 같기도 하였다. 처음 교대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도 안해생각을 하지 않은것은 아니였으나 그때는 오늘처럼 절박하게 생각지 않았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건설장일이 더 마음 썩여졌다.

수길은 마음이 승승하여 새벽녘에야 겨우 푹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니 어제는 래일 가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떠나겠다는건 무슨 소리예요?》

《가야겠소. 지금이 제일 바쁜 때요.》

《이제 가시면 당장 돌아서기 힘들다면... 한두달 있으면 혁이가 군대에 가겠는데 하루 쉬면서 사진도 찍고 함께 은정각에랑 올라가보세요. 옥이도 아버지가 없을 때 군대에 나간걸 두고두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식들의 심정이 꽤부로 마쳐와 수길은 가슴이 찢르르 해졌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돌릴수 없었다.

《아버지, 제가 가면 이제 어머니 혼자 집에 있어야겠는데... 언제 들어오시나요?》

자는줄 알았던 아들이 어느새 일어나 앉았다.

《혁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안해가 아들의 말을 엄하게 놀려버렸다. 수길은 마음 한끝이 무거웠으나 후날 자식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꼭 이해할것이라고 믿어졌다.

《여보. 제가 이제 무얼 도와야겠는지 말씀해주세요.》

분옥은 간절한 어조로 말했으나 수길은 안해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안해에게 부탁할것이 많았다. 이 지방엔 지우초와 황백피가 많아 그걸 섞어 지우황을 만들어 쓰면 배앓이에 특효가 있다. 목장에서 사료영양분석에 관한 논문까지 준비하던 안해여서 누구보다 그 일을 잘할수 있었다. 자기자 알아누우면 백두산지구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발전소건설이 늦어진다면서 온종일 광차를 미는 대원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랴. 그러나 그걸 채취하자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했다.

수길은 그전 같으면 안해가 힘에 부쳐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부탁을 스스럼없이 하였겠지만 오늘은 종시 그 말이 입에서 나가지 않았다.

《당신 도움을 받을 일은 정말 많소. 하지만...》  
수길은 저도 모르게 탄식조로 이런 말을 뱉어  
놓고는 인차 자기를 후회했다.

《무슨 일인데요?》

안해가 남편의 번거로운 심정을 눈치채고 정색  
하여 바투 다가왔자 수길은 당황하여 《아니. 별  
일 아니요》하고 손을 내젓고는 생각나는대로 이  
것저것 별로 긴요치 않은 일 몇가지를 당부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길의 안타까운 심정처럼  
부엌에서 문틈으로 숨새여 들어온 매운 연기가  
점차 방안에 가득히 서리며 구석구석으로 무겁게  
감돌아 내렸다.

수길은 군병원에 들러 대대에 필요한 약품문제  
며 치료문제를 토의하고 안해를 치료하는 담당의  
사를 만났다. 반백의 나이지긋한 의사는 수길에  
게 안해가 산후탈을 오래 앓다보니 합병증증상이  
나타난다면서 건강에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고 신신 당부했다. 수길은 가슴에 연딩이를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루라도 그를 곁에  
서 도와주고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었다.

창밖에서는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며 대  
줄기같은 소낙비가 사정없이 쏟아졌다. 이런 비  
가 며칠만 더 퍼부어지면 공사장에는 큰 난관이  
조성된다. 보리장마를 앞둔 때여서 더욱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얼굴이 어두워진 그의 심정을 넘겨다본듯 담담  
의사는 지금 온 나라가 발전소건설을 돕고있는데  
자기도 그 심정으로 분옥동무의 병치료를 책임적  
으로 하겠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힘을 주  
었다. 수길은 그 말이 너무 고마와 그의 손을 꼭  
그려쥐고 힘껏 흔들었다.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듯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수길은 마음속으로 안해에게 여보, 군대에 나가  
는 아들이 서운해하지 않게 잘 배려해주오, 그리  
구 옥이가 제대되어 오면 가정의 짐도 좀 덜어지  
겠으니 몸조리를 잘하고 하고 몇번이나 마음속으  
로 절절히 당부하고 건설장을 향해 힘있게 발걸  
음을 내짚었다.

가배수로물길굴공사는 계획보다 거의 보름이나  
앞서나가고있었다. 이제 두달 남짓한 기간만 긴  
장하게 전투를 벌리면 제기일내에 공사를 해낼수  
있을것 같았다. 수길은 마음이 든든했다.

며칠동안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대원들과 함께  
긴장하게 일을 한 수길은 한낮이 펑 기울어서야  
대원들이 등을 떠미는 바람에 밖으로 나왔다. 눈  
부신 햇빛이 온몸을 휘감고 상쾌한 공기가 심신  
을 거뜰하게 해주었다.

수길은 한잠 폭 자고싶었으나 식사를 하자 그  
길로 무릎이 넘는 여울목을 건너 부업지로 향했  
다.

금방 씨불임을 한 남새포전을 돌아보고 돼지우  
리와 염소우리를 지나 닭, 오리우리에 이른 그는  
안색이 흐려졌다. 오리며 계사니는 그래도 살이  
오르고 마리수도 별로 줄지 않았는데 칠면조는  
열마리 되나마나한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영양상

태도 나뉘었다. 축산분조장을 하다가 건설장에 나  
온 대원이 사양관리를 책임지고 할때는 알낱이를  
도 높고 번식속도도 빨랐는데 그가 교대하고 들  
어간 다음부터는 확실히 생산성이 낮아지고 사양  
관리가 잘되지 않았다.

수길은 마음이 무거웠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  
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이 물길굴공사가 긴장한 속에서도 계사니  
와 칠면조까지 기르면서 축산에 관심을 돌리는데  
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돌격대원들이 삼지연지구에 일떠세운 뽕죽지봉  
에 아름다운 색깔로 이채롭게 장식한 수백동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에 새집들이를 하는 날이었다.

주민들이 농악소리를 울리며 춤도 추면서 이사  
집들을 날라들었는데 그들이 차에 싣고온 가장집  
물들에는 신통히도 가금이 없었다. 극상해야 닭  
이나 오리 몇마리가 전부였다. 알고보니 이 지방  
에는 예로부터 기온이 낮아 가축이 잘 안된다면  
서 약간의 돼지나 염소같은 큰 짐승뿐 다른 짐승  
들은 아예 기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있었다.

혁명선열들의 숭고한 녀이 어린 삼지연지구에  
사회주의선경을 펼친 돌격대원들은 아쉬운 심정  
을 금할수없었다. 여기 호수나 강가에도 별방지  
대에서처럼 오리나 계사니가 넘쳐나고 칠면조가  
뛰여다닌다면 얼마나 좋으랴. 제일 추운 겨울 한  
철만 넘기면 되겠는데 못한다는것이 리해되지 않  
았다. 차라리 우리들이 한번 길러보자. 별방에서  
가축을 많이 길러본 그들로서는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축산분조장을 하다가 나온 대원이 선참으로 그  
발기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삼지연에서 멀지  
않은 삼봉지구에 내려오자 즉시 그 일을 시작했  
다. 이 지구에서 그것들을 잘 기를수 있다면 삼  
지연지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했던것이다.

드디어 몇달만에 그들은 계사니는 얼마든지 기  
를수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칠면조도 가능  
하다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대원들은 그 성과  
를 두고 모두 기뻐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 일  
을 책임지고 하던 대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  
대하게 되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닌데  
그가 없다고 중도에서 이 일을 그만둘수는 없었  
다.

수길은 생각던 끝에 안해의 도움을 받기로 결  
심하였다. 그래 보름전에 안해에게 안타까운 심  
정과 가금사양관리와 관련한 참고서와 경험을 써  
보내라는 부탁을 적은 편지를 띄웠는데 아직 집  
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보내오지 않았다.

그가 무거운 걸음으로 부업지에서 내려와 대대  
부로가니 방안에는 군복을 입은 웬 낯선 처녀가  
앉아있었다. 누구를 찾아왔는가고 물으려던 그는  
너무도 놀라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졌다. 그  
처녀는 뜻밖에도 딸 옥이였던것이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나?》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 쌍겹진 두눈에 기쁨의 눈물을 가득  
담고 바라보는 딸을 수길은 넓은 품에 와락 그러안았

다. 그리고 틈틈하게 자란 자식의 실락한 어깨를 따 뜻이 어루쓸었다. 소녀시절의 연약한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물라보겠구나. 네가 제대된다는 소식은 들었됐다. 언제 왔니?》

《머칠 됐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보고싶었어요. 그래 이쪽으로 오는 차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격 따라왔지요 뭐.》

《그래. 아버지도 네가 보고싶었다. 이게 몇해만 이냐.》

수길은 자식에 대한 애뜻한 정이 복받쳐 옥이의 손을 꼭 쥐고 놓을줄을 몰랐다.

《집에서는 모두 잘있냐?》

《잘있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썩 좋아졌어요. 군 병원의사선생님이 얼마나 정성껏 치료해주시는지 막 뽀어지신것 같아요.》

《그래!》

머리가 반백이 된 나이지긋한 의사가 생각났다. 고마운 사람이었다.

《혁이는 머칠 있으면 군복을 입는다고 했어요.》

수길은 자식들이 내전스러워 마음이 흐뭇했다. 멀리 떨어져있으니 그 믿음이 갑절 컸다.

《참. 어머니가 건설장에 돼지를 지원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왔다가 가신 날 얼룩돼지가 새끼를 열마리나 낳았다더군요. 그 새끼돼지를 엄지와 함께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

축사를 돌아보며 마음이 무거웠던 수길은 얼굴이 밝아졌다. 가정의 무거운 짐을 혼자 걸머지고 나가면서도 건설장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무척 고마웠다.

《잘했다. 여기서 축산도 공사맞잡이로 중요한단다. 그런데 어머니가 참고서적이랑 보내지 않더냐?》

《예, 가져왔어요.》

배낭을 풀자 그안에서 《축산학》이며 《가금학》과 같은 여러권의 부피 두터운 도서들이 쏟아져 책상위에 무척히 쌓여졌다.

수길은 무슨 진귀한 보물이기라도 한듯 서둘러 책을 펼쳐들고 깨알같은 글줄들을 걸탐스레 읽어 나갔다. 그러나 몇권의 책을 연방 번지던 그의 얼굴에는 점차 실망의 빛이 짙게 비꼰다. 이론적으로 전개한 부분과 과학적인 수자들은 많았으나 실지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고산지대에서의 사양관리와 같은 문제들은 극히 일반적으로밖에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안해의 경험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이해할수 없는 점도 있었으나 한두권의 책이나 읽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것 같지 않았다. 돼지도 혈압관계로 나가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고장이라 여기서는 배운 지식에 기초하여 응용할줄 아는 능력이 필요했다

《책만 가지고는 힘들것 같구나. 네 어머니가 곁에 있다면 몰라두...》

혼자소리처럼 하는 그의 말에 딸의 두눈이 둥그 래졌다. 구체적인 사연을 듣는 옥이의 미간에 일 찻 한조각의 그늘이 드리웠다.

《어머니가 집에 있는 가족만 돌보자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여길 나오겠어요. 한번 와보자고해도 천리가 넘는 길인데...》

딸의 말은 그런데가 없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단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문득 방안에 그흔하게 갖추어진 천연색텔레비존이며 랭동기, 선풍기와 함께 기뻐하던 안해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속에 그에 대한 원망이 차올랐다.

안해에게 너무도 큰 기대를 걸고있었기때문에 오는 애꽃은 원망이라는것을 그도 모르지 않았으나 수길은 안해가 정말 그 생활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건 아닐가 하고 저울질해보게 되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 사람들이 아버지는 인차 교대할것이라고들 하더군요. 여기 나와 일한 기간도 제일 오래고 나이도 있고 해서...》

의혹을 담고 깜빡이는 딸의 까만 눈동자에 어디선가 한줄기 가느다란 석양빛이 흘러들어 반짝하고 빛을 뿌렸다. 그 광채에 눈이 부신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수길의 역실역실한 눈에 불시에 그윽한 빛이 한껏 흘러 넘쳤다.

《나도 혼자 가정을 꾸려가느라 애쓰는 네 어머니의 수고를 모르는바 아니다. 건강도 나쁘니 요즘은 갑절 힘들게다.》

그러나 난 지금도 안개비 내리는 곳은날 이른새벽 군사분계선이 바라보이는 전선동부의 외진 산 중초소인 우리 대대에 찾아오시여 전사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크지 않은 중소형발전소를 보시고 너무 기쁘시여 이렇게 전기를 자체로 생산해 쓰니 얼마나 좋은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식이고 군인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조국보위도 말구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앞장섰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말씀을 잊을수가 없구나.》

수길은 눈시울이 젖어들고 숨이 꺾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에게는 안개비가 뽀얗게 훑날리던 외진 산중초소의 발전소건설장에 울려퍼지던 그날의 만세의 환호성이며 동무들은 모두 나의 믿음직한 선군혁명동지들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던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방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난 지금도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문득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 아침에 불쑥 여기 건설장을 찾아주실것만 같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단다. 난 어제날 총을 들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우리 군인들의 위치가 오늘은 바로 여기 발전소건설장이라고 생각한다.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쁨을 드릴수 있는 초소가 바로 여기라고 말이다.》

수길의 절절한 심정은 딸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옥이의 살결맑은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있었다.

《아버지가 왜 건설장을 떠나지 못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여기 와보니 저도 아버지를 도와 힘껏 일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누만요. 아버지, 저도 여기 남아 일하겠어요.》

별로 깊이 생각지도 않고 결심을 한것 같은 딸의 말에 수길은 저으기 놀랐다.

《아니 너야 금방 제대되었는데 집에서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로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제대병사인 제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설수 있겠나요 어머니가 새끼돼지를 보내면서 사양관리를 특별히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는데 전 그 일도 남보다 잘할수 있어요. 부대에서 돼지를 길러 보았거든요.》

순진한 어린애마냥 랑만이 넘치는 딸의 모습은 수길의 기억속에 불쑥 전연관관을 서슴없이 따라나서던 처녀시절의 안해의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주었다. 어쩌면 성격은 물론이고 그 지향까지도 꼭 처녀때의 제 어머니를 닮았는지...

그 말속에 어머니의 일로 흐려진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고 자기가 건설장에서 어머니를 대신하려는 가목한 진정도 비껴있다고 생각하니 수길은 가슴이 뜨거웠다.

《용타, 잘 생각했다. 장군님의 병사야 응당 그래야지. 너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가족들을 키우면서 책도 많이 보고 설명도 많이 들었으니 얼마든지 그 일을 잘할수 있을게다. 그리고 군대에서 노래도 하고 방송도 했으니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원일도 잘할수 있을게다. 그럼 온 건설장이 들썩하게 군대식으로 한번 잘해보아라.》

수길은 딸이 대견하여 그의 두손을 꼭 쥐고 힘껏 흔들었다. 그의 혈관으로는 기쁨으로 하여 뜨거운 피가 세차게 줄달음쳤다. 이제는 대대장사업을 인계하고 건설장을 떠나가도 마음이 그전처럼 무거울것 같지 않았다. 수길은 갑자기 피곤이 몰려들어 몇달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폴아떨어졌다.

여러달동안 긴장하게 진행되어온 가배수로물길굴 공사는 드디어 마감고비에 이르렀다. 하루이틀만 더 긴장하게 굴진작업을 들이대면 물길굴을 완전히 관통할수 있게 되었다.

수길은 이 어려운 고비나 넘기고 들어가자고 마음 먹어서인지 여러날째 작업장을 떠날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공사장에는 뜻밖의 정황으로 난관이 조성되었다. 석수가 흐르던 물길굴의 파쇄암층이 무너져 내리며 갯의 넓은 구간이 완전히 막혀버린것이였다. 버럭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가물막이공사는 제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그것은 곧 삼봉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수길은 돌파조를 무을것을 결심하였다. 갯앞으로 모여온 대원들의 얼굴을 둘러보는 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모두의 얼굴마다에는 한몫 내대고서라도 공사파제를 제기일에 끝내겠다는 결사의 각오가 력연히 어려있었다. 그런데 그들속에는 얼마전에 옥이와 함께 부업조에 망라시킨 대대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꼬마대원도 끼여있었다.

늘 닦, 오리우리 일이 마음에 걸려 속을 쓰고있는 그로서는 그 대원의 심정을 리해할수는 있었지만 기분이 저으기 흐려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 사업은 단순히 대대의 식생활과 관련된 후방사업인것

이 아니라 대원들의 가슴속에 투사들이 지녔던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는 중요한 정치사업이기도 하였던것이다. 더우기 그는 요새 배앓이로 몸이 허약해져서 갯에 들어가 일 할 형편도 못되였다. 그러나 꼬마는 소대장의 명령이나 동무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도 함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전 얼마든지 견디어낼수 있습니다.》

그는 동무들의 눈길에서 탐탁치 않아하는 심정을 읽었는지 이번에는 《제가 신입대원이라고 속보는게 아닙니까?》

하고 항변이라도 하듯 성큼 나서더니 곁에 있는 광차를 혼자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저만치 밀어버렸다. 동무들속에서 놀라와 하며 탄복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부업조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마을에 사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아나섰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끔업이랑 집집승사양관리에 얼마나 밝은지 아십니까. 어제는 그 어머니가 지우 황알약을 가져다 주어 먹었는데 하루밤새 배앓이가 족 족 멎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성의를 봐서라도 절 돌파조에 받아주십시오.》

수길은 어제 앞마을에 사는 한 녀인이 며칠째 부업조일을 도와주고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생활에서 불편을 겪으면서도 돌격대원들에게는 찬거리 하나라도 더 보내주려고 성의를 바치고 있는 때여서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막장일이 긴장하여 나가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앓는 대원들을 위해 지우황알약까지 만들어왔다니 정말 고마운 녀인이였다.

이 고장 사람들이 황해도지방사람들이 옛날부터 배앓이에 지우초와 황백피를 써왔다는것을 어떻게 알고 그 알약을 만들 생각까지 했을가 하는 의혹도 없지 않았으나 수길은 인차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돌격대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하니 그런 일도 하게 되었을것이였다.

훌륭한 녀성을 대한때문인지 안해 생각이 났다. 어제날 수길에게 전사들의 땀배인 군복을 가져오게 하고 한밤중에 강가로 달려가 온밤 땀아 다림발까지 세워 차곡차곡 정돈해놓던 안해였다. 봄이면 전사들에게 산나물 한가지라도 더 맛보이겠다고 산밭을 훑고 앓는 대원들을 위해 수백리길을 달려가는 것도 서슴지 않던 그였다.

남편이 제대되어 어느 협동농장 관리일군으로 배치되었을 때는 관리위원회일군들의 안해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축산작업반에서 험한 일을 찾아할수도 있었으나 조건이 불리한 농산분조에 들어가 농장원이 되었고 그가 군인민위원회로 소환되었을 때는 온돌수리와 같은 건물관리반의 일이 홀시되어 군내 주민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다는것을 알고 자진하여 온돌수리공이 되었다.

그 모습을 이제는 안해에게서 다시 찾아볼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는 마음이 괴로웠다.

수길은 빨리 물길굴을 열고 대원들의 생활과 건

강을 성심성의로 돕고있는 고마운 너인에게 인사를  
《본인의 요구대로 결사조에 망라시킵시다.》

수길의 제의는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꼬마는  
가슴을 내밀고 당당히 대오에 들어섰다.

버럭처리작업은 런 이틀째나 낮과 밤이 따로 없  
이 긴장하게 진행되었다. 봉락구간에 동발을 세우  
며 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어서 이틀새에 벌써 대  
원들의 입술이 터갈라지고 숨소리가 높아졌다. 갱  
작업을 몇달째 하다보니 지치고 힘에 부쳐 하는것  
이 험등하게 알렸다.

수길은 여기저기 부지런히 오가며 위험개소를  
제거하고 자기가 어깨를 들이밀고 광차를 밀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버럭처리작업은 속도가  
떨졌다. 어떻게 하면 대원들의 기세를 돋우고 작  
업속도를 부쩍 높일수 있겠는지 안타까와 그가 속  
을 태우며 봉락구간을 살펴나가고있을 때였다.

뜻밖에도 작업장으로 안전모를 쓴 여성돌격대원  
두명이 뛰어들었다.

《셋! 동무들은 뭐요? 여기가 어딘줄 알구 막 뛰  
여드는거요. 갱이 무너질수 있다는걸 모르오? 나  
가오!》

깜짝 놀라 버럭 소리를 지르던 그는 눈이 휘둥  
그레졌다. 목에 흰 수건을 걸친 대원은 딸 옥이었  
다.

《아버지. 저예요.》

《영? 네가 어떻게 된 일이나. 제 말은 일을 잊  
은게 아니냐? 어서 나가거라.》

《아버지두 참, 제가 왜 말은 일을 잊겠어요. 저  
도 돌격대원이예요.》

당돌하게 내쫓는 딸의 말을 듣고서야 수길은 그  
의 손에 들린 확성기를 알아보았다.

《이 동문 또 뭐냐?》

수길은 몸매 작은 녀대원의 작업복팔소매를 헐  
나꾸채며 앞을 막아나섰다. 갑자기 막장안에 까르  
르 하고 옥이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차고넘쳤다.

《아이 참, 아버지도... 그렇게도 몰라보세요? 어  
머니예요. 어머니를 모르세요?》

어머니라니? 수길은 둔중한 물체로 정수리를 들  
부시운듯 어리뻑뻑해져 한동안 제 귀를 의심했다.  
그릴수 없다고 부정하면서도 자석에 끌린듯 그는  
촉수 낮은 전등빛에 희미하게 드러나는 녀인의 얼  
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끈으로 작업복허리를  
가튼히 줄라매고 안전모를 꼭 눌러써 낫설어보였  
으나 그는 틀림없는 안해였다. 영? 어떻게 이런  
일이?!...

수길은 한동안 굳어져 아무 말도 못했다. 반가  
움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안해를 오해한데 대  
한 사죄인지 눈에는 불시에 뜨거운 눈물이 펴 돌  
았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안해의 가선이 진한 시원한 눈에도 반가움과 기  
쁨으로 맑은 샘물이 차랑차랑 고여올랐다.

《당신이군요. 그새 건강하셨어요? 당신 몰래 들  
어오자던노릇이 그만...》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언제 왔소?》

《머칠 뻔했어요.》

해야겠다고 다시금 속다짐했다.

《영? 그런데...》

《막장에서 일하고있는 당신이 걱정할가봐 알리  
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고라도 치면 어쩌겠어요.》  
수길은 어떻게 된 감투끈인지 리해가 되지 않았  
다.

《부업조일은 걱정마세요. 잘되고있어요.》 아니  
그럼?...

《앞마을녀인이라는 아주머니가 바로 당신이였  
소?! ... 대대부업을 도와주고 앓는 대원들에게 약  
도 지어준다던...》

《당신두 참, 그게 무슨 큰 일이라구 그러세요.》

영? ... 수길은 코허리가 시큰해지며 눈뿌리가  
확 달아올라 자기를 건잡을수 없었다. 가슴은 이  
름할수 없는 뜨거움으로 가득 차올랐다.

대원들이 막장에 녀성들이 나타난것이 신기한듯  
호기심이 동하여 모여들자 안해는 남이 들을세라  
조용히 속삭였다.

《전 돌 한개라도 제 손으로 광차에 싣고싶어 들  
어왔으니 걱정말고 어서 일을 보세요.》

하고 눈을 검석하고는 그가 어쩔새도 없이 딸과  
함께 날과람있게 갱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수길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이어 막장에는 옥이의 세련된 경제선동의 목소  
리가 힘있게 울리고 두 녀대원이 부르는 혁명가요  
가 암벽을 흔들며 울려 퍼졌다.

돌격대원들은 기세가 부쩍 올랐다. 오후작업실  
적은 배로 높아졌다. 버럭처리작업은 계획보다 몇  
시간이나 앞당겨 끝나게 되었다.

하늘에는 어느새 은쟁반같은 보름달이 걸렸다.  
수길은 안해와 함께 물소리 유정한 강변으로 나왔  
다. 멀리 불야경을 이룬 가물막이전투장이 바라보  
였다.

《몸은 어떻소?》

바위에 걸터앉으며 묻는 수길의 어조에는 근심  
이 다분히 실렸다.

《괜찮아요. 군병원의사선생님들이 정성껏 치료  
해주어 다 나왔어요. 여기 와서는 또 약초를 캐러  
산에랑 올라다녔더니 건강이 훨씬 좋아졌어요. 산  
에 오라가보니 서해안지방에만 있는줄 알았던 지  
우초와 황백피가 여기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집짓 밝은 웃음을 짓는듯 한 분옥의 어조는 젊  
은 녀성들처럼 생기에 넘쳐있었다.

《정말이요?》

《그래요. 제가 일하는걸 못했어요?》

《허허허, 정말 그렇다면 마음을 놓겠소.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하구 나왔소?》

《집은 제대군관부부에게 맡기고 나왔어요. 금방  
제대되었다는데 함숙에 들었길래 우리 집을 쓰고  
살라고 열쇠를 통채로 주고 떠났어요. 공연히 집  
을 비워둘 필요야 없잖아요.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또 새집들을 많이 짓겠는데요 뭐. ...》

안그래요 하고 묻는듯이 바라보는 안해를 수길  
은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불  
쑥 단풍잎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진 고급비닐벽지를  
펼쳐보이며 우리도 남들처럼 집을 잘 꾸리고 살자

던 안해의 모습이 또렷이 그려졌다. 안해의 성장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나올 생각을 다 했소?》

《당신이 책을 요구하는 소식을 보냈을 때만 해도  
전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안해의 얼굴이 갑자기 흐려졌다. 그의 목소리가  
힘겹게 이어졌다.

《그런데 옥이가 편지에서 당신이 저때문에 교대  
하러 한다는 소식을 보내오지 않았겠어요. 전 속이  
덜컹했어요. 제판에는 돼지랑 길러 건설장에 지원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저  
라구 왜 장군님께서 전사들이 건설한 중소형발전소  
를 보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을수 있겠  
어요. 집에 왔을때 그 심정을 털어놓지 않은 당신  
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안해는 그때 일이 지금도 서운한듯 눈가에 서글  
픈 표정을 지었다. 수길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안  
해에게 속을 터놓지 않아 오히려 마음고생을 시킨  
자신의 소행이 뉘우쳐졌다. 수길은 뜨거운것을 삼  
키며 말머리를 돌렸다.

《혁이가 군대에 가면서 아버지가 없어 서운했겠  
구만. 언제 떠났소?》

수길의 목소리는 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축축히  
젖어들었다. 분옥의 눈가에도 모성애가 함뿍 어린  
맑은 샘이 함초름히 고여올랐다.

《옥이가 간 다음 인차 군복을 입었어요. 저도 혁  
이를 보내면서 아쉬운 생각만 앞섰어요. 그런데 그  
애가 뭐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전 아버지가 왜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가 며칠 쉬지도 않고 건설장  
으로 떠났는지, 왜 돌격대에서 교대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계시는지 압니다. 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  
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자는것은 아버지장군님의 구상과 의도  
예요. 더우기 삼봉발전소건설은 백두성지의 전기화  
를 실현하는 일인데 분계선초소에서 전우들을 땅에  
묻으며 피흘려 싸운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앞장서  
는것은 너무도 웅대한 일이 아니예요. 그러니 어머  
니도 아버지가 집근심을 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세  
요.》 하고 얼마나 어른스럽게 이야기를 하던지 난  
혁이가 이젠 다 자랐구나 하는 대견한 생각에 그만  
눈물이 다 났어요. 그래 품에 꼭 껴안고 네 말이 옳  
다. 이 어머니가 너만 못하구나. 장군님의 선군령  
도에 이바지할 생각보다 선군의 덕을 누릴 생각을  
더 했다, 어머니도 결심을 했다, 자. 그럼 너는 조  
국보위초소로 가구 이 어머니 백두산으로 가자 하  
고 약속하고 집을 떠났어요.》

수길은 그 광경이 눈앞에 방불히 그려져 가슴이  
후터왔다.

《우리 혁이가 참말 용쿠만, 용해. 그런데 그후  
무슨 소식이 없소? 주소가 있으면 편지라도 해주고  
싶구만. ...》

분옥은 잠시 말없이 생각깊은 눈길로 남편을 바  
라보더니 품속에서 차곡차곡 접은 종이를 꺼내들었  
다.

《혁이가 군대에 가서 한달만에 오늘 편지를 보내

이 너무 급작스러워보였다.

왔구만요. 당신에게 빨리 보이고싶어 기어이 막장  
으로 들어왔던거예요.》

《그렇소? 어디, 당신두 참. 그 말부터 했어야  
지.》

수길은 안해가 내미는 편지를 서둘러 펼쳤다.

백두산지구의 전기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발전소건설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고 체법 어른  
스럽게 서두를 땀 편지에는 뜻밖에도 부대에 찾아  
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은 감격적  
인 사연이 적혀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부대전투준비로부터 군인  
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알아보시고 인민군  
대에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병사들까지 만  
나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훈련은 힘들지 않은가, 집  
은 어디이고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고 친어버  
이심정으로 물으시고 아버지가 전연부대에서 군관  
으로 복무하다가 제대되어 오늘은 발전소건설장에  
서 돌격대원으로 일하고있으며 누나도 몇달전에 제  
대되어 발전소건설장에 자원하였고 어머니도 아들  
을 바래워주며 건설장에 가 아버지를 돕겠다고 약  
속했다는 혁이의 대답을 들으시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선군시대 가정의 전형이라고, 참 애  
국적인 가정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이런 애국자들이  
많아 사회주의 내 조국이 든든하고 강성대국의  
령마루에도 빨리 올라서게 된다고 하시었다. 그러  
시면서 군대에 나올 때 아버지의 바래움도 못받고  
나왔다는데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인민군대입대  
를 축하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다는것이였다.

수길은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 커 한동안 아무 말  
도 하지 못했다. 이 나라 공민으로서 웅당 해야 할  
일을한 한가정의 평범한 소행을 그렇게도 값높이  
평가해주시니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분옥은 꿈같은 행복에 감격이 북받쳐 소리내어  
흐느끼며 얼굴에서 손수건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이윽고 분옥은 눈귀를 꼭꼭 누르고 차분한 목소리  
로 말을 이었다.

《저도 이젠 려단에 찾아가 정식 돌격대원으로 등  
록하겠어요. 이제라도 장군님께서 불러주신 선군시  
대 가정의 어머니, 안해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어요.  
장군님의 믿음에 적으나마 보답하겠어요. 처음엔  
정말 짐이 되지않겠는지 또 견디여낼수 있겠는지  
걱정이 가득했는데 이젠 자신있어요.》

분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함께 새 생활에  
대한 꿈으로 하여 전연군관을 따라나서던 처녀시절  
처럼 량만과 힘이 넘쳤다.

《당신 정말 견딜수 있겠소? 결심만으로 될 일이  
아니요.》

분옥은 남편의 말이 서운한지 곱게 눈을 흘겼다.

《절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저도 최고사령부 작  
식대원으로 복무한 군관의 안해가 아니예요. 이만  
한 난관앞에 주저앉는다면 제가 무슨 당신의 진정  
한 혁명동지겠어요.》

자랑스럽게 울리는 안해의 말을 들으며 수길은 그



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 행 총각군관을 따라나선 그날부터 오늘까지 20여 년을 항상 조국이 바라는데로 남편과 함께 마음도 걸음도 함께 해온 안해였다. 그가 있어 수길은 오늘까지 군인의 양심을 지켜 참되게 살수 있었다.

수길은 가슴속에서 기쁨과 함께 안해에 대한 정이 불쑥 솟구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며 부드러운 달빛아래서 처녀시절처럼 방석이 웃고있는 안해를 덥석 껴안고 뉘큼 들어올렸다. 그리고 안해가 무슨 망측한일인가고 누가 보겠다고 놀라 가볍게 비명을 올렸으나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며 빙그르르 돌았다. 고요한 강변에는 때아닌 즐거운 웃음소리가 한껏 차고넘쳤다.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었다. 사람들마다 바라고 념원하는 행복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 행복의 정상에 자기들의 가정이 서있다는것을 그들은 절절히 느끼였다. 수길은 안해를 새로운 눈으로 보며 흥분을 억제할수 없어 그를 품에 꼭 껴안고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화끈 단 그들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견우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났어도 이렇게 기쁘지는 않을것 같았다.

온 세상이 다 자기것으로 된듯 마음은 흐뭇하고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이 순간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여 경애하

동은 너무도 자연스러운것이였다. 전연초소를 지켜선 장군님께 기쁨드릴 하나의 맹세가 더욱 굳어졌다 조국이 부르고 혁명이 요구하는 초소에서 부부가 되어 나란히 손잡고 청춘시절에 다진 사랑의 약속을 지켜 한길을 가는 그들은 무한히 행복하였다. 수길에게 있어서 분육은 안해이기전에 선군혁명의 길을 함께 가는 동지이고 전우였다.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려는 그 높은 지향이 오늘도 그들을 한순간도 떨어저서는 살수 없는 참다운 동지로, 부부로 되게 한것이였다.

사랑이란 역시 멀고먼 인생길에서 한번 다진 약속을 변심없이 지켜갈 때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맺는 진실하고 고귀한것이였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의 속성은 행복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양이였다. 앞으로도 그들은 그 한길을 영원히 곧바로 걸어갈것이였다.

어디선가 도간도간 물새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허천강반에서는 드문 밤새울음소리여서인지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 일떠서면 바다처럼 푸른물이 출렁이는 호수가에 온갖 새들이 날아들어 아름다운 목청으로 지저귀고 오리, 계사니떼가 넘쳐나고 칠면조, 타조까지 마음껏 뛰놀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울렁거렸다. 참으로 잊을수 없는 허천강반의 류다른 밤이였다.